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479-000006-01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2019. 10.

● 연구책임자
배 경 재(동덕여자대학교)



국립장애인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2019. 10.



국립장애인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제 출 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
- 위탁연구기관명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강지혜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 연구보조원 : 김정빈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도서관법 제45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을 직접적인 이용자로 설정하고, 서비스와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그동안 추진해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확충이 주로 신체적 장애인(시각·청각·지체)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욕구 파악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여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자 함

1.2 연구의 내용

- 1)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 (1) 국내 도서관이 발달장애인 서비스 실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사례 조사 및 도서관 서비스 구성요소 분석
 - (2)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도서관 사서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실행하며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를 고찰하

여 서비스 구성요소 분석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반영

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 및 고려사항 조사

- (1)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자폐성 장애당사자, 가족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욕구 및 특성 파악
- (2) 생애주기별 요구 파악을 위해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44세), 중노년기(만45세~)¹⁾로 구분하여 욕구조사를 수행

3) 생애주기별 요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

- (1) 서비스 대상을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 필요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시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 공간구성 및 핵심 서비스·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도서관 현장 중심의 서비스 방안 제시

4) 발달장애인 가족, 특수교육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회 구성·활용

- (1)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 (2) 특수교육 및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 (3) 도서관 실무자(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 인터뷰

2. 주요 연구결과

2.1 발달장애인 당사자 면담조사

○ 학령기

: 학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며 독서나 대출, 개인 학습을 위해 도서관 활용하고, 장애인 열람실을 활용하지 않음

1) 관계부처합동. 2018.9.1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정부시책을 위한 생애주기 구분을 활용하였으며 학령기의 기준이 특수교육에서 발달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기준임.

○ 청장년기

: 독서나 대출, 프로그램 참여, 개인 과제 및 학습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며 사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음

○ 중노년기

: 도서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 이용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용함.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기대감이 크며 도서관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함

2.2 발달장애인 보호자 FGI와 설문분석

○ 발달장애인 보호자 FGI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읽기 쉬운 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와 정부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모용 콘텐츠를 요구함. 도서관에서 눈치 보지 않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 사서의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 의견이 제시됨

○ 설문분석과 장애인 당사자 면담을 통한 욕구를 종합하면 아래 내용과 같음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쉬운 책, 학습관련 주제, 만화책	쉬운 책, 그림/만화도서, 큰글자도서	쉬운 책, 생활관련, 건강
멀티미디어 관련 도서와 공간	책 찾기 어려움	아날로그 녹음도서
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 문화예술	문화프로그램, 건강, 체험학습	문화프로그램, 건강, 체험학습
멀티미디어실, 대면상담실, 안내데스크	사인시스템 중요성 높음	사인시스템 중요성 높음
열람석,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열람석,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화장실, 계단/승강기, 세면대, 접수대/작업대

3. 전문가 의견 조사

○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책을 읽으러 오는 곳’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함. 발달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하며, 문제행동과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여야 함. 발달장애의 특성상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서관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아야함

○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 면담

: 공간과 시설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많고 통합적 이용공간과 발달장애인 전담사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도서관 사서의 인식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함

4.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비장애인에게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증진시키는 것임

○ 이와 같은 인적자원의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을 보편적 설계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도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한편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도서관에서는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이용자 계층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1.3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2.1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평생교육	13
2.2 국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연구	24
2.3 국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38
2.4 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67
2.5 요소 분석	79
2.6 시사점 도출	83

제 3 장 발달장애인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3.1 장애당사자 면담조사 결과	89
3.2 장애인보호자 FGI 및 설문 결과	98
3.3 시사점 도출	134

제 4 장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4.1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141
---------------------------	-----

4.2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 면담	157
4.3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가 의견조사의 시사점	166

제 5 장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5.1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171
5.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201
5.3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개선방안	23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1 결론	245
6.2 제언	248

참고문헌	252
------------	-----

첨부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

관련 설문지	257
--------------	-----

첨부2. 전문가 FGI 질문지

272

첨부3. 담당사서 질문지

273

표 목 차

<표 1-1>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책과제	6
<표 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이용 경험	21
<표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22
<표 2-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주요 선행연구(2010~2019)	25
<표 2-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40
<표 2-5> 인천시미추홀도서관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	48
<표 2-6>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55
<표 2-7>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사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58
<표 2-8> ‘작은나눔 큰사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59
<표 3-1> 부모면담에서 도출된 대주제와 하위주제	99
<표 3-2> 설문지 구성요소	107
<표 3-3> 응답자의 연령분포	109
<표 3-4> 발달장애인의 분포	112
<표 3-5>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116
<표 3-6>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현황	117
<표 3-7>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방문목적	118
<표 3-8> 생애주기별 주제분야 선호도	120
<표 3-9> 기이용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	121
<표 3-10>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대분류)	121
<표 3-11>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세분류)	122
<표 3-12> 도서관의 각 공간과 중요도	124
<표 3-13> 도서관의 각 시설과 중요도	125
<표 3-14> 생애주기별 시설 중요도	126
<표 3-15> 도서관의 각 프로그램과 중요도	129
<표 3-16>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중요도 순위 비교	131

<표 3-17> 자유의견 가운데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33
<표 3-18> 자유의견 가운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34
<표 3-19> 장애당사자 면담 결과	135
<표 5-1>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	204
<표 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207
<표 5-3> 개인별지원계획 정보요청 관계기관	210
<표 5-4>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중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파악	212
<표 5-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추진체계	213
<표 5-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개요	214
<표 5-7>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의 적용	237
<표 6-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의 설정	248
<표 6-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과제의 실행	250

그 립 목 차

<그림 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장애인 관련 가치·전략방향·핵심과제	5
<그림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수사례(2008~2018) 범주화	39
<그림 2-2>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 구성	51
<그림 2-3> 시끄러운 도서관 책상 배치	52
<그림 2-4> 시끄러운 도서관 도서 배치	53
<그림 2-5> 시끄러운 도서관 이용자 교육	54
<그림 2-6> 브루클린도서관의 1:1 서비스 홍보포스터	69
<그림 2-7> Tulsa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한 Sensory Storytime의 가이드 일부	72
<그림 2-8> Sensory Strategy Space의 촉각 자극 공간	77
<그림 2-9> 한 이용자가 대형 쿠션에 앉아 진정효과를 제공하는 광섬유와 통합 광원을 이용한 LED softie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77
<그림 2-10> 포용적인 도서관의 요소 분석	82
<그림 3-1> 참여자의 지역정보	109
<그림 3-2> 참여자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10
<그림 3-3> 발달장애인의 거주 형태	111
<그림 3-4>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정도	113
<그림 3-5>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정도	113
<그림 3-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이용 정도	115
<그림 3-7>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정도	116
<그림 3-8>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현황	118
<그림 3-9>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목적	119
<그림 3-10>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120
<그림 3-11> 생애주기별 도서관 방문하지 않는 이유(상위11건)	123
<그림 3-12> 생애주기별 공간 중요도	125
<그림 3-13>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자유의견 태그 클라우드	127
<그림 3-14> 생애주기별 장서 형태에 대한 중요도	129
<그림 3-15> 생애주기별 중요 프로그램(상위5건)	131

<그림 3-16>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요소	138
<그림 5-1> 피치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읽기 쉬운 책	175
<그림 5-2> 시각적인 시간표	177
<그림 5-3> Identifor Companion의 홈페이지	189
<그림 5-4> 지역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실행체계	202
<그림 5-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추진체계 및 업무흐름	206
<그림 5-6> 개인별 지원계획 수행 절차	209
<그림 5-7>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216
<그림 5-8>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모델(안)	220
<그림 5-9> 도서관 위계를 활용한 발달장애인서비스 수직적 협력체계	221
<그림 5-10> 발달장애인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수평적 협력체계	227
<그림 6-1>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모델	247
<그림 6-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전략과제 로드맵	251

제 1 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연구의 방법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43조에 도서관의 책무로서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45조에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의 역할을 담당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명시한 이후 비로소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이 장서, 시설,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복지관에 설치된 자료실 및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사립 점자도서관 등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으며,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용자를 직접적인 이용자 계층으로 고려하는 도서관이나 관련 연구 또한 찾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배경재 2016).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정의한 발달장애인은 현재의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해당되어서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도서관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을 수립·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도서관법 제45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개정 2012.2.17>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한편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4월 제정, ’15.11월 시행)은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을 직접적인 이용자로 설정하고, 서비스와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7조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서관은 신체적 장애, 교육정도,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2023)의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며, 전략방향 ‘사회의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핵심과제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정보격차현상을 해소하고, 장애인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4개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그림 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장애인 관련 가치·전략방향·핵심과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정책과제 중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는 <표 1>과 같다.

소외계층의 문해력을 높여서 정보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과제는 기존에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포용적 개방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하는 과제는 기존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 문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이는 통합적 공간으로 도서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자 특성상 도서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연계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확대할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표 1-1>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 추진과제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 정보 불평등 계층 정보 및 매체 활용 교육 강화 - 맥락이해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 •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공유 개방공간의 확대 -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 전환 - 도서관 1층 공간은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기능(휴식 공간, 카페 등) 부여 - 다중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 추진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 - 신체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물리 환경 개선 - 도서관 안내정보 개선 -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 설치 •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확대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 연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책적 노력으로 기초 인프라 확대와 대체자료 확충의 결실이 있어왔다. 실례로, 2012년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격상되었으며, 대체자료 제작예산은 2014년 17억 원에서 2018년 5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코너는 2013년 151개에서 2018년 241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확충이 주로 신체적 장애인(시각·청각·지체)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욕구 파악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전체 장애인수(255만 명)는 동결수준이나 발달장애인(22만 명) 수는 늘어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매년 3.6% 증가)이며,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34%) 유형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임(80%)이다.²⁾ 또한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결의대회('18.4.2) 및 천막농성 등을 통해 부모단체 중심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목적 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욕구 파악: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관련전문가,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 및 특성파악
- 연구목적 2.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및 지원체계 개발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

2) 관계부처합동. 2018.9.1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할 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80%), 발달장애인 지원은 장애당사자의 복지 및 권익 보장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 전체의 돌봄부담 경감 차원에서 접근 필요

으로 진행된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 (1) 국내 도서관이 발달장애인 서비스 실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사례 조사 및 도서관 서비스 구성요소 분석
- (2)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도서관 사서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서비스를 실행하며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를 고찰하여 서비스 구성요소 분석 및 서비스 모델개발에 반영

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 및 고려사항 조사

- (1)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자폐성 장애당사자, 가족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욕구 및 특성 파악
- (2) 생애주기별 요구 파악을 위해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44세), 중노년기(만45세~)³⁾로 구분하여 욕구조사를 수행

3) 생애주기별 요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

- (1) 서비스 대상을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 필요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시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 공간구성 및 핵심 서비스·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도서관 현장 중심의 서비스 방안 제시
- (3)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규모별(지역대표도서관·중앙관·지역분관) 지원 및 협력체계 제시

3) 관계부처합동. 2018.9.1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정부시책을 위한 생애주기 구분을 활용하였으며 학령기의 기준이 특수교육에서 발달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기준임.

4) 발달장애인 가족, 특수교육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회 구성·활용

- (1)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 (2) 특수교육 및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 (3) 도서관 실무자(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 인터뷰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헌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현황과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1) 문헌 고찰 및 국내외 자료 분석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 국내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도서관 학술연구와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IFLA 등의 관련 단체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연구를 조사
-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운영현황 사례 조사: 국내외 경우에는 기존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와 우수사례를 집중 조사하며 국외의 경우는 발달장애 도서관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조사하고 각종 수상 사례 분석

2) 설문조사

- 발달장애인 보호자(부모 및 가족)를 대상으로 1차 FGI를 수행한 이후 아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고,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 약 200여명 규모의 설문조사로 진행하며,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및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
- 발달장애인이 도서관 비용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 기관인 평생교육기관의 이용현황과 도서관에 희망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위주로 설문을 구성함

3) 개별 면담조사

- 장애당사자 대상의 개별면담을 실시(총 10명 내외, 필요시 보호자 동반)
- 생애주기별 구분 중 초등학생 학령기 대상은 의사소통의 문제상 개별면담에서 제외하고, 보호자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욕구조사결과에 반영
- 성인기를 청장년기와 중노년기로 구분하여 장애당사자를 인터뷰
- 개별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행하되, 이용자 환경·도서관 이용·자유의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면담을 진행
-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피면담자와 이용경험이 없는 피면담자를 적절히 배분하여 섭외

4)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 전문가 FGI(1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5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논의안건: 유관기관 협력 방안 및 협력 체계,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관별 역할 및 구성)
- 보호자 FGI(1회):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보호자 5명 내외를 대상으로 보호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보호자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검토)

제 2 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 2.1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평생교육
- 2.2 국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연구
- 2.3 국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 2.4 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 2.5 요소 분석
- 2.6 시사점 도출

제2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2.1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평생교육

1) 발달장애인 이해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는 미국 공법 88-164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건축법』(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 of 1963)에서 소개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현재 미국법전 제42편 보건 및 복지, 제144장 발달장애지원과 권리장전(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에서는 발달장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5세 이상 22세 이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하고, 만성적이 장애로,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손상, 혹은 2가지를 복합적으로 동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언어, 학습, 이동, 자기지시,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족 등 주요 일상생활 영역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적 한계를 지니며, 장기간 또는 일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조정되고 통합된 형태의 다학문적이고 포괄적인 특별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법적으로 칭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1) 지적장애인, 2) 자폐성장애인, 3)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

는 발달장애인의 두 가지 유형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적장애인

가. 지적장애인 정의

지적장애이란 일반적으로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능력이 자신의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는 지적장애를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장애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장애’로 정의한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유의하게 평균 이하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제한을 보여야 한다는 점으로 지적 능력만으로 지적장애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지적장애인 특성

① 학습 특성

지적장애인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산만한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 어려움을 가지며 학습 속도가 느리다. 지적장애인이 보이는 또 다른 학습특성은 다른 사람의 관찰 및 모방을 통한 우발학습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지적장애인에게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교수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며 습득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정서 및 사회 특성

지적장애인은 실패의 경험이 많다보니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거라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해 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빨리 포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이나 태도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이어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③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며 비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즉, 정확한 발음의 어려움, 언어발달 속도의 지체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용하는 어휘가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문장으로만 표현하기도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때로는 목소리 크기의 조절이 어려워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목소리 크기로 대화하기 어렵기도 하다. 읽기와 쓰기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문해력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 같은 수준의 지문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쓰기에서도 철자나 문법의 오류, 간단한 문장으로만 작문을 하는 등 제한된 작문 능력을 나타낸다.

(2) 자폐성장장애인

가. 자폐성장장애인 정의

장애의 진단 및 정의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 편람에 따르면 자폐범주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하거나 흥미의 교감이 어렵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결함을 보이고, 상상놀이나 친구 사귀기 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동 행동이나 반항어가 지속되거나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일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감각 자극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폐성장장애인을 ‘소아기지폐증, 비정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자폐성장장애인 특성

① 학습 특성

자폐성장장애인의 지적 능력은 지능 검사 결과 70이상의 지능점수를 보이면서 지적 기능에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Rosenberg, Westling, & McLeskey 2011).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자폐성장장애인은 학업에서 낮은 수행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폐성장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및 사회성 제한,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특성에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적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일 수 있다(이소현, 박은혜 2011)

② 정서 및 사회 특성

자폐성장장애인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는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 맞춤이나 응시행동,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무관심하거나 공유된 감정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이소현, 박은혜 2011).

자폐성장장애인의 비전형적인 행동특성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상동행동(예, 손가락 펴럭거리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자해행동,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다. 자폐성장장애인이 보이는 또 다른 행동특성으로는 특정 물리적 환경이나 일정의 고집, 특정 감각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반응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문제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③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자폐성장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서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구어가 나타나지 않거나 언어 발달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한다고 해도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 사용에 어려움을 보인다.

자폐성장장애인의 언어의 또 다른 특성은 반향어의 사용인데, 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이전에 들었던 뉴스나 광고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음성이나 운율적인 면에서도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이며 어조에 있어서 높낮이가 없는 기계음과 같은 말을 하거나 매우 높은 어조로 말하거나 의문문인 형태로 말하기도 한다(Shriberg et al. 2011).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한다(이영선 외 2018). 우리나라에서의 평생교육 개념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고 있는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즉,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은 약 4천개로 조사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약 21만개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학교 이외의 기관 혹은 시설의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평생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는 전체 평

생교육 학습자의 0.02%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0.0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최복천 외 2015). 이에 평생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평생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대적 열악성과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하고자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33조, 제34조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은 모두 삭제되고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정민호 외, 2016). 201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2)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3)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④ 시·도 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평생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도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3) 평생교육 현황 및 지원요구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최복천, 2016)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반적 운영 현황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3.5% - 30.0% 정도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0세-29세 발달장애인, 3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도 약 3.0%-40.0%의 정

도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들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시설(예,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이용 비율은 1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 14.9%, 20-29세 발달장애인 12.6%, 30세 이상 발달장애인 5.9%로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이용 경험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11.3	18.6	18.9	17.7(156)
	없음	88.7	81.4	81.1	82.3(724)
	전체	100.0(115)	100.0(500)	100.0(265)	100.0(88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3.5	5.4	3.2	4.5(38)
	없음	96.5	94.6	96.8	95.5(812)
	전체	100.0(113)	100.0(484)	100.0(253)	100.0(850)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30.0	43.1	39.6	40.3(358)
	없음	70.0	56.9	60.4	59.7(530)
	전체	100.0(120)	100.0(508)	100.0(260)	100.0(850)
시도/시군구/읍면동 평생학습기관	있음	5.3	9.2	9.7	8.8(74)
	없음	94.7	90.8	90.3	91.2(768)
	전체	100.0(120)	100.0(508)	100.0(248)	100.0(842)
공공기관이나 시설(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있음	14.9	12.6	5.9	10.9(93)
	없음	85.1	87.4	94.1	89.1(758)
	전체	100.0(114)	100.0(484)	100.0(253)	100.0(851)
시설 기관(백화점, 마트 등)의 평생교육기관	있음	6.2	5.7	1.6	4.5(38)
	없음	93.8	94.3	98.4	95.5(802)
	전체	13.5(113)	56.8(477)	29.8(250)	100.0(840)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	있음	21.8	15.0	13.0	15.3(132)
	없음	78.2	85.0	87.0	84.7(728)
	전체	100.0(119)	100.0(488)	100.0(253)	100.0(860)

* 출처: 최복천 외(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평생교육 기관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46.3%),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2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6.0%로 드러나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받고 싶은 요구는 지금 이용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개인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25.4%, ‘직업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3.1%,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글 해득 프로그램, 일반교양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가 높았고 다음으로 19세 이하와 20세-29세는 ‘직업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각각 18.6%, 13.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1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개인 생활(위생, 정리정돈, 위험 대처, 성 의식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22.5	24.0	29.3	25.4(205)
가정생활(가족 이해, 주거생활, 성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2.9	6.7	8.3	6.7(54)
지역사회 생활(이동, 시설 이용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3.9	6.7	6.2	6.2(50)
질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1.0	3.2	5.0	3.5((28)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2.0	5.2	7.9	5.6(45)
대인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4.7	13.4	11.2	12.9(104)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9.8	6.9	5.0	6.7(54)
한글 해득(읽기, 쓰기 등) 프로그램	2.0	1.3	2.5	1.7(14)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초등 및 중등 학력 검정 프로그램	0.0	0.0	0.4	0.1(1)
직업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8.6	13.8	9.5	13.1(106)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2.9	1.7	1.7	1.9(15)
인문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1.0	0.0	0.4	0.2(2)
일반 교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0.0	0.2	0.0	0.1(1)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13.7	11.2	7.0	10.3(83)
문화예술 프로그램	2.0	2.6	1.7	2.2(18)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0.0	1.1	0.8	0.9(7)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2.9	1.9	3.3	2.5(20)
전체	100.0(102)	100.0(463)	100.0(242)	100.0(807)

* 출처: 최복천 외(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한편,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김기룡, 나경은 2015)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기초 문해 42.9%, 직업능력 향상 42.6%, 문화예술 6.9% 순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별 하위영역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기초문해의 경우 대부분이 자립생활 교육, 지역사회 적응 교육, 신변자립교육 등을 포함하는 기초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98.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기능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전문 직업 교육이 51.9%, 기초 직업교육이 42.6%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인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도서관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와 논의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2 국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연구

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연구 현황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2010년경까지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주요 연구는 시각장애인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강숙희 2011).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간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재단 등재지 발표 논문을 탐색해보면⁵⁾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조사’와 ‘서비스 실태조사와 정책제언’으로 나뉠 수 있다.

장애인 이용자 요구조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략적인 연구방법(설문조사)을 통해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3년 이후 연구방법이 다각화되는데,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2013)의 연구와 장보성(2015)의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별 이용자를 면담 기법을 통해 정보요구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아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정보요구를 파악하기엔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비스 실태조사와 정책제언 연구는 국내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가 초기 단계로서 기반 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4)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연구 현황 분석은 서울도서관에서 수행한 「느린학습자 정보욕구 및 도서관 역할 인식조사」 연구보고서의 일부 자료를 인용함

5)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연구. 장애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정보매체(대체자료) 개발 관련 연구,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는 제외함

장애 유형별 서비스 개발,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자원봉사활동 모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도서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모형 개발과 정책연구가 장애유형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체적/감각적 장애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인지적 장애 유형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2-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주요 선행연구(2010~2019)

구분	연도	제목	출처
이용자 요구조사	2010.06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영, 정혜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010.09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2011.08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오선경, 이지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011.1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홍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12.02	복합문화예술센터 장애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	곽철완, 김호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013.02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 서비스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013.03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이정은, 서선진, 박현옥 『자폐성장장애연구』, 13(1)
	2013.03	지적장애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	손지영, 박현옥, 이정은 『특수교육』, 12(1)
	2015.03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	장보성 『정보관리학회지』, 31(4)

구분	연도	제목	출처
	2018.05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매뉴얼 구성요소 요구도 분석	배경재, 강지혜, 차성종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018.0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	강지혜, 차성종, 배경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2019.0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실증적 요구도 조사 연구	차성종, 배경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2010.02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자원 봉사활동 모형 연구	김혜주, 안인자, 박미영, 이명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010.09	유럽국가의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질적 연구	이정연 『정보관리학회지』, 27(3)
	2011.03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강숙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12.06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전략	윤희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012.06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분석 연구	장보성, 서만덕, 남영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2012.09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장덕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013.12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박종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국외의 연구 역시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각종 도서관 기준은 2000년대 시작되어 2008년경부터 자폐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발달장애인을 위

한 도서관 서비스 연구는 2015년 무렵부터 발달장애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연구 논문은 2015년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시작된 PALS 프로젝트의 결과로 발표된 사서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연구논문보다는 매거진 등에 발표된 사례 연구나 서비스 응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발달장애인의 정보요구 관련 주요 연구, 해외 연구 프로젝트사례, 기타 국내의 연구보고서 내용 요약 순으로 연구내용을 정리한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관련 연구 중 발달장애 학습자를 주요 대상 이용자로 설정한 연구 중 주요 연구는 아래의 연구들로 요약될 수 있다.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발전방안 고려 시 주요 시사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 서비스(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2013)

저자들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입각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독서와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복지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 및 대체자료, 서비스 시행 지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 운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가용자원의 부족, 기관장의 몰이해 등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그리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운영 지침,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과 더불어 정책적인 견인조치,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적장애인서비스 모델의 발굴과 다양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지적장애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손지영, 박현옥, 이정은 2013)

도서관 담당 특수교사들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도서 선정의 문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제한된 공간 및 구비 도서의 부족 등이 어려움으로 꼽았다. 저자들은 연구 결론으로 특수학교 도서관을 위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도서 개발,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컨설팅 제공, 학교 도서관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이 지적장애 학생을 배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도서관과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원어: Academic librar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What do we know?) (Shea & Derry 2019)

저자는 자폐범주성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서를 위한 인식과 훈련의 부족, 자원과 서비스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자폐범주성장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인식, 감각적인 어려움(형광등 불빛 등)이 유발하는 어려움이었다. 저자는 대학도서관이 자폐범주성장애 학생을 위해 조용한 공간, 튜터, 채팅서비스, 개인적인 사서, 자폐인식 아웃리치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가교를 잇다: 사서와 자폐범주성장애 (원어: Building bridges: librarian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James Cho 2018)

본 연구는 미국 뉴욕의 Adelphi University의 발달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The Bridges to Adelphi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저자는 대학도서관 사서가 자폐범주성장애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일곱 가지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한다.

단계1. 사서 스스로가 자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다. 장애종류와 정도와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 이용자는 어떤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한다.

단계2. 아웃리치. 사서는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3.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acy)교육을 제공한다. 도서관 활용,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같은 정보문해 교육을 진행하여 학과 공부와 과제 수행을 돕도록 한다. 발달장애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세미나인 webinar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단계4. 개별적인 학생 컨설팅을 제공한다. 웹비나와 같은 정보문해 교육이 전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강연이었다면, 사서는 개별화되고 맞춤형된 정보 문해 교육을 학생 개개인에게 실시한다.

단계5. 이번 단계는 자폐학생들에게 까다로운 작업이다. 학생들에게 취득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평가 기준으로 CRAAP(Currency, Relevance, Authority, Accuracy, Purpose) 테스트를 활용하여 자폐학생들이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계6. 인용과 표절을 교육시킨다. 학생들은 인용과 표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지속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인용을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단계7.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정보요구 해결을 위해 사서와 학생이 일대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서와 학생, 사서와 The Bridges to Adelphi Program 직원간의 관계형성을 기본으로 하며,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야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 물리적인 환경 조성, 사서/교육자/부모의 인식개선과 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 적합한 대체자료의 개발과 재정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 발달장애인의 정보요구 관련 주요 연구

○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이정은, 서선진, 박현욱 2013)

발달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은 도서 대출과 도서관 내 시설 이용이 주를 이루었고, 평균 이용횟수도 1개월에 한 번 정도로 그 이용빈도와 이용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공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과 사회적 지원, 장서 및 자료 제공, 교육 및 여가 등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면적으로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은 생애 시기별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정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소규모의 형태로,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 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강지혜, 차성중, 배경재 2018)

장애인 대상 설문에서 발달장애인은 도서관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추후 방문 의지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와 관련하여서는,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한 다양한 장서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는데, 각 장애인의 연령대에 어울리면서도 이해가 쉬운 단어로 쓰인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교류가 없던 낯선 사서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안락한 공간에서 정서적 교류가 있는 조력자가 동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발달장애인 이용자: 필요성 평가 설문 (원어: Patr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eeds assessment survey) (Jennifer L. Holmes 2008)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초기 연구로 저자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Adams 카운티 지방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두 차례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첫 번째 설문 응답자의 69%와 두 번째 설문 응답자의 55%가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78%)의 이용자가 책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도서 이외의 멀티미디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고 동물과 그림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저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에서 다양한 대체자료와 멀티미디어를 구비할 것을 조언하였다. 특히 동물, 스포츠, 역사와 같은 비문학류의 책이나 시력이 약한 이용자를 위한 큰 글씨 자료와 쉬운 책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코너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즉, 영어를 제2외국어로 익히는 사람들을 위한 코너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적당하다고 하였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는데, 사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발달장애를 지닌 이용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자폐학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원어: Library Services for Students with Autism) (Lesley S. J. Farmer와 Maureen Sykes 2008)

위 연구는 자폐학생도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학교도

서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들은 외부환경과 구별되는 학교도서관 공간, 보조교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 학교도서관이 자폐학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소개한다. 특히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라: 듣기자료, 소프트웨어, 장난감, 조작교구
- 그림 사전과 지도의 장점을 이용하라
- 학생들이 보기 쉽도록 그림과 글자를 확대하여라
-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라
- 문서를 읽어주거나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구비하여라
-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어라
- 특정 기술을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나 웹 튜토리얼을 활용하여라

○ 장애가 있는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원어: Toward Holistic Accessibility Narratives from Functionally Diverse Patrons) (Pionke 2017)

저자는 대학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그 가운데 자폐학생은 도서관을 미로처럼 복잡하게 여기고 있었다. 장애 학생들은 도서관을 조용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 그룹 스터디나 협업을 위한 공간은 소음을 만들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자폐 학생들은 도서관의 좁도독에 대한 안전문제를 염려하기도 하였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서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도서관이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적당한 조도, 서가 너비 등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 디지털 자원의 활용에 사서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의 결과로 저자는 장애학생을 위한 게시판 활성화, 장애 전문사서, 용이한 대출반납, 상호대차의 확대, 기말고사 기간 반려동물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자폐와 대학도서관: 온라인 대화를 중심으로 (원어: Autism and the Academic Library: A Study of Online Communication) (Amelia Anderson 2018)

연구자는 8만 명 이상의 자폐 범주성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개 토론 포럼, 블로그와 뉴스를 주최하는 Wrong Planet (www.wrongplanet.net)이라는 사이트의 토론방을 분석하였다. 98개의 정보와 대학도서관 관련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이유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들은, 도서관을 새로운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자원을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 학생들은 특히 조용한 공간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어떤 학생은 도서관의 학생들이 본인과 의사소통하려고 하거나 상호 작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의견들의 댓글로 장애 학생들은 서로 캐럴과 공부 공간을 사용하라고 조언하였다. 저자는 도서관이 조용한 공간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소음 공간에 대해 명확히 표시를 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사서를 위한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다른 도서관 이용자와 비슷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며,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과제와 협업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한다.

그러나 연구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다양한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에 관해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것으로 조용한 공간에 대한 부담감, 기타 설비와 시설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이었다. 그 외에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도서관의 장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원과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자원에 대한 요구도 표출되었으며, 프로그램은 독서와 활동을 겸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4) 해외 연구프로젝트사례

문헌정보학 연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주 시라큐스대학의 Project ENABLE과 플로리다주립대학의 Project PALS를 소개한다.

○ Project ENABLE (Expanding Non-discriminatory Access By Librarians Everywhere)

Syracuse University (<https://projectenable.syr.edu>)

Project ENABLE은 미국 시라큐스대학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연구로서, 사서 및 도서관 직원, 교사가 자폐학생들에게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프로젝트(2016년 미국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협회(IMLS) 연구비 지원)이다.

- 2010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사서 대상의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 2011년, 전국단위의 학교도서관 사서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온라인,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교육콘텐츠를 기획하였다.
- 2013년, 학교도서관에서 공공 및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다.
- 2016년, 일리노이주 공공도서관과 도미니칸 대학의 Targeting Autism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서 및 관리자가 자폐증을 이해하고 자폐범주 성장에 아동과 성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Project PALS

Florida State University (<https://pals.cci.fsu.edu>)

Project PALS(Panhandle Autism Library Services)은 미국 내 자폐증 인구

가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플로리다주립대학 연구팀이 미국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협회(IMLS)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 사서와 직원, 특히 사서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 사서를 위해 자폐범주성장애 이용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PALS팀은 사서가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4단계 모듈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 Module One: About Autism in the Library (자폐증 이해)
- Module Two: Arranging the Library Environment (도서관 환경-시설 및 공간의 조성)
- Module Three: Communicating with Individuals with Autism (자폐증 이용자와의 대화)
- Module Four: Interacting with Technology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5)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기타 국내의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여가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하여 도서관 서비스 구성 요소를 추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 방안연구’(2019),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2015),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201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2012)를 살펴보았으며, 생애주기별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전주기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 방안연구’(2019)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주변사람(27.3%, 비발달장애인인 경우 17.8%)에게 들으며 TV나 라디오(22.3%)나 웹사이트(19.4%)와 같은 미디어

어 의존도는 무척 낮았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소득보장을, 복지관이나 거주시설 등의 거주 대책을, 주간보호센터와 발달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 확립과 도전적 행동을 케어할 수 있는 거점병원 운영 등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2012)에서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를 밝히고 있다. DB구축 후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학교, 보건소, 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협력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2012)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재보다 심화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학령기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 방안연구’(2019)에 의하면 향후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발달장애학생들은 학습보조기 지원 16.9%, 보조인력지원 13.6%, 치료지원 12.4%를 원하였다.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은 ‘컴퓨터,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등) 이용’이 39.1%로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이용’ 32.2%, ‘가족과의 대화 놀이’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4위로 3.4%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비발달장애 학생(6.2%)의 5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사교육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학생은 ‘학습’(34.9%), ‘운동(스포츠)’(27.8%), ‘재활훈련’(18.7%) 순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이상의 졸업 후 진로현황을 보면 발달장애학생은 ‘상급학교(전공과, 대학) 진학’이 34.1%로 가장 높고, ‘추가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18.3%), ‘보호작업장 취업’(9.2%), ‘일반사업체 취업’(9.0%)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부

분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한 바 없음’의 비율이 발달장애학생은 16.0%로 비발달장애학생(13.1%)보다 2.9% 높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서비스, 발달재활/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2012)에서는 초등학교학령기의 부모를 위해 특수교육, 사회 복지 지원책, 양육/돌봄, 문제행동 중재, 형제자매와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개발영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에서는 성인기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사랑과 결혼, 부모사후 대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지원, 노력 발달장애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의 40.4%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 방안연구’(2019)에서 분석되었다.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40.4%는 평생교육을 원하며, ‘직업능력 향상 교육’(15.9%), ‘문화·체육·예술교육’(12.9%),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5.4%) 순으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기의 발달장애인은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이동·방문간호·목욕과 같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은 분석하였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2015)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가 0.01%에 지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을 복지관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일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은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이 노인성

질병과 관련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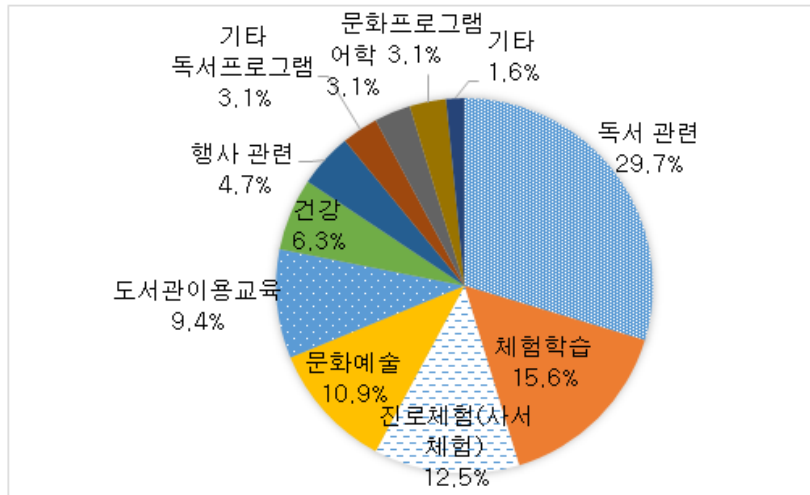
2.3 국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주요 사례 범주화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다. 영유아기는 발달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나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학령전기는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학령후기는 진로 탐색,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성인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의 주요 서비스 사례는 학령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활발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범주화가 가능한 서비스가 한정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발간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에 발표된 사례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례 34건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는 모두 세분하여 프로그램 종류를 분석하였는데, 총 64건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을 독서프로그램과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크게 분류하였을 때 독서는 30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34건으로 대분류에서는 크게 치우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우수사례집이 발간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전체의 57.8%를 차지하였는데, 전체 프로그램의 1/3은 독서회나 독서세미나와 같은 독서관련 프로그램(29.7%)으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 순위로 쿠키클레이, 비즈공예, 도자기 교실 등 무엇인가를 만들고 다녀보는 체험학습(15.6%)과 도서관 사서 체험처럼 어떤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는 진로체험(12.5%)이 많았다. 이외에는 그림이나 음악

을 다루는 문화예술(10.9%), 도서관이용교육(9.4%), 건강요가나 치료와 관련된 건강분야(6.3%), 독서의 달이나 독서주간행사와 같은 행사 관련(4.7%), 기타 책 읽는 가족이나 책연구회와 같은 독서프로그램, 어학, 문화프로그램(각 3.1%), 기타 (1.6%)로 범주화되었다.



<그림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수사례(2008~2018) 범주화

다음 장에서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의 사례를 분류로 살펴본 뒤, 국내 기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주요 사례

국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사례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서울도서관이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을 시작한 정도이다.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의 사례분석

아래의 표는 최근 11년간 간행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의 사례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목록이다. 사례집 발행 초기에 복지관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도서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사례보다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보고되고 있다.

<표 2-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연도	도서관	서비스명	대상	프로그램 요약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북(Book)적이는 마을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장애인 부모 15명, 지적장애 청소년·중등부·고등부 15~25명 내외, 1~3급 장애인, 지역주민	- 도서관, 학교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이 함께 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결합형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 준비기 (2015~2016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젝트, 도약기 (2017년) 북(Book)적이는 마을학교 동·네·북과 책속에서 보물찾기 신설, 성장·보급기 (2018년) 동·네·북 확대, 기존 프로그램 유지 - 운영성과: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유아, 어린이, 어머니를 위한 방과 후 마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음.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이 연계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현하여 새로운 장애인서비스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2018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하나 되는 통합 프로그램	유아(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초등학생(병원 환자, 지역아동)	-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을 활성화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오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책 놀이 프로그램 - 유아교육기관 원아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책 놀이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의 차별에 대한 그림책을 읽으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 인문학 시간 - 사업성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사이의 능력 차이를 최대한 덜 느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초등학생 대상인 인문학 강좌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되어 놀이할 때 사회성,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더 발달되며, 문제행동이 감소
2018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책으로 하나 되기	인식개선	-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해소 시키고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도서관내 통합 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소개 및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

				한 지역 책 축제 참여,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부대 행사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소개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어울림 한마당 - 사업성과: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편견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됨
2018	오이코스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장애아동 돌봄 프로그램 <2018 썸머스쿨>	의성 내 장애아동(초등학생~고등학생)	- 장애아동의 정서적 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의 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된 장애아동 돌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를 수급함. 운동하며 놀 수 있는 '신나는 몸놀이', 그림 그리고 만들며 마음을 여는 '마음을 열어봐', 책을 읽고 요리를 해보는 '독서요리활동' 등의 프로그램 진행 - 운영성과: 존중과 따뜻한 대접,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장애아동가족과 장애아동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활동적인 프로그램의 시도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장애아동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 내 자원(강사 선생님들) 확보
2017		눈높이에 맞추는 사서체험 -미리 가보는 직업세계	청소년 지적 장애인	- 청소년 지적장애인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사서직업체험 기획 - 학생의 장애유형, 대인관계 특성 및 참여의지, 외부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경력 등 면담조사 후 도서관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통해 직무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도서관 직원과의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를 통해 이용자와의 대면서비스 업무 경험 및 재능계발의 장 마련 - 운영성과: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없어 평소 도서관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던 장애 학생에게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음. 도서관 시설과 업무내용에 큰 흥미를 보이며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보임
2017	영종도서관	장애인 독서 동아리 -책과 함께 해YOU!	지적 장애인	- 장애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독서문화 구축을 위해 도서관과 독서에 흥미가 있고, 문해력 있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구성 - (1회차)도서관 이용교육 및 도서관 투어, 독서보조 기기 체험 등, (2회차) 영화 관련 도서를 통해 영화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놀이 활동 체험, (3회차) 자신의 강점 찾기, 행복에 대해 생각하며 주제도서 관련 활동, (4회차) 나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주제도서 관련 놀이 활동 진행 - 운영성과: 그림책 기반 월별 주제를 선정하여 슬로리딩 체험과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여 개인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 마련. 정기적인 만남으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사고력 및 토론 능력 제고에 유용한 기회가 됨
2017		책에 한발 더 깊이 다가가는	지적·청각 장애 청소년	-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한 지적·청각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미술 프로그램 기획 - 지적장애 청소년들과 독서 멘토(사서)가 짝이 되

		책으로 들여다 보는 세상	대상	- 어 청소년 고민거리 등을 나누고, 책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해당 책과 관련된 독서활동을 진행 - 운영성과: 그림책을 통해 말로하기 힘든 느낌과 생각들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독서의욕을 높여주었음
20 17		2. 영종도서 관에서 log-out: 도서관 에서 찾아가기	장봉 헤림원 지적 장애인, 청소년 지적·자폐, 7~10세 (이에 해당되는 지적·자폐 장애 아동)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친근감 느껴지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밀착형 프로그램 기획 - 도서관지역 장애인 시설인 장봉헤림원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 '섬마을 다독다독', 중고등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견학 안보체험 '나라사랑 안보투어', 지적·장폐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행복 전하는 동화 배달부' 진행 - 운영성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음.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 / 바깥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투어로 구성함 / 책에 대한 흥미 유도를 위한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사서의 주기적인 방문과 꾸준한 노력으로 참여자들의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느낌
20 17	김해 도서관	독서문화 행복공감 프로그램 2-1) 웃음가 동화세상	운동기능 장애, 언어장애	- 표현 수단의 제한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언어활동 위주의 독후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 - 동화구연을 통해 그림책 함께 읽기(영상), 꾸미기, 만들기, 표현하기 놀이로 이루어진 독후활동 - 운영성과: 참가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여러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진행. 참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연동화를 들려줌.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독후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 향상에 도움을 줌
20 17	원주 교육 문화관	희망문화 교실	지적장애 1급~3급	-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육 문화 공간 조성 - 노래부르기, 연주활동, 공예, 그림교실, 운동과 댄스, 요리, 웃음 레크레이션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장애인들을 이완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희망문화교실, 장애성인과 비문화 성인인 함께 공부하는 성인한글 문해교실, 문화관 강좌를 통해 얻은 지식들로 재능을 환원하는 문화재능 나눔봉사단, 장애학생 직업체험(사서, 바리스타) 등 진행 - 운영성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및 지역사회의 귀감이 됨(문화재능 나눔봉사단).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활용됨(직업체험)
20 17	수봉 도서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스토리 텔링	발달장애	- 노인 독서동아리와 발달장애아동을 잇는 지속적인 독서활동 지원 - 어르신들이 스토리텔링을 연습하시고 아이들의 학교를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 사업성과: 참여 아이들과 어르신의 정서적 교감이

		프로그램		생기며 참여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만족도 증가로 인해 비장애인아동도 장애아동과 함께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됨
20 16	마포 평생 학습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사서직업 체험	나사렛대 학교 재활자립 학과 2학년	- 발달장애학생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서직업체험 실시 - 자료실 업무 배우기, 장비 작업, 자료실 도서 정리 등으로 실질적인 사서 업무를 익히게 함 - 일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인재 양성에 기여
20 16	양산 시립 도서관	지적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대학생 지적 장애인	- 지적장애인들의 사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독서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사서체험, 도서관이용예절 및 이용법 교육, 책 찾아보기 등 시행
20 16	인천	장애인 문해 교실 프로그램	지적 장애인	- 장애인 문해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수준 의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잠재능력을 향상시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문해 교육 전문 강사가 장애인을 찾아가 장애인 대상 문해 프로그램 운영
20 16	광역시 중앙 도서관	장애인 힐링미술 프로그램	지적, 자폐, 발달지연, 정서장애 를 가진 장애 청소년	- 정서적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장애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 이해 향상을 위한 장애인 힐링 미술프로그램 운영. 활동적인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능력을 표출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기회를 제공, 이를 바탕으로 사회성 향상 도모. - 장애인학교 인근에 있는 센터에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함. 아동미술심리상담과 독서지도가 가능한 강사로 채용
20 15	강서 구립 곰달래 도서관	「한 뼉 나를 성장 시키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발달장애	-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기성장을 위한 책읽기와 독후활동을 통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타인과의 관계증진 방법을 익힘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 - 운영성과: 학생들의 감정표현 및 의사전달 능력 증진, 타인과의 정서 교류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독서치료 체험활동이 비중을 높여 참여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자기성장을 목표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짐
20 15		「함께 떠나는 힐링 문학기행」 - 문학기행	발달장애 학생	-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책과 친숙해지고,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함. 우리 문학의 흐름에 관한 현장 강의와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 장 마련. - 운영성과: 영상물 시청, 북아트 체험, 태권도 공연 관람 및 체험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 북아트 체험 과정이 특히 몰입도가 높았으며,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에 협동심을 살필 수 있었음. 색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큼
20	대구	독서 프로젝트	중학생	- 자연 관찰 체험학습과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독서 프로젝트 수업, 독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독

15	보명 학교 도서관	수업 실시		후 활동을 강화하는 독서발표대회, 학생들의 연중 독서활동 결과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북 콘서트,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책을 통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현장 체험학습 연계 독서프로그램, 책의 삽화를 전시하는 원화 전시회 - 운영성과: 책을 매개로 한 독서, 문화행사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학생들의 자기 표현력 신장 및 사회성 향상에 크게 기여. 지속적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책 선정 및 지도함
20 15	울목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지적장애(발달장애) 성인, 지체 부자유 (신체장애)	- 사서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문학 작가를 파견해 글쓰기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사업', 순회문고 및 단체대출 서비스 '울목 북투게더',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인천 보조기구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대여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등 장애인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도서관)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데 비중을 두어 진행하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도모가 필요한 소수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대화의 장을 형성하고자 함.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사업) 강사를 파견하여 이동하지 않고 익숙한 공간에서 독서 및 글쓰기 활동 진행
20 14	평택 시립 안중 도서관	방문독서 코칭 '책친구' 사업	지적장애 아동	- 독서치료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 지속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강사를 파견 - 그림책을 선정하여 책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놀이하기, 그림그리기 등 활동을 진행.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추천 그림책을 기증받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꾸미고, 큰 그림과 큰 활자로 생동감이 더 느껴지는 빅북(Big Book) 읽어주기,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빔그림 동화구연 진행으로 큰 호응을 받음
20 14	고덕 평생 학습관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청소년	-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클레이 아트, 미적 표현력과 집중력, 창의성을 넓히고, 소근육 기능 및 자신감, 사회성 향상을 도움. 오감 자극으로 정서적 표현력을 키우고 단체 작업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 - 찾아가는 동화구연. 지적 및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동화를 구연하며 발성과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어 발표력 및 표현력 향상. 책읽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법을 배워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줌
20 14	고성 도서관	현장 중심형 직업교육 운영	지적장애 학생	-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중심형 직업교육 운영 - 특수교육센터 스페셜 코디네이터와 학교 담당교사가 학생과 함께 파견되어 현장실습 담당사서와 실습 진행 - 자료 분류체계가 어려워 처음에는 처리 속도가 느

				렸지만 도서 장비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실습에 임함. 직업 교육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활발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등 장애 학생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보임
20 14	서대문 도서관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수업	지적장애	- 장애청소년의 장애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진로프로그램 마련 - 도서관 사서가 찾아가는 진로교육. 진로와 직업의 의미를 배우고, 생애설계 필요성을 이해하여 좋아하는 직업을 탐색한다. 사서 및 도서관 관련 직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짐
20 14	서대문 도서관	협력기관 과 연계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지적장애 청소년	- 소외된 장애청소년에게 지속적 독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각하여 언어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킴. 도서관에 오기 힘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찾아가 맞춤형 독서지도로 독서 기회 제공 - 장애청소년이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상황별·주제별 도서를 선정하여 책읽기와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진행 - 기대효과: 장애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흥미자극과 다양한 경험 제공하여 언어력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평생학습협력망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20 13	부산 광역시립 반송 도서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시각 장애인	- 일정한 역할 없이 소일하는 장애인에게 기능 재화이나 회복, 흥미유발, 책임감 증진, 사회적 존재가치 부여, 취미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인지, 소근육 운동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강화 - 강사와의 거리감 격차 해소, 집중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활동 전 게임과 이야기 나눔 시간. 북아트 기본이 되는 종이접기를 시작으로 진행됨. 작품마다 애착이 높았고 수업 참여도로 연결되어 다양한 북아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치유의 효과도 가지게 됨 - 운영성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함. 결과물을 직접 완성시키고 성취감이 느껴져서 매우 만족했다는 평가를 받음.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에게 후속 프로그램 또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
20 13	가평 군립 조종 도서관	『상상과 치유의 힘, 빛 그림 동화!』	지적 장애인 (1급~3급)	-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화책을 보여주는 것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프로그램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동화책을 스캔하여 PPT로 옮겨서 진행함. 최대한 큰 그림으로 장애인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흥미를 돋우고 그림과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함 - 책을 보여주는 시각화, 자원봉사자가 들려주는 소리의 청각화를 반복 후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고 글쓰기 과정으로 수준이 오르도록 기대. 직접 무대에서 연극도 해봄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목적임
20 13	부산 광역시립	대면 낭독 프로그램	발달장애 청소년	- 소외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작. 혼자 독서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면 낭독 서비스 제공.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시민 도서관			- 의 동질감 조성 및 소통 향상에 노력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대면상담 서비스 연수 과정을 거쳐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1:1 연결함. 자원봉사자가 책을 모두 읽어주거나, 한 페이지씩 나누어 교대로 읽음.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그림그리기, 단어 맞추기 등 간단한 독후활동으로 마무리 - 사업성과: 자원봉사자와 장애인간의 일정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점.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일정 조정 등 많은 일이 숨어있지만 장애인들에게 독서활동의 기쁨을 알려줄 수 있음
20 13	노원 평생 학습관	꿈을 빛나는 장애아 프로그램	발달 장애아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며, 자기표현력 강화와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됨. 학습자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고자 함이 이 사업의 목적 - (꿈을 빛는 장애아 도예반) 소근육이 약한 발달장애아들에게 흙을 통해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협동심을 높이는 학습치료 /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집중력이 부족한 장애아 특성을 고려하여 책과 어우러진 재미있는 놀이 활동 / (동작치료 프로그램) 소외계층 장애학생들에게 움직임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학습치료 - 사업성과: 흙놀이를 통해 소근육이 약한 발달장애아들에게 손가락 근육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구력, 창의력, 표현력 향상 및 성취감과 자존감 발달.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함. 작품활동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극복에 도움을 주고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됨.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서와 사회성에 도움이 됨
20 12	미추홀 도서관	작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정신지체, 지적장애	-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향후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운영협약서 체결 - 현장실습 담당교사와 직무지도 담당을 학생과 함께 파견하여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 반복적인 지도를 통해 KDC를 이해하고, 자료실에서 서가정리에 대한 실습을 주로 진행함. 자료정리업무 실습에서는 장비 업무에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갖게 됨 - 도서관 사서들이 맡고 있는 현안업무와 장애학생들의 장기간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학생들이 업무에 흥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일반인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진행하게 됨
20 11	서대문 장애인 종합	장애아동 건강프로 그램 운영	지적장애 아동, 발달장애 아동	- 개별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긍정적 의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운영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책을 선정하여 도서

				관 책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읽어보는 활동. 동화 구연을 보고 책 내용과 연관된 만들기 활동과 오감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여 장애 어린이의 감각을 자극하여 주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데 도움 - 교구비 외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도서관 사서, 자원 활동가와 장애 어린이가 소통하는 계기가 됨
2011	복지관	장애아동 여름방학 독서특강	지적장애 어린이	- 기간이 길고, 심도 있는 장애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아동 여름방학 독서특강 - 장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책놀이 활동을 통해 수업 진행 (선정도서에서 따라 과제집 만들기 등), 우리 몸 이해하기,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놀이 등) - 도서관과 복지관이 함께 기관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원활하고 수준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음. 장애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음
2011	부산 진구 종합 사회 복지관	성인지적 장애인 요가	성인지적 장애인	- 지적장애인에게 여가활동은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적응, 자기표현과 만족 경험에 유용한 활동. - 요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스포츠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인지하도록 도움 - 운영결과: 운동량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에게 운동 효과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장애인들에게 지적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됨
2010	안산시 감골 도서관	장애인방 문서비스 '행복을 주는 스토리텔 링' 운영 사례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발달, 지적 장애인	- 장애인관련기관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언어치료학원 등에서 사전조사와 기관방문을 하여 동화구연과 독후연계활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 - 매주 같은 음악과 율동으로 수업을 시작>마술, 입체동화의 구연>독후활동 - 운영결과: 음악과 마술에 즉각적인 긍정적 반응을 보임. 마술의 경우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인기가 좋음. 마술, 음악 등 독후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동화구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함. 독후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에 차별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장애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여줌
2009	남산 도서관	(지적 장애인 대상)독서 치료 프로그램	지적장애 어린이, 청소년	-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독서치료 수업을 통해 독서활동 촉진, 흥미유발로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갖도록 도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인격형성을 도움 - 장애아동들의 문제 상황과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 선정. 안정된 분위기에서 독서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 구성원들의 감정이완과 충동조절 능력 함양,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독서와 독후활동을 통해 인지능력 향상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 자극에 도움. - 운영성과: 새로운 도서를 소개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면서 독서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됨

(2) 발달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4년부터 장애인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25개관에서 프로그램이 1,119회 운영되었으며 이용자는 12,553명에 달한다. 이 사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일선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와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15개, 2018년 20개의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도서를 읽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순서였다. 활동은 그리기, 만들기, 음악(노래로 표현하기), 색칠하기, 음식 만들어 먹기,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여러 주제를 다루었는데, 자아성찰이나 가족 간의 관계, 분노조절 등과 같은 심리영역, 도서관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훈련, 협동이나 나눔, 친구들 이해와 같은 사회성영역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사례는 인천시미추홀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다. 보통 발달장애인의 독서활동에서는 과학이나 사회에 대한 주제가 크게 시도되지 않았는데, 인천인혜학교 발달장애청소년과 협력한 미추홀도서관 프로그램에서는 물의 순환, 수학의 개념, 일상생활에서의 법, 환경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5> 인천시미추홀도서관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차시	일자	활동목표	활동내용	교재(자료)
1차	5. 3.	소중한 나에 대해 안다	- 나에 대한 소개 - 나의 고민과 특징,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하기	뜨개질 하는 소년, 크레이크 팜렌즈
2차	5. 10.	가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기 - 다양한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	가족의 가족, 어린이 통합교과연구회

차시	일자	활동목표	활동내용	교재(자료)
3차	5. 17.	행복한 미래, 나만의 책만들기	- 오늘 하루 행복그래프 만들기 -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나누기	나의 행복한 하루, 공병호
4차	5. 24.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 익히기	- 책을 함께 읽고 소피에게 전달하 고 싶은 메시지를 그림과 글로 표현하기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 속상하면, 몰리 뱅
5차	5. 31.	물의 순환과 물 사용법 알기	- 물의 순환 과정을 배움 - 일상생활에서 물을 오염시키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알아봄	물 아저씨는 변신쟁이, 아고스티노 트라이니
6차	6. 14.	수학의 개념 익히기	- 숫자 찾기, 시 폭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키움 - 배수 및 수분할에 대해 공부함	호박에는 씨가 몇 개나 들어 있을까, 마거릿 맥나마라
7차	6. 21.	도서관과 친해지기	-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 - 책을 찾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아봄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셀 누드슨
8차	6. 28.	일상생활에서 의 법 제안하기	- 법과 관련된 단어퀴즈 - 헌법이 지켜주는 우리의 권리 - 규칙과 법이 필요한 이유	우당탕탕 우리 동네 법대장 나준수가 나간다, 한국 법 교육센터
9차	7. 5.	환경보호 인식 일깨우기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식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기 -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위대한 청소부, 필 빌드너
10차	7. 12.	미술작품 감상법 배우기	- 미술관에 갔던 경험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 책 속 명화 중 마음에 드는 명화 를 이야기로 꾸며봄	미술관에서의 하루, 질리언 울프
11차	7. 17.	세계지리와 우리나라 위치를 안다	- 한반도 지도 그려보기 - 세계지도 속의 여러 나라들에 대 해 알아봄	우리 땅 기차 여행, 조지옥
12차	7. 19.	도서관과 친해지기	- 우리동네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지 알기 - 도서관예절 및 이용규칙, 책과 도서관의 역사 등을 게임으로 배 워봄	도서관 이용법 PPT 및 동영상 자료

(3)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서울도서관)

2019년 서울도서관은 발달장애, 경계성 지능 등으로 독서활동과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의 독서권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하고자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제안된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을 착수하였다. 사업내용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콘텐츠 및 독서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느린학습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느린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내 독서 및 활동 공간 조성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느린학습자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자료 구입 및 개발, 쉬운 안내 사인물 및 이용안내 자료 개발, 시끄러운 도서관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느린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느린학습자 활동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현재 21명의 민관협의체 의원이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3개 자치구, 즉 마포구(마포중앙도서관, 마포서강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송파구(송파글마루도서관), 은평구(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등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거나 시행초기인 상황이다.

(4)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사례⁶⁾

세계청소년문화재단과 피치마켓이 함께 운영하는 ‘시끄러운 도서관’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마음껏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2019년 9월 개관하였으며, 세계 명작, 청소년 필독서,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읽기 쉬운 도서를 비치했다.



<그림 2-2>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 구성

① 공간 구성 1: 발달장애인들이 독서토론 활동에 참여할 시 낭독으로 진행되어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독서토론실에서는 주로 그룹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룹 활동이 없는 이용 시간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큰 소음을 일으키는 이용자들을 안내한다.

② 공간 구성 2: 개인 열람실 및 안내데스크에서는 소음이 크지 않은 이용자

6) 시끄러운 도서관 1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02. 미켈란107빌딩 6층

들이 개인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용자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한 쇼파와 일반 의자를 혼용해서 배치하였다. 우측 안내데스크는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편하게 접근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책상의 높이를 낮고 작게 제작한다.

③ 공간 활용: 발달장애인 이용자 중 상당수는 보호자 동행 없이 혼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서토론 활동이 있는 동안 동행한 보호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개인 열람실을 활용하고 있다.

④ 조명: 조명은 모두 LED로 설치하고 매립형 주황 LED를 설치하여 빛과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곳에 책상을 배치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연광이 심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빛 반사에 의해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암막 블라인드를 설치하였다.



<그림 2-3> 시끄러운 도서관 책상 배치

⑤ 창: 폐쇄적 공간에서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이용자들이 있어 좌우 전면창으로 설계된 공간을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활용하였다.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 (봉은사역 3번 출구 바로 앞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⑥ 콘텐츠: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의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도서' 500권과 아동용 동화책, 성인 책을 모두 구비하였다.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책 표지가 보이도록 도서를 배치하였으며 벽면과 기둥 등 여러 곳에 도서를 비치하여 쉽게 책을 꺼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4> 시끄러운 도서관 도서 배치

⑦ 도서 배치: 높은 책장으로 꽂 막힌 공간에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책장을 최대한 없애고 벽면에 낮은 책장만 설치하였다. 대신 매립형 쇼파 밑과 벽면에 선반과 수납 공간을 만들어 앉은 자리에서 쉽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하였다.

⑧ 소통: 시끄러운 도서관에 처음 방문한 개인 또는 단체 이용자들에게 사서가 도서관 이용 규칙, 독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이 추후 도서관 이용 또는 독서 중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사서에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서들이 먼저 이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부담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나 독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기타 시설: 독서토론에서 이미지 자료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와 60인치 모니터, 노트북을 구비하였다. 또한 전자기기에 친숙한

이용자들을 위해 읽기 쉬운 도서 eBook이 탑재되고 펜을 사용할 수 있는 타블릿PC 30대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위해 그림 및 활동지, 컬러북 등을 제공한다.



<그림 2-5> 시끄러운 도서관 이용자 교육

3)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서비스 주요 사례

국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 장애인 우수 서비스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례와 운영성과를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

해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우수프로그램 세미나는 시설종사자와 관계자에게 우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공유하여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용/생활 시설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례집으로 발간된 최근 3년(2015~2017년)의 사례를 살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

<표 2-6>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년도	기관	프로그램 명	대상	프로그램 요약
2015	달서구 학산 종합 사회 복지관	꿈을 향한 발자국	대구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12명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 일상생활을 위한 자립생활 기술 습득, 작업훈련을 통한 올바른 작업태도 형성 및 직업능력 향상,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문화여가 생활 지원, 지역사회 교류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대 - 운영성과: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개별지도와 주5회 운영을 통하여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높은 향상이 이루어짐
2016	영락애 니아의 집	나에게로 의 초대	본 시설 거주아동 중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증뇌병변 장애아동 10명	-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증뇌병변장애아동의 권리 중심 서비스제공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 중심의 욕구 표현 실현, 권리중심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인권 증진 - 운영성과: 권리중심 사정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고, 욕구와 권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봄으로서 권리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음
2016	맑은 동산 장애인 단기보 호시설	개인별 서비스 지원	이용자 33명(지적 및 자폐성 장애)	- 이용자 각 개인의 서비스지원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이용자의 강점을 찾아내어 강점을 통해 더 발전적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지 - 이용자 욕구조사, 이용자 강점 찾기, 개인별 서비스 지원 - 운영성과: 개인별지원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

20 16	센터봄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My Day (나만의 하루)	센터봄 이용자 (자폐성 장애인)	-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 - "나"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성과: 욕구표현을 할 기회가 적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본인의 욕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결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20 16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서림 단기 보호	내 안에 숨은 나	지적장애인	- 자연 속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아찾기 프로젝트 - 긍정적 자아발견 향상, 대소근육활동으로 긍정적 신체발달 증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호흡하는 방법 터득, 감각적 감수성훈련을 통한 긍정적 정서 함양, 스킨십을 통한 외부와의 의사소통 원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및 집단에 대한 관심고조,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 관심 증가, 긍정적 미래 설계 유도 - 운영성과: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단계별 적합한 교육 제공
20 16	위캔 센터	위캔센터 근로인 자립지원 사업	위캔센터 근로인 자립지원(지 적장애인)	-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근로 장애인의 임금 현실화,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지원 - 근로인 자립욕구 확인, 지원욕구 파악, 자립생활 필요 물품 지원 및 생활 지도 점검 - 운영성과: 자립 근로 장애인 상담 시 생활의 어려움과 욕구 등 자기표현이 적극적이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욕구가 상승
20 16	희망의 일터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	희망의 일터 이용 중증지적 장애인	- 지적중증장애인들에게 자세를 교정하고 운동량을 높일 수 있는 노르딕워킹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 지원 -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야외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 노르딕워킹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 - 운영성과: 중증지적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편견 및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음

2017	파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소원이 이루어지는 와상장애인 벗(友)킷 리스트	만 20세 이상 1급 와상 장애인(1급 뇌병변 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 와상 중증 장애인들의 소원목록(버킷리스트: Bucket List) 달성 - 삶의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와상 중증 장애인의 외부 활동 참여 횟수 증가, 사회 참여 촉진 - 운영성과: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 및 노력하게 하는 동기가 됨
2017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ABA부모 대학	발달장애아 동 부모	- 부모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를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 - 부모에게 발달장애인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ABA(응용행동분석)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 - 운영성과: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은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음
2017	부산 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지적여성 장애인 부모역할 지원 멘토링 '맘드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지적여성 장애인	- 지적장애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그 자녀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적여성 장애인의 부모 역량감 향상과 가족 지원체계 확보 -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고 상담·조언·정보제공 등을 위한 자질을 갖춘 여성장애인을 어머니 멘토로 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자녀 멘토로 멘토링을 진행함 - 운영성과: 멘티들은 가정 환경 정비, 자녀양육 방법을 습득하여 양육 효능감 향상. 멘토들은 멘토 활동을 통해 멘티와 함께 변화하고 배우며 자아 존중감 및 성취감이 향상됨

(2)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사례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해마다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분야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파트너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 시상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본고에서는 최근 2년간(2017~2018년)의 사례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소개한다.

<표 2-7>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사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연도	프로그램명	기관	대상	프로그램 요약
2017	장애 인식 개선 사업 '햇살 나눔'	에쓰-오일(주)&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 소외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후원을 통해 찾아가는 인식개선콘서트 개최, 장애이해교육, 저소득 발달장애청소년 장학지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진행됨 - 프로그램 강점: 프로그램의 지속성(지속적 장기후원 9년), 파트너 기관의 노하우(국내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한 하트-하트재단과의 파트너십), 기업의 선도성 - 운영성과: 프로그램 실행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이해교육 매뉴얼 개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2018	IT + 예술교육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틈사이로」	(주)코스콤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노무직의 축소로 대안적인 일자리가 필요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특유의 개성과 몰입으로 IT(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직무를 대안적인 일자리로 창출 - 프로그램 진행은 발달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분야를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디자인으로 포트폴리오, 아트상품을 제작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링크마켓 개최, 취업지원)으로 진행 - 프로그램의 강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 영역,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성(해당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직접 IT기술을 습득하여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조력자가 중간역할을 하지 않아도 커리어 개발이 가능함), 기업과 파트너기관이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 - 운영성과: 참여자 취업과 저작권수입 증가(1차년도 저작권료: 0-2차년도 저작권료: 1600-3차년도 저작권료: 2800), 다양한 디자인상품 개발(1차년도 상품 수: 5-2차년도 상품 수: 8-3차년도 상품 수: 26),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원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 활용가능,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원 디자인상품 출시, 디자인상품 총 39종 개발, 프로그램 참여인원 중 5명 취업, 13명 저작권 수익 발생, 링크마켓에서 디자인상품 판매하여 6,369,550원 수익창출
--	--	--	--	---

(3)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우수사례

삼성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삼성복지재단이 그룹의 삼성재단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이 2016년 종결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에 가장 최근 3년분(2014~2016년)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표 2-8> ‘작은나눔 큰사랑’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례분석

연도	프로그램명	기관	대상	프로그램 요약
2014	지적 장애를 가진 모의 양육 행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지지 체계 기반의 장애 특성 맞춤형 교육	고양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기혼의 지적 장애 여성	- 결혼하여 자녀를 둔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지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장애 특성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 본 매뉴얼은 지적 장애 여성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식, 애착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사전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 엄마 맘+(플 러스)			에 미혼 대상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고 영상 매체에서 보이는 임신의 기쁨에 대해서만 생각하였는데, 사후에 대상자들은 임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함. 기혼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임 - 운영성과: 지적 장애인에게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애착 및 정서에 대한 접근을 시도, 자녀를 양육중인 지적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 가능함
2014	성폭력피해 성인발달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재발방지 사업-러브 스펙트럼 II	충현 복지관	지역 내 성폭력 피해 성인 발달 장애인, 성인 발달 장애인의 보호자,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 주민	- 성폭력 피해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및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폭력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지지 체계 확대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당사자 역량 강화, 보호자 역량 강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 운영성과: 이용자의 긍정적 성 태도, 자기 표현력 향상, 대인 관계 기술의 변화, 자신감 향상, 안전한 사람에 대한 인지와 신뢰, 성폭력 대처 능력의 변화가 나타남
2015	전환기 발달 장애인 가정의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중곡 종합 사회 복지관	14~19세 연령의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 정상화 이론을 기반으로 발달 장애 자녀 부모의 진로 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환기 발달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자녀의 특수성에

	프로그램 -맘 코치가 간다!		주양육자, 특수교육 대상자 중 중·고등 학생발달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양육자	맞는 진로 지도 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발달 장애인 진로 지도자의 역할과 지역 사회 내 진로 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부모의 행복감 증진(행복맘), 부모의 진로 지도 능력 향상 및 진로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키움맘), 주체적 진로 지도 활동 및 지역 사회 내 진로 지원 체계 기반 마련(나눔맘)의 세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참여 부모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진로 지도 행동과 진로 지도 효능감 향상, 발달 장애 자녀의 개별 진로 계획 수립, 동료 부모에 대한 멘토링 활동으로 발달 장애인 진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 - 운영성과: 자녀 장래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발달 장애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장애 청소년 진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유도 - 운영성과: 자녀 장래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발달 장애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장애 청소년 진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유도
2015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의 사회 기능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 연계 통합 프로그램 -한울타리	동대문 종합 사회 복지관	만 13~16세 사이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의심되는 청소년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및 1차 집단(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 통합되도록 함 -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으로 밴드, 우쿨렐레, 여자공예, 남자 공예, 제과, 요리, 운동, 특별활동,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집단 교육, 가족

				캠프, 보호자 간담회,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 캠페인, 보고회, 연계 자원 관리가 이루어짐 - 운영성과: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이 맺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지지적 관계에 기반을 둔 긍정적 상호 작용 및 안정적이고 성장 촉진적인 활동 환경,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 및 이해 확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가족 역량 강화
2015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프로그램 -FuturePlanning미리미리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과천시 및 경기도내 인근지역 거주영유아기, 초등학교, 청소년기, 성인기 (만19~30세) 발달장애인 부모	- 발달 장애인 부모 16명을 대상으로 1:1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지역 사회에서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전문가 교육, 평생 설계 수립 워크숍,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기관 견학, 동료 상담, 심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운영성과: 평생 설계 필요성을 느끼고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모 혼자가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됨. 동료 지원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를 위해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와 '평생 설계서'를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음
2015	발달장애아동과 장애아동 양육자,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	군포시 주몽종합사회복지관	학령기 전·후 발달 장애아동 8명, 발달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	- 장애 아동은 심리 운동을 통해 운동 능력 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장애 아동 양육자는 집단 미술치료를 통해 긍정적 자아상 형성 및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자는 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심리아놀자		8명, 대 학생 자원봉사 자 8명, 발달 장애 아동의 가족 구성원	- 장애 아동 및 장애 아동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장애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인식을 키움으로써 이를 지역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양성 - 운영성과: 발달 장애 아동과 자원봉사자가 1:1로 집단 심리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 향상까지 달성, 발달 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 간 관계 형성과 양육 스트레스 해소
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기능 향상 및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취미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연계 통합사업 -한울타리 II	동대문 종합 사회 복지관	14~18세 사이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의심되는 청소년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및 1차 집단(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 통합되도록 함 -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으로 밴드, 우쿨렐레, 여자공예, 남자 공예, 제과, 요리, 운동, 특별활동,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집단 교육, 가족 캠프, 보호자 간담회,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 캠페인, 보고회, 연계 자원 관리가 이루어짐 - 운영성과: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이 맺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지지적 관계에 기반을 둔 긍정적 상호 작용 및 안정적이고 성장 촉진적인 활동 환경,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 및 이해 확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가족 역량 강화
2016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동삼 종합	영도구 내 경계선	- 맞춤형 멘토링, 집단 프로그램,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진로에 대한 동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나만의 ID	사회 복지관	지능 중학생	기 부여 및 자아 정체성을 확립 - 특수 학급 교사 및 멘토링 자원봉사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진로 및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집단 프로그램, 멘토링 체험 활동, 직업 체험 활동 및 전문가와의 만남, 지역사회 체험부스 운영,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종사자 간담회, 사례회의로 프로그램이 진행 - 운영성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게 수준과 기능, 필요에 맞는 활동의 제공으로 성공적인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의 경험을 얻음
2016	발달장애인 자녀의 평생 설계수립을 위한 부모동료지원 (ParentPeerSupport) 프로그램 -FuturePlanning미리미리2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과천시 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발달 장애인 부모	- 발달 장애 자녀의 평생 설계에 관심이 있는 부모(참여 부모, Refer Parent)와 평생 설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부모(지원 부모, Support Parent)를 매칭하여, 개별화된 평생 설계 수립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부모 부재 및 사후에도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 지지 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회의,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부모 동료 지원 교육, 동료 지원 부모 슈퍼비전, 평생 설계 개별 동료 지원, 평생 설계 사후 관리 - 운영성과: 참여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애주기에 따라 준비해보고 평생 설계를 해봄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잡음

2016	전환기발달장애 가정의 부모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진로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맘코치가 간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14~19세의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 양육자	- 1차 연도에 부모 욕구와 우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 교육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2차 연도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들이 발달 장애 영역의 진로 전문가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참여자들의 교육 관심 영역과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진로 적성 및 흥미 코칭, 1 : 1 장애 청소년 진로 코칭 지도 분야) - 부모 진로 코치 활동(성장맘), 자녀 진로 코치 활동(실천맘), 지역사회 인식 강화 활동(밴드맘); 전문 교육, 견학, 진로 설계, 정책 제언 - 운영성과: 참여자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 지도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짐, 발달장애인 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형성, 부모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진로 전문 지원 체계 마련
2016	발달지연아동 가족의 자기 주도적 미래 청사진설계를 통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StepbyStep 초보가족일기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지, 언어, 개인성·사회성 및 일상 생활에서 나이에 맞는 기능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 지연 아동	-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주도적인 아동 발달 계획 수립과 아동·가족 간의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아동발달 계획 수립, 솔루션 회의, 지역 자원 연계망 구축, 모아 놀이 활동, 가족 캠프, 가족 컨설팅, 부모교육 - 운영성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그들의 흥미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아동 발달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전문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상담 등)을 통해 가족 간의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참여자들이 생각함, 자녀 양육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도 중요함을 부각할 기초를 마련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의 사례는 자립지원, 인권증진, 긍정적인 미래 삶의 영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특히 프로그램이 장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어서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시 참고할 만하다. 또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이를 참고하여 도서관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주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사례’는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투입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장기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되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도서관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우수사례’는 제도권의 지원이 닿지 않았던 성폭력 관련 교육, 심리상담, 부모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설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또한 대부분이 2년 이상의 지원을 받아 장기 프로젝트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이 성폭력 관련 상담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 진행은 충분히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진로교육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또는 부모님의 수요에 맞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

2.4 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사례

1) 발달장애인 해외 도서관 서비스 주요 사례 범주화

해외의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주요 사례는 자폐 범주성 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놀이와 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상 국내 사례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주기 중에서 영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해외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기에 따라 사례들의 특징이 나뉜다는 점이다. 2010년 이전에는 도서관의 접근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서와 대체자료를 구비하거나 사서의 인식개선 등에 대한 사례가 주로 보고되었다. 2010년 이후 발달장애인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특정 장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보다는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nclusive library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본고는 트렌드의 파악을 돕고자 해외 사례를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작성하였다.

2) 해외 발달장애인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사례

○ Brooklyn Public Library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례

- The Child's Place

(<https://news.nnlm.gov/mar-newsletter/2013/08/the-childs-place-for-children-with-special-needs/>)

2000년경부터 뉴욕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에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를 위한 “Child’s Plac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살 이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손을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가족을 위한 강연을 듣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브루클린 발달장애인 위원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Inclusive Services

<https://www.bklynlibrary.org/inclusive-services>

“Child’s Place”는 2016년경 “Inclusive Services”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읽고 놀기, 방과후 스토리타임, 정원클럽, 레고클럽, 대체(자료)게임방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부모를 위한 워크숍, 교육 이벤트, 학교 교실 방문 등을 진행한다. 부모를 위해서는 Flatlands 지점에 Parents Resource Center를 두어 중요한 도서와 CD, 다른 자료들을 대출하고 있다.

- Navigating Your Child’s Disability: One to One Assistance

최근에는 포용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특정 장애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브루클린 도서관의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장서관발정책에도 Child’s Place를 언급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부분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아래는 브루클린 도서관의 Materials Selection Policy 장서관정책 (*출처: <https://www.bklynlibrary.org/use-the-library/policy/materials-selection>)의 일부이다.

One-to-One Expert Assistance Now Available!

Many situations require the assistance of an expert. We can provide one-to-one help for you and your child with: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process
- Early childhood services and programs
- Transition planning
- Transportation issues
- Navigating systems, includ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and others
- Camps, afterschool, and other community resources

Meet individually with a professional on:

April 6, 2016 **10am-1pm**

May 6, 2016 **10am-1pm**

June 1, 2016 **10am-1pm**

Information Commons, Room 2
Central Library
10 Grand Army Plaza



Se habla español

includenyc

Drop-in or call to make an appointment 212.677.4650 ex. 19.

For more information call 718.253.4948.

The Child's Plac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s partially funded by Coordinated Outreach Library Services aid from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administered by the State Library's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 Additional funding is provided by The Joseph LeRoy and Ann C. Warner Fund, the ELSAM Fund, Stop & Stor Charitable Fund and through endowment funds established by The Joseph LeRoy and Ann C. Warner Fund and the Ilma F. Kern Foundation.

bklynlibrary.org

<그림 2-6> 브루클린도서관의 1:1 서비스 홍보포스터

C. Special Services and Collections (특별한 서비스와 장서)

The Literacy Centers provide material in multiple formats for new and less skilled readers while many of the Library's branches offer pre-GED and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ollections and classes. (The Literacy Centers는 새롭고 덜 숙련된 독자를 위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많은 분관에서도 고등학교 학위를 준비하거나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장서와 수업을 제공한다.)

○ Next Chapter Book Club (2002~)

<https://www.nextchapterbookclub.org/>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NCBC(Next Chapter Book Club)는 다운 증후군, 자폐증, 뇌성 마비 및 기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사회 기반의 도서 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도서 클럽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NCBC에 가입 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수준의 독자들이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클럽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 훈련을 받는다. 이후 그들은 공공도서관 등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독서회를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써 독서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읽는 ("It's not really about learning to read—it's about reading to learn") 독서회로 독서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4~8명의 참가자와 2명의 자원 봉사자 진행자가 하나의 클럽을 이룬다. 현재 NCBC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르완다에 300 개 이상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 Douglas County Libraries의 사례

- Sensory-Enhanced Storytime: An Inclusive Program (2012)

(<http://publiclibrariesonline.org/2014/05/sensory-enhanced-storytime-at-douglas-county-libraries-an-inclusive-program/>)

콜로라도 Douglas County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의 자폐범주성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Baldassari-Hackstaff, Kerber,

Krovontka, & Olson 2014). 조명과 음악을 낮추고, 운동과 대화가 권장되는 스토리타임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았던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미취학 아동을 타겟으로 개발되었으나 더 다양한 인구계층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 발달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스토리타임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① 안녕하세요 노래
- ② 환영인사와 시각적인 스케줄표
- ③ 책, 대체도서, 판넬
- ④ fingerplay (어린이들이 노래에 맞춰 손가락과 손을 움직이는 놀이) / 동요
- ⑤ 노래
- ⑥ 책, 대체도서, 손으로 만드는 시간
- ⑦ fingerplay / 동요
- ⑧ Scarf Song (목도리를 흔들며 따라 부르는 노래)
- ⑨ 비누방울과 노래
- ⑩ 낙하산과 노래
- ⑪ 헤어지는 노래

○ Tulsa City-County Library의 사례

- Sensory Storytime (2013)

(<https://www.tulsalibrary.org/kids/build-a-reader>)

TCCL Sensory Programming Planning Committee(TCCL 감각 프로그래밍 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응답자들은 공간(추가 의자 배치, 포스터와 방해 요소 제거, 희미한 조명 제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였다. 계획위원회에서는 또한 부모, 전문 교육자, 치료사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의 감각 교육기관을 살폈다. 위원회는 Sensory Storytime 파일럿을 만들고 자원 목록, 방법 안내, 샘플 일정 및 분관에 필요한 시각적 안내판 등의 프로그램 도구를 개발했다. 도서관은 프로그램

개발초기부터 The Autism Center of Tulsa의 도움을 받아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Sensory Storytime은 2012년 12월 첫선을 보였으며 촉각과 감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인 관계형성을 우선으로 삼았다.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Sensory Storytime @ Your Public Library”프로젝트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 오하이오주립도서관과 Oakstone Academy의 사례

- Digital Sensory Storytime (2014)

(<https://www.imls.gov/blog/2014/04/digital-sensory-storytime-helps-autistic-children>)

오하이오주립도서관과 Oakstone Academy의 자폐 학생들에게 iPad의 대화형 전자책을 활용하자 전통적인 책을 이용하는 것보다 책의 이해도가 21~25% 상승하였다 (Price 2014). 사서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위해 4장으로 구성된 동영상 튜토리얼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Digital Sensory Storytime은 감각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 가족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리소스 가이드에 다양한 도서관 활용법을 소개할 수 있다.



<그림 2-7> Tulsa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한 Sensory Storytime의 가이드 일부

* 출처: <https://www.scribd.com/document/322106832/Handout1-SensoryStorytimeHowtoGuide>

○ Springfield-Greene County Library District의 사례

- "Explore" project (2015)

미국 미주리주의 Springfield-Greene County 도서관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열려있지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Explore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O'Dell 2015). Explore는 차별화된 스토리 타임으로 유튜브, 도서관내 DVD, 도서, 수공예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한다. Explore는 기존의 조용한 스토리타임과 다른 참여자가 경험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Spring Music Listening Party에서는 드뷔시의 고전음악부터 퍼렐 윌리엄스의 최신가요를 듣고 악기를 함께 연주한다. Explore 프로그램은 the Arc of the Ozarks라는 비영리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며, the Community Connections Day Program, Adult Tendercare day-care center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참여자가 방문한다.

○ Longmont Public Library의 사례

- Special Access Browsing (2015)

86,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도서관인 콜로라도의 Longmont 도서관은 자폐아동과 그 가족이 숨겨진 장애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LSTA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도서관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빌 클린터 행정부에서 개정한 법안)을 받아 책과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였다(Weadley 2015). 소음 제거 헤드폰, 발달장애이용 장난감, 자폐아동을 위한 앱이 포함 된 iPad와 스페인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였는데, 자폐 범주성 장애가 있는 이용자와 가족들은 다양한 자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원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서관에서는 특수교사와 같이 훈련된 자원 봉사자를 육성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특별한 장서를 활용할 수 있는 'Special Access Browsing' 시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서관은 그들의 성원에 힘입어 Special Access Browsing을 확대하였다.

○ Longmont (CO) Public Library (LPL)의 사례

- Diversity and Inclusion: Robotic Librarians Help Autistic Patrons (2015)

콜로라도주의 Longmont 공공도서관에서는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를 위해 Bibli라는 로봇을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다(Troknya, 2015).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어린이와 로봇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로봇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로봇을 다루는 방법을 외우거나 로봇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는 등 관심도가 높다.

○ ‘Libraries and Autism: We’re Connected’에서 2016년부터 매년 미국 전국단위로 자폐증 이용자를 위해 우수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Autism Welcome Here Grant’를 수여한다. 아래는 수상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2016-2017 (First Cycle) Winners

- Everybody Plays / Simsbury (CT) Public Library

자폐아동이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격월제 통합 놀이 시간이다. 5세까지 모든 발달장애 수준의 아동에게 우호적이며 접근 가능한 놀이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보호자는 감각놀이 및 협동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 Autism Spectrum College Information Talks (ASCIT) Project / Library at the Tarrant County (TX) College Southeast Campus

ASCIT Project는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자폐 학생들을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비디오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자폐학생들의 정보요구를 더욱 확장시켰다.

2017-2018 (Second Cycle) Winner

- Improve your Social Life / The Albert Wisner Public Library (Warwick, NY)

자폐증 및 지적 장애 청소년의 사회화를 돕는 일련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도서관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며, 독서 그룹을 형성하고, 소셜미디어 에티켓 강화 교육을 이수하며, 아트프로젝트와 보드게임, 그룹댄스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다.

2018-2019 (Third Cycle) Winners

- Library Café Half Hollow Hills Community Library (Dix Hills, NY)

<http://www.librariesandautism.org/grant/GrantWinners.htm>

도서관이 SOAR (Support our Autism Rainbow, a community group founded by local ASD parents) 및 특수교육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된 단계형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및 활동ADL (Activities for Daily Living) 에 대한 기술을 소개, 강화한다.

학생 및 젊은 연령대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공공도서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특히 젊은 자폐증 이용자에게 영양과 음식 연관 주제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Reading with your Grandchild on the Spectrum / Autism BC Lending Library (Richmond, Canada)

'Reading with your Grandchild on the Spectrum'은 자폐 범주형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조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6개 세션의 단기 워크숍이다. 참여자들은 조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조기 활동 공구키트를 제공받으며 다른 조부모들과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 SENSEational Story Time / Oscoda County Library (Mio, MI)

SENSEational Story Time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이야기, 활동, 공예, 간식과 발달장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서관은 각 참여 학생들에게 5~6권의 책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Let's Get Together Book Club (2018~)

<https://www.skokielibrary.info/events/7913/lets-get-together-book-club>

'Let's Get Together Book Club'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미국 일리노이의 Skokie 공공도서관에서는 격주로 열고 있는 독서토론회이다. 초기에는 NCBC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서를 주축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정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 발달장애를 지닌 참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Marcotte, 2019).

○ Sensory Strategy Space (2019)

Louisville Public Library Discovery Center

<https://www.louisvillelibrary.org/services/sensory-space>

자폐증을 지닌 두 명의 직원의 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Sensory Strategy Space은 2018년 8월에 개장한 이래 첫 1주일에 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Damron 2019). 이 공간은 크게 두 개 섹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공간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균형 봉, 음악진동 의자, 촉각 감지 벽과 같은 촉각 물체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어 EriS Musical Touch Wall은 생동감 있는 LED 조명과 터치 감도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손과 눈의 협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촉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용자나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두 번째 공간은 휴식을 위한 곳으로 자극을 제한하기 위해 부드러운 색과 희미한 빛으로 채워졌다. 이 공간은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Sensory Strategy Space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

으나 스토리타임, 성인을 위한 요가나 놀이 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림 2-8> Sensory Strategy Space의 촉각 자극 공간 (*출처: <https://americanlibrariesmagazine.org/latest-links/ohio-library-opens-sensory-strategy-space/>)



<그림 2-9> 한 이용자가 대형 쿠션에 앉아 진정효과를 제공하는 광섬유와 통합 광원을 이용한 LED softie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출처: <https://americanlibrariesmagazine.org/2019/06/03/a-sensory-wonderland/>)

3) 해외 도서관 직원 교육프로그램 사례

상당수 사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출발점을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서관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 Libraries and Autism: We're Connected.

<http://librariesandautism.org/>

- Libraries and Autism은 미국 뉴저지주의 공공도서관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는 자폐증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이트이다. 자폐증 이용자와 가족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 직원 대상 교육비디오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육영상은 자폐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점점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인구를 포용성 있게 서비스하기 위한 테크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Libraries and Autism은 자폐증과 관련된 정보원을 제공하며, 2016년부터 매년 미국 전국 단위로 자폐증 이용자를 위해 우수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Autism Welcome Here Grant’를 수여한다.

○ Autism Friendly Libraries

<https://www.ascel.org.uk/news/autism-friendly-libraries>

- 영국 ASCEL(Association of Senior Children’s and Education Librarians)과 Dimensions UK라는 비영리단체가 자폐이용자를 위한 사서 교육용 영상물 제작하여 영국의 3천여 개 공공도서관에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Autism Friendly Libraries Top Tips, Autism Friendly Libraries Poster 등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YALSA(A Division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ala.org/yalsa/serving-teens-autism-spectrum>

-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청소년도서관 서비스 분과(YALSA)에서 Serving Teens on the Autism Spectrum라는 자폐범주성 장애를 지닌 10대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비정규교육과정으로서 20명 이상 수강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폐증상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제공 팁과 도서관 서비스 운영 기법(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도서관 직원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155달러 수강료를 지불하는 유료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5 요소 분석

본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나 도서관은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본 장에서 소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Kaeding, Velasquez, Price(2017)의 이론과 같이 크게 장서, 프로그램, (사서)훈련, 협력, 마케팅, 물리적 장애(공간과 설비)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런 여섯 가지의 요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1) 장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장서의 형태가 공통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않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읽기쉬운 책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서의 형태는 읽기쉬운 도서보다는 그림책과 어린이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텍스트를 읽기쉬운 자료로 변화하는 작업이 전세계에서 목격되고 있어 읽기쉬운 자료를 활용하는 예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장난감과 촉감도서 이외에 장애인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장서의 주제 역시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교육에서 활용하는 자존감, 장애인식 등의 주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나 가족, 친구의 감정이나 심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제를 스토리타임에서 다루고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사회와 과학과 같은 비문학을 다루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2) 프로그램

해외의 사례는 스토리타임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도서관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감각을 자극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특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사례는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독서모임이다. 훈련된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도서를 선정하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최근 해외의 프로그램이 특정 장애가 아닌 보편적인 장애나 정보취약계층 모두를 포괄하는 inclusive program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국내의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초기이며, 대부분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하고 도서관이나 독서와 관련된 곳을 방문/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프로그램이 초창기이고 국가도서관의 지원사업이 일선 도서관이 발달장애인 사업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되므로, 도서관들이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위해 지원사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3) (사서)훈련

해외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는 사서의 훈련이 먼저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발달장애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이해가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었다. 사서의 훈련에 대한 연구 역시 국가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 프로그램의 보급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PALS라는 연구 결과로 사서 훈련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으며, 영국에서는 ASCEL이라는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사서 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다.

국내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프로그램 이외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사서 인식개선이나 훈련이 따로 보급되고 있는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4) 협력과 마케팅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 해외의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파트너라고 불리는 협력 단체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그 단체에 속한 장애인들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간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마케팅 단계에서 협력단체의 수가 증가하거나 범위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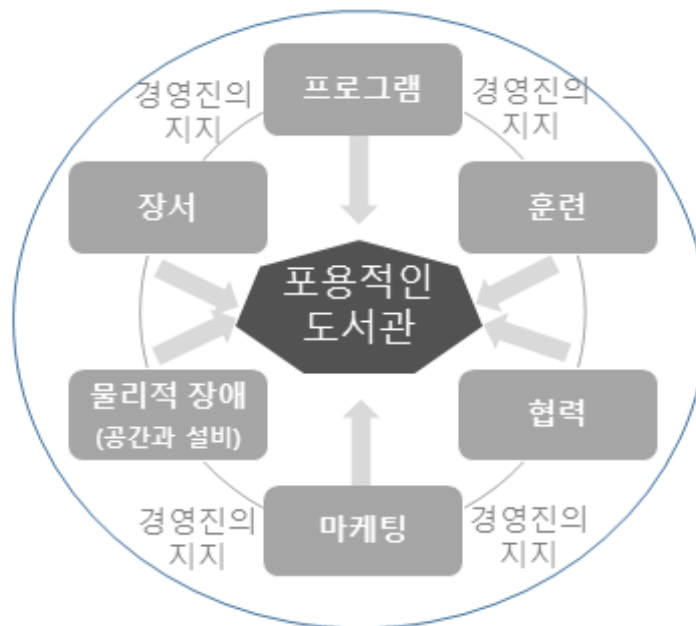
국내는 도서관과 한두 개의 단체가 협력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목격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기관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국가단위로 개발하고, 지역의 도서관과 유관기관이 지역특성과 장애인들의 개별성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물리적 장애(공간과 설비)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환경에 특별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특정 소음이 본인들에게는 위협이 느껴질 만큼 크게 느껴진다거나, 형광등의 작은 떨림이 참기 어려운 정도로 큰 걸림돌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장애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한 조도와 소음을 조정하는 것이 도서관의 큰 임무가 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Louisville Public Library Discovery Center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장 사례조사, 3장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연구, 4장 관계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5.1장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장서, 프로그램, (사서)훈련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5.2장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에서는 다양한 협력 관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타 기관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을 논의한다. 5.3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구성 방안'에서는 물리적 장애(공간과 설비)요소를 다루어 기존 사례에서 분석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0> 포용적인 도서관의 요소 분석

(*출처: Kaeding, J., Velasquez, D. L., & Price, D. (2017). Public Libraries and Acces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 Proposed Inclusive Library Model.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66(2), 96-115. doi:10.1080/24750158.2017.1298399 p.108)

2.6 시사점 도출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구성요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장서, 프로그램, (사서)훈련, 협력, 마케팅, 물리적 장애(공간과 설비)라는 구성요소를 발견하였다.

2.5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장서는 그림책, 어린이책, 이야기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촉각도서, 읽기쉬운 책 등이 도입되는 추세이다. 특별히 최근에는 전자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도 보고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주로 스토리타임 형태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는 책을 읽고 체험하는 활동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장애 형태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포용적인 서비스와 동시에 일대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서의 장애인식 개선과 훈련은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초기부터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영역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웃리치의 형태가 되거나, 개개인 또는 그룹의 특징과 장애정도가 다양하여 협력과 마케팅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서관이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추후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실제 이용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은 감각에 대한 자극을 다양하게 느끼는 발달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국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는 스토리타임과 같은 프로그램 진행 시 발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는 그 행사를 위한 공간을 따로 운영하였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적용 시점에 따른 변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토론이 이제 막 시작된 국내와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에게 문을 연지 10여년이 지났다. 사례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트렌드를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분석하였다.

- 도입기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008년경부터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사서와 도서관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었고, 도서관 직원들과 부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선언적으로 도입되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물리적인 접근성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였다.

- 발전기

2012년부터 2015년 무렵은 '자폐'나 '발달장애'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은 이제 발달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도서관은 마음껏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정기

2016년 이후에는 도서관의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분석되었다. 장애인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화되어, 특정한 장애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글을 읽기가 어렵거나, 노래로 글을 이해하여야 하거나, 창의력을 기르는 등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한편 동시에, 정반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장애나 취약계층의 개별 요구에 맞춘 일대일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의 서비스는 따로(개별화되거나) 또 같이(보편적인 inclusive program)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은 늘 도서관 서비스와 동반하였지만, 최근 해외 장애인 서비스에서는 아이패드나 전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주 이용자가 될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제 3 장 발달장애인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3.1 장애당사자 면담조사 결과

3.2 장애인보호자 FGI 및 설문 결과

3.3 시사점 도출

제3장 발달장애인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3.1 장애당사자 면담조사 결과

1) 학령기

(1)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순번	성별	연령	장애유형	소속/직업
A	남	15	지적장애	특수학교
B	남	16	지적장애	대안학교

(2) 면담 절차

발달장애인과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별면담은 2019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시간은 참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3) 면담결과

가. 도서관 이용 목적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고 있으며, 혼자서 이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독서나 대출, 개인 학습으로 응답하였다.

참여자A: 옛날에 많아요. (아는 동생이랑 갔었구나. 엄마는? 혼자 갔었어?) 아니요. 같이 갔어요.(...) 음. 한 번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 만화책이 많았어요. (A:2,3)

참여자B: 학교에서 책 읽는다고. (아 학교에서 단체로 간 거예요?) 반끼리만.(...) 그리고 책 빌릴 거 있어가지고 방학숙제로 간 적도 있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데여서. (B:1)

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태도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즐겁다’, ‘좋다’라고 대답하며 도서관을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도서관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 집에는 없는 책을 빌릴 수 있다는 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참여자A: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읽는 거 말고 혹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뭘 검색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네가 게임을 해보거나 그런 게 있었어?)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거기서?) 만화책이 많았어요. (A:3)

참여자B: 책을 빌리는거 .. 빌려서 집에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집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거의 다 없어서. 있긴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있는 거 거기 있어가지고. (...)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여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검정고시에 나오는 사회에 관련된 거 조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위인 그런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읽게 된 것 같아요. (B:1)

다. 도서관 환경

면담 참여자 중 한 명은 장애인용 열람실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한 명은 장애인용 열람실의 의미는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모두는 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실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참여자 한 명은 그런 자료실이 생긴다면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사회와 관련된 책이 더 많이 구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사서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겠다고 표현하여 사서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A: (도서관에 갔는데 내가 찾고 싶은 책을 찾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A:4)

참여자B: 거의, 아 한 번은 있긴 있는데. 책을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한 번 있어요. (B:2)

라. 도서관에 대한 요구

도서관의 역할과 요구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며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고,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 환경이 구축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도서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지역 내 도서관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예약 도서 알림을 수신 받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B: 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청각, 시각 안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시각 안 좋은 분들은 점자 사용해줬으면 좋겠고, 청각은 소리 안 들리니까 책 읽을 수 있는..사회에 대한 책도 있었으면 좋겠고. (B:4)

2) 청장년기

(1)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순번	성별	연령	장애유형	소속/직업
A	남	23	자폐성장애	국민대학교
B	남	20	자폐성장애	나사렛대학교
C	여	20	지적장애	-
D	남	23	자폐성장애	사무보조

(2) 면담 절차

발달장애인과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별면담은 2019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시간은 참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3) 면담결과

가. 도서관 이용 목적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고 있으며,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주기는 주말마다 이용하거나 일주일에 1-3회 다녀오는 것으로 응답하여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주로 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독서나 대

출, 프로그램 참여, 개인 과제 및 학습으로 응답하였다.

참여자A: 일주... 한 두번? 한 달에..그러면 열 번 정도 가는 거 같아요. (...) 도서관에 가는 이유요? 집에 있으면 늘어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야지 다른 사람들 하는 것 구경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글썽요 그런 거는...(A:1)

참여자B: 일주일에 세 번이요. (B:1)

참여자D: 일주일에요? 주말마다 가본 적 있어요. (D:2)

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태도

먼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에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즐겁다’, ‘싫지 않다’, ‘좋다’라고 대답하며 도서관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도서관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서관 환경과 도서관 활동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먼저 도서관 환경 측면에서는 도서관이 쾌적하고 콘센트가 많아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A: 음...그냥 아 이제 아무래도 이동할 때 야외에서 걷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환기도 되고 집에만 있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책상에 콘센트 있는 거. 노트북 할 때 나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 바로 꽂을 수 있으니까요. (A:4)

참여자B: 책을 읽으면 지식도 넓어지고 상대방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책을 읽기도 합니다. (B:1)

참여자 D: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하고 싶었던 거. 책 읽고 그걸 다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인권사회상하고 남북인권사회상이 어떤지 폭로하고. (...) 인상 깊었던 건 거기서 문학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저는 문학을 읽으면서 애들의 순수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D:4,6)

다. 도서관 환경

면담 참여자 모두는 일반 자료실 및 문헌정보실을 자주 이용하며 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실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참여자 한 명은 장애인용 자료실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료실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자 중 2명은 사서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명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겠다고 표현하였고 사서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A: 장애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곳만 이용하니까. (A:3)

참여자B: 그런 일이 있으면 사서보조나 친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B:2)

참여자C: (그러면 이 책을 찾을 때 '찾아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엄마한테. (C:7)

참여자D: 가본 적 없지만 우리 도서관이 사실 시각장애인용 도서관까지 겸한다는 생각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점자책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이 있는데. (D:10)

라. 도서관에 대한 요구

도서관 이용 시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이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에 활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증진과 환경 강화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사람이 두 명 있으며 두 명 모두 원하는 도서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A: 공부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쉬고 그래야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앉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책상에 누워서 쉬고. (A:2)

참여자B: 장애인 자료실은 없고 일반 자료실은 가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리

말아놔도 뺏길 수도 있고. (...) 책 제목을 찾을 때 불편했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편의시설이나 도서관 내부도 봤습니다. 찾아본 것은 어떤 책들이 많은지 봤습니다. (B:4)

참여자C: 사람들 무섭게 '아니 누가 간식 먹냐, 누가 도서관에서 간식을 먹어?' 이러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서 겁이 나요?) 네. (C:9)

참여자D: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봐요?) 읽는 책.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나오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D:8)

3) 중노년기

(1)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순번	성별	연령	장애유형	소속/직업
A	여	50	지적장애	중구장애인복지관
B	남	59	지적장애	중구장애인복지관
C	여	73	지적장애	중구장애인복지관

(2) 면담 절차

발달장애인과 의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별면담은 2019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시간은 참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3) 면담결과

가. 도서관 이용 목적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고 있으며, 혼자서 이용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독서나 대출, 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하였다.

참여자A: 아침에도, 아침에 갔다 왔어요. (...) 책 보는거. (A:3)

참여자B: 일주일에 3번이나 가나? (B:3)

참여자C: 공부하는 도서관 재미있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모든지 할 수 있으니까. (C:1)

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태도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 즐겁다 ’ ‘ 좋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도서관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A: 네. 애들 밥도 있고. (아이들 밥? 음식 만들 수 있는?) 네, 뭐지 그 책 있으니까. (요리책?) 응. (A:4)

참여자B: 뭐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B:4)

다. 도서관 환경

면담 참여자 모두는 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실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지만 참여자 한 명은 그런 자료실이 생긴다면 이용해보고 싶고 자주 가고 싶다고 표현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사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사서에게 도움을 받

은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겠다고 표현하여 사서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B: 가본 적? 이제 자주 가야죠. 이거 있으니까. (B:5)

참여자A: 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A:5)

참여자C: 아니,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것 도와주고 싶어요. 사서 선생님 도와주고 나도 하고 싶고 더러운 것 싫어. (C:1)

라. 도서관에 대한 요구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서관이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C: 창작극이나 동화나 옛날 그 드라마 가족 간의 이야기,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엄마한테는 말대꾸하지 말고. 어른들한테는 잘 대하고 그게 내 소원이예요. (C:3)

3.2 장애인보호자 FGI 및 설문 결과

1) 장애인보호자 면담

(1)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초점집단면담							
참여자	성별	연령	발달장애인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연령	소속
A	여	43	자녀	지적장애	여	11	특수학급
B	여	48	자녀	자폐성장애	남	12	특수학교
C	여	46	자녀	지적장애	남	10	특수학급
개별면담							
참여자	성별	연령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연령	소속
D	여	47	자녀	지폐성장애	남	18	일반학급
E	여	61	자녀	지적장애	남	33	밀알 우리플러스 작업장

(2) 면담 절차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FGI 및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면담은 2019년 6월과 7월에 실시되었으며, FGI의 경우 1.5시간, 개별면담의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3) 면담결과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대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표 3-1>과 같다.

<표 3-1> 부모면담에서 도출된 대주제와 하위주제

순번	대주제	하위주제
1	심리적 불편함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행동의 제재 요구
2	물리적 제한	• 적절한 자료 및 프로그램 부재 • 이용시간의 불편함
3	자료 및 프로그램 확충	• 수준에 맞는 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4	도서관 환경 개선	• 물리적 환경 개선 • 사회환경 개선

가. 심리적 불편함

① 주변의 부정적 시선

모든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의 특성 자체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였다. 즉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공간인데 장애의 특성상 특이한 소리를 내거나 상동행동을 하는 자녀와 함께 이용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아야 해서 심적으로 불편하여 꺼려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는 상대적으로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책상에 착석을 하고 독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참여자A: 이들과 같이 가려면 일단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부터 이제 저부

터도 있으니까 야 조용히 떠들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고.(A:4)

참여자B: 좋은 환경이나 좋은 분위기면은 이렇게 소리를 막 응 이려고 소리를 막 돌고래 소리 같은 거 끼이 이런 소리를 내서. 정숙해야 해요. 어린이 도서관은. OO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직원 분들이랑 일반 어린이들의 관심이 쏠려서(집중되어서). (B:6)

참여자A: 아이가 이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의자에만 앉혀놓기에는 또 상황이.(A:5)

도서관 이용자의 태도도 도서관 이용을 꺼려지게 하지만 사서가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자녀가 내는 특이한 소리로 도서관에서 쫓겨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후로 도서관을 이용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B: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일반 아이들한테는 열려져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를 참여시키기에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OO이처럼 집중 못하고 산만하고 돌아다니면은 “재 왜 저래. 왜 이런 프로그램에 피해를 줘?” 이런 시선이나 분위기 때문에 엄마가 일반 아동 참여하는 도서관 그 프로그램 참여시키기가 참 고민스럽죠.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그 담당자가 아이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아마 신청이 돼야 될 거 같아요. (B:8)

② 행동제재 요구

도서관 이용 경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과 함께 떠오른 주제는 자녀의 행동을 강제로 제지하거나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었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는 소리나 행동임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에 눈치가 보여 자녀의 행동을 계속 제지하게 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면서, 도서관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경험함에 모두 공감을 표하였다. 한 참여자는 자녀에게 ‘안돼’, ‘하지마’와 같은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

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C : 도서관에서 공연 하는 거 뭐 구연동화나 그런 거를 가끔씩 행사 있어서 가면은 (...) 그냥 딱 앉아있어야 되요. 거기에서 뭐 일어나가지고 뭘 하면은 '안돼 이리와' '여기 앉아있어야 돼' (...)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무조건 붙잡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은 조금 끌어 앉히면은 짜증도 내고. (C:7)

참여자B: 구에서 운영하는 전용극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월 1회 정도는 다들 무료로 좋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OO이라는 그 발달장애 센터를 통해서 초대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눈치 보였었어요. 앞이든 뒤든 했을 때 사람들이 뒤돌아보거나 이런 시선 때문에 그 진행요원들도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제스처. 이런 거 때문에 아이들 강하게 제가 억압시키고 협박을 하죠. 'OO아 조용히 해' 막 제가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B:12)

나. 물리적 제한

① 적절한 자료 및 프로그램 부재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자료가 거의 없음을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인지적 장애로 인해 높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도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서관에 구비된 자료는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 자녀가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음을 언급하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자A: 아이한테 그 학년에 맞게끔... 3학년이니까 그 맞게끔 이제 가져오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읽기도 힘들고 한글은 안다고 생각을 했더니 한글을 다 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를 시키는데 받침이 없으면 그냥 읽는데 받침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띄어 읽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읽기를 지금 연습을 시키는데 본인이 되게 힘들어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했는데. 책을 읽으라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A:5)

참여자C: 책을 빌릴 때 아이가 이제는 유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일반 아이 초등부 수준의 일반 도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C:15)

참여자A: 비장애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 일단 듣기로는 하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질 텐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수업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정상 아이들만 위한 그런 수업이니까. (A:9)

② 도서관 이용 시간의 불편함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방과 후에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프로그램 시간과 이동시간까지 합하면 대부분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주중에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반면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 여가활동이나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방과 후 오후 시간에 주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서관이 일요일에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참여자B: 몇 월 며칠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쪽 오는데 (...) 시간상 안 맞아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지 않은 이상 거기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센터(치료실)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고. 집에 오면은 일곱 시거든요. 여섯시 일곱 신데 그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 (B:8)

참여자C: 일요일도 문을 열었으면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좋겠는데 거기는 또 일요일에는 쉬시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좀 일요일 날 문을 열면 조금 더 이용을 잘하고. (C:4)

다. 자료 및 프로그램 확충

① 수준에 맞는 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떠오른 주제는 장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한 목소리를 내었다.

참여자A: 일단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 장애아이가 와서 뭐 책을 많이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책들을 정말 찾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쉬운 책 일단은. 가나다라를 배우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우리 일반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가나다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도 가나다라를 이렇게 보려면 쉽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거나. (A:13)

참여자B: 오감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이 느린 친구들 혹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조금 특별한 그런 코너를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거기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책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B:16)

적절한 장서의 구비와 함께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책이나 자료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직접적인 체험이나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언급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공통으로 강조하였다.

참여자C: 테마 식으로 공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번 달은 자동차에 대한 뭐. 이번 달은 공룡에 관한 뭐. 그런 조금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C:18)

참여자A: 둘레길을 요즘에 되게 많이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끌고 가서 이렇게 돌아다보면. 이 꽃 저 꽃 보면서 '엄마 이거 무슨 꽃이야?',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 엄마도 이거 잘 모르는 거야’ (말하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이거 무슨 꽃이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적장애 아이들은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산이든 바다가 됐든, 동네 개울가든, 그냥 산책로를 다니면서도. 그 또 조그만 개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막 오리도 있고 오리가 새끼 쳐서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안에 물고기도 있고. ‘엄마 안에 물고기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거 같아요. (A:10)

②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도서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장서를 구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및 가족을 위한 정보서비스도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이 언급한 정보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대두되는데, 첫 번째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정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녀의 장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장애에 대한 전공 서적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렵고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즉 원하는 정보를 사서에게 알려주면 그와 관련된 도서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A: 특수교육청에 가서 이걸 받으러 왔는데 그 굳센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하는 말이 ‘이 카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처음이고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어디다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치료 외에 어디 쓸 수 있는 카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몇 백만 원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본도 없는 엄마한테 이거 어디다 쓸거야 물어보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A:14)

참여자B: 약물 치료를 할 때 이 약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약의 부작용이 뭐지 그런 상세 설명을 의사 선생님이 안 해주시니까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 이런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B:14)

참여자B: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조카 선물로 책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어떤 책이 좋을까 이 조카한테. 저는 모르니까. 아이를 양육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보에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책 코디네이터처럼요. 내가 원하는 책의 방향을 설명 드리면 그거에 알맞은 책을 몇 가지 해주는(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 매년 자랄 때마다 제가 거기에 해 가지고 해서. 저희 동서도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 저희 아이가 지금 상동행동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을 알고 싶어요' 하면 아마 그분이 아마 정보를 제대로 주시기 어려울 거예요. (B:14)

라. 도서관 환경 개선

① 물리적 환경 개선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음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 오랜 시간 동안 착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 참여자들은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마음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한 참여자는 공간이 여유롭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없는 환경을 자녀도 좋아함을 언급하며 정숙을 요구하는 공간과 분리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의 의미는 분명하였는데, 원하는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어느 정도의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이었다.

참여자A: 한쪽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책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마루바닥처럼 정말 할머니 집에 놀러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 아이들이 소리를 조금 내더라도 그렇게 막 눈치 받지 않는 곳을 만들어주시면. 책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정석으로 앉아서 보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막 만화 책방 같은데 굴쳐

럼 개인 방도 만들어주고 하듯이 도서관도 딱 그런 식으로 놀이방 비슷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방이 있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떠들고 뭘 해도 눈치 받지 않고 엄마들도 좀 편안하게.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애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상동행동을 한다 해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공간이면 참 좋겠고 (A:16)

② 사회환경 개선

면담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가 구비되고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면서, 이와 함께 도서관의 문화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장소가 편안하게 느껴짐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B: 제가 OO이랑 활동하기 편한 곳들, 잘 다니는 곳들을 보면 결국 엄마가 마음 편히 아이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장애 인식이 어느 정도 되었고 저는 OO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가 제일 편한 거 같아요. OO장애인복지회관 갔을 때 제일 편하고 거기에서 치료 수업하면 뭔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돼서 좋고, OO이도 좋고 엄마도 쉬면서 좋고요. 그래서 OO장애인복지회관처럼 이렇게 장애인식이 전부 되어있으신 공간이 가장 마음 편한 거 같고요. (B:11)

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하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한 참여자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의 이름에 ‘장애인 전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장애인이 이질집단이 아니라 도서관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A: 방 머리말이 꼭 장애아이를 위한 곳입니다가 아니라 방 이름도 좀 부드럽고

우리 아이들이 이질감이 안 느껴지게. 우리나라는 너무 ‘왜 애를 이런데 데리고 왔어’ 이런 편견들이 너무 많아서. (A:17)

2) 장애인보호자 설문

(1) 설문대상

본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관련 설문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33,620명(지적장애 206,917명, 자폐성장애 26,703명)이 등록되었으며, 전체 등록장애인구 2,585,876명의 9.0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은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와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설문방법

설문은 아래 <표 3-2>과 같이 5개 영역, 3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도서관 비용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 기관인 평생교육기관의 이용현황과 도서관에 희망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위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3-2> 설문지 구성요소

평가부분	항목
기본정보	거주지
	보호자 성별 및 연령 /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평가부분	항목
장애인 기본 특성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장애인 최종학력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 정도
	의사소통 능력 정도
	문제행동 여부 및 정도(과잉, 충동, 폭력, 자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현황	평생교육기관 이용경험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경험(유형) 및 만족도
도서관 이용현황	보호자의 도서관 이용현황(이용여부 및 빈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현황(이용여부 및 빈도)
	도서관 방문 주요 목적 및 비이용 이유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요구	주요 이용 도서관 유형(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복지관 소속 도서관 등)
	도서관 서비스 특성의 중요도(시설, 장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사서)
	요구 서비스 및 프로그램 유형(현재 연령 기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방식 선호도(기간, 시간, 규모 등)

설문은 2019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6일간 진행되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 전국 특수학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부모 모임에 공문을 전달하여 홍보하였다. 공문발송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고 웹을 통해 조사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만, 서면으로 설문을 원한 3개 기관이 있어 서면으로 3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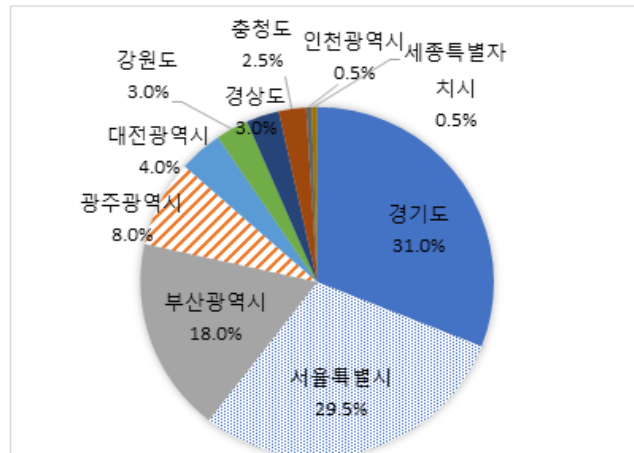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가. 기본 정보

① 설문응답자의 지역 분포

설문응답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 31.0%, 서울특별시 29.5%, 부산광역시

시 18.0%, 광주광역시 8.0%, 대전광역시 4.0%, 강원도와 경상도가 3.0%씩, 기타 충청도가 2.5%,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각 0.5%가 참여하였다.



<그림 3-1> 참여자의 지역정보

② 참여자

참여자는 여성이 90.5%를 차지하여, 남성(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③ 응답자의 평균연령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8세이며, 1사분위수 (누적 25%)는 40.0세, 2사분위는 45.0세, 3사분위는 50.0세, 4사분위는 73.0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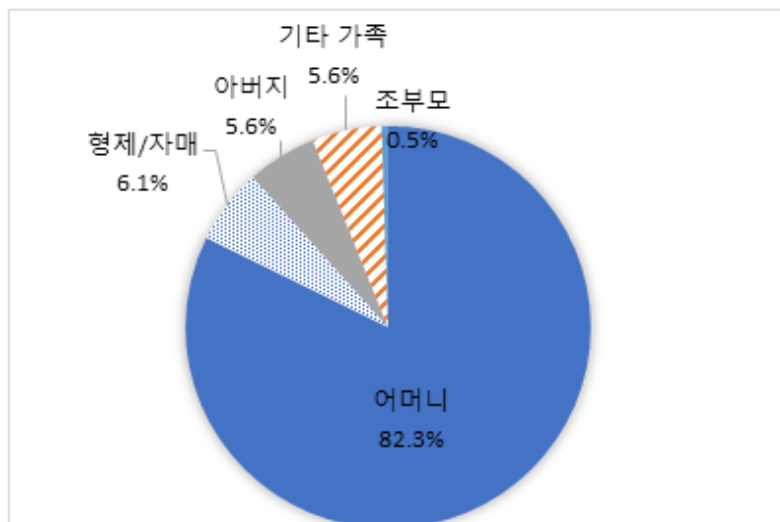
<표 3-3> 응답자의 연령분포

구분	연령 (세)
평균나이	44.8
1사분위	40.0
2사분위	45.0
3사분위	50.0
4사분위	73.0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분포가 다양하지는 않았으나,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다수 응답하여 평균연령이 40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④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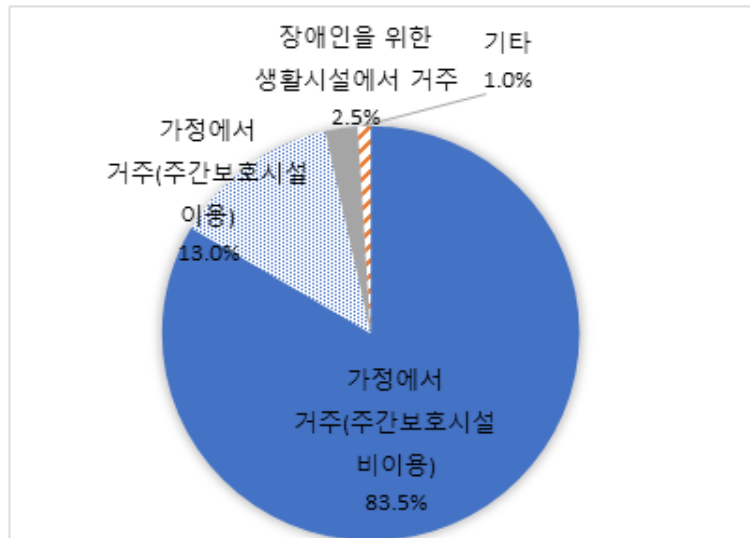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8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형제/자매 6.1%, 아버지와 기타 가족이 각각 5.6%, 조부모가 0.5%를 차지하였다.



<그림 3-2> 참여자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⑤ 발달장애인의 주거 형태

설문에 참여한 가정에서는 대부분(83.5%)의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거주(주간보호시설 비이용)하며, 가정에서 거주하지만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비중은 13.0%였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2.5%였으며 기타가 1%였다.



<그림 3-3> 발달장애인의 거주 형태

나. 발달장애인 기본 정보

설문 응답자의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① 자녀의 성별

자녀의 성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145명, 72.5%)이 여성(55명, 27.5%)의 2.6배에 달했다.

② 발달장애인들의 연령

발달장애인들의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연령이 17.5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134명(평균나이 11.9세), 청장년기 57명(평균나이 26.5세), 중노년기 9명(평균나이 46.7세)으로 분석하였다.

③ 장애의 유형

장애의 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적장애는 105명이며, 자폐성장애는 93명이었다. 2명이 기타 장애 유형을 체크하였다.

④ 장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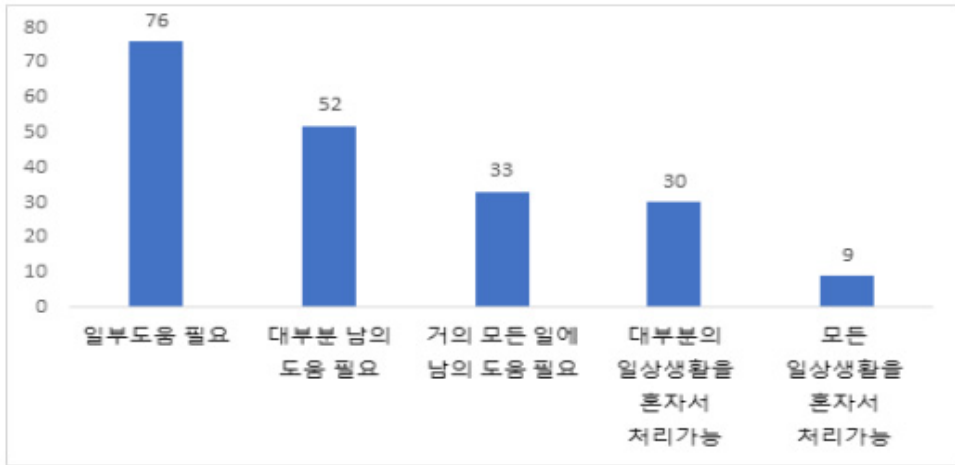
장애 등급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급은 83명(41.5%), 2급 77명(38.5%), 3급 34명(17.0%)순이었으며 기타는 6명(3.0%)이었다.

<표 3-4> 발달장애인의 분포

구분		응답자(명)	비율(%)
성별	남성	145	72.5
	여성	55	27.5
연령	학령기	134	평균 11.9세
	청장년기	57	평균 26.5세
	중노년기	9	평균 46.7세
장애유형	지적장애	105	52.5
	자폐성장애	93	46.5
	기타유형	2	1
장애등급	1급	83	41.5
	2급	77	37.5
	3급	34	17

⑤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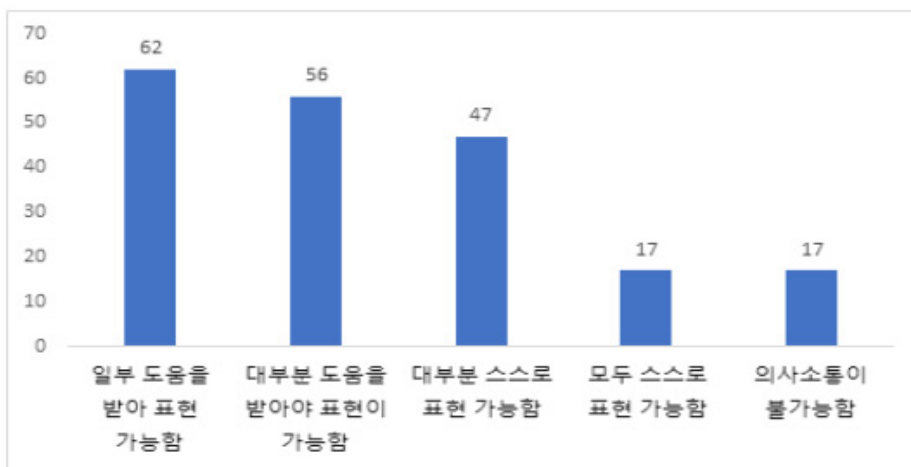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정보는 80.5%가량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도움 필요는 76명(38.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는 52명(26.0%),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는 33명(16.5%)이었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혼자서 처리가 가능한 비율은 19.5%였는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처리가능이 30명 (15.0%),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처리가능이 9명(4.5%)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정도

⑥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은 아주 능숙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 각각 17명(8.5%)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은 일부 도움을 받아 표현 가능함 (62명, 31.2%)이었으며,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표현이 가능함 (56명, 28.1%)과 대부분 스스로 표현 가능함 (47명, 23.6%)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5>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정도

⑦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 즉 문제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129명이 발견되었다고 응답하였고, 72명이 도전적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발견되는 도전적 행동을 중복 선택하는 답변에서는 동일행동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이 발견되는 발달장애인이 80명으로 나타나 도전적 행동이 보이는 129명 가운데 62.0%를 차지하였다. 다른 활동으로 자주 바꾸며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충동도 68명이 선택하여 전체 과반이 넘는 비율(52.7%)이 응답하였다. 지나치게 움직이고 쉴 사이 없이 활동인 과잉은 59명(45.7%)에게서, 자해는 26명(20.2%), 폭력은 19명(14.7%)에게서 나타났다.

⑧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의 자녀들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초등학교 재학생이 71명, 중학교 재학생이 25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15명, 대학교 재학생이 5명이었다. 졸업은 대부분 고졸(20명)이었으며 대학 졸업은 8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이 각각 1명씩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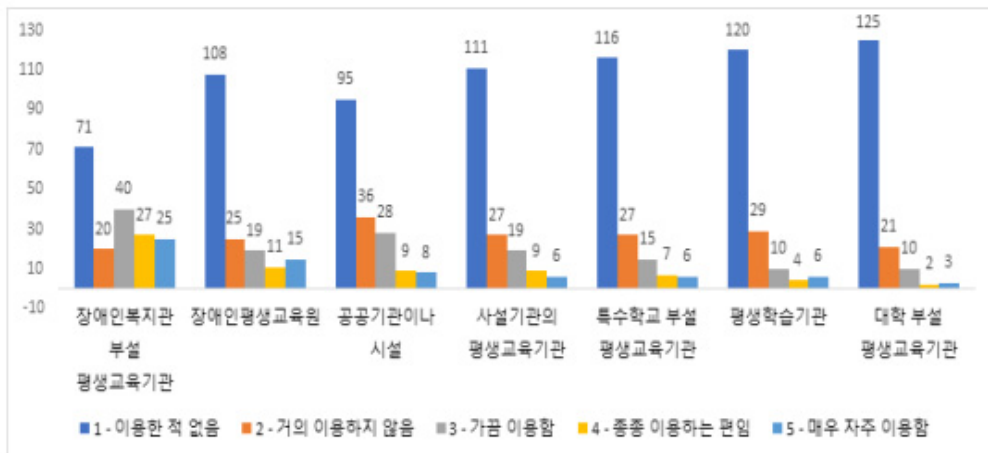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현황

①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기관 이용

응답자는 대부분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총 183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3%였다. 하지만 그 빈도수는 많지 않아 가끔 이용함이 응답자의 21.9%(40명), 종종 이용하는 편임이 14.8%(27명), 매우 자주 이용함이 13.7%(25명)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평생교육원은 응답자(178명)의 25.3%(45명)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생교육원 역시 가끔 이용하는 비율이 10.7%(19명), 종종 이용하는 편이 6.2%(11명)으로 매우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가 8.4%(1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공기관이나 시설 이용자가 45명, 사설기관의 평생교육기관 이용자

가 34명,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이 28명, 평생학습기관 20명,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나 시설은 종종 이용한다는 이용자와 매우 자주 이용한다는 이용자가 총 17명, 사설기관의 평생교육기관은 15명,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13명, 평생학습기관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종종이나 자주 이용한다는 이용자가 5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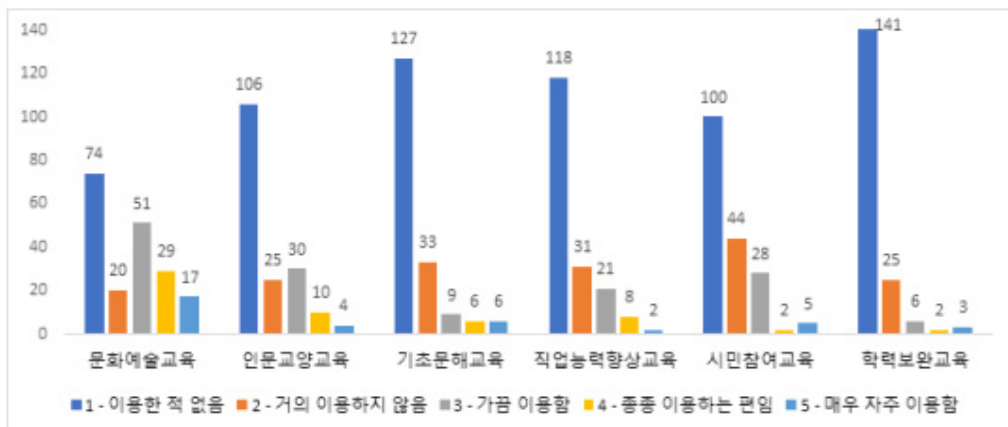


<그림 3-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이용 정도

②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빈도

평균 19.9%의 응답자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음악/무용/공예강좌, 노래교실, 수영/축구 등 스포츠 활동과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7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식생활교육, 예절교육, 일반 인문학이나 과학 강좌, 독서강좌와 같은 인문교양교육으로 44명(22.0%)이 이용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이나 장애 이해 교실과 같은 시민참여교육은 35명으로 17.5%의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준비과정이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직업능력향상교육 이용자는 31명(15.5%)으로 확인되었다. 한글교실, 가족문해교실, 한글쓰기(백일장)와 같은 기초문해교육은 21명(10.5%)이 이용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검정고시강좌, 교과연계강좌, 독학사나 학점은행제강좌와 같은

학력보완교육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용자가 11명(5.5%)에 그쳤다.



<그림 3-7>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정도

③ 이용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그러나 이용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5점(매우만족 5점~매우 불만족 1점)으로 체크하였을 때, 평균이 2.4점으로 나타나 불만족(2점)과 보통(3점) 사이에서 불만족에 더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3.1점, 인문교양교육이 2.7점,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3점, 시민참여교육이 2.3점, 기초문해교육이 2.2점, 학력보완교육이 1.9점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해 본 교육의 비율 순서와 만족도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의 참여와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5>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종류	만족도점수 (점)
문화예술교육	3.1
인문교양교육	2.7
직업능력향상교육	2.3
시민참여교육	2.3
기초문해교육	2.2
학력보완교육	1.9

라. 도서관 이용현황

① 도서관 이용현황

도서관 이용현황에서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129명, 64.5%)과 보호자(73명, 36.5%)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빈도수가 많이 낮았는데 발달장애인은 연 1~3회 방문이 21명(10.5%)이며 보호자는 28명(14.0%)이 응답하였고, 6개월 1~3회 방문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21명(10.5%)이며 보호자는 34명(17.0%)이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21.0%가, 보호자의 31.0%가 1년에 서너 차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3회 방문은 발달장애인이 19명(9.5%), 보호자가 43명(21.5%)으로 나타났으며, 더 자주 방문한 주 1~3회 방문은 발달장애인 7명(3.5%)과 보호자 19명(9.5%)이 있었다. 매일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명 있었는데, 대학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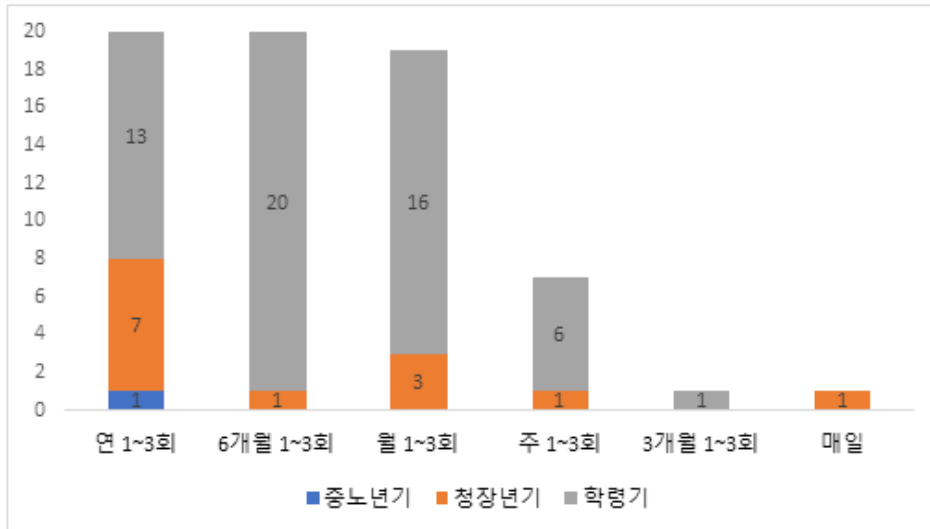
<표 3-6>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현황

	보호자		발달장애인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매일	0	0.0%	1	0.5%
주 1~3회	19	9.5%	7	3.5%
월 1~3회	43	21.5%	19	9.5%
6개월 1~3회	34	17.0%	21	10.5%
연 1~3회	28	14.0%	21	10.5%
이용하지 않음	73	36.5%	129	64.5%
기타	3	1.5%	2	1.0%

②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생애주기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생애주기를 보면,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들은 9명 가운데 1명(11.1%)만 1년에 1~3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기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77.2%(44명)이었으며, 학령기는 도서관 미이용 비율이 57.5%(77명)이었다. 학령기의 이용자들이 주 1~3회 이용이 6명, 월 1~3회 이용자가 16명으로 나타나 다른 시기보다 도서

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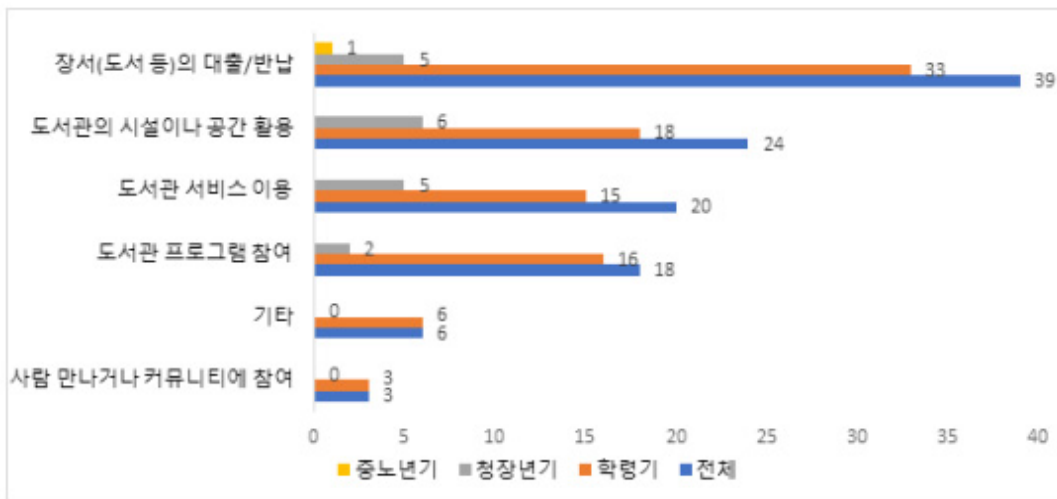
③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장서(도서 등)의 대출/반납 39명(35.5%)을 위한 것과 도서관의 시설이나 공간 활용 24명(21.8%)이 과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도서관 서비스 이용 20명(18.2%),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18명(16.4%), 기타 6명(5.5%), 사람을 만나거나 도서관 커뮤니티(독서회 등)에 참여 3명(2.7%)의 의견이 있었다.

<표 3-7>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방문목적

목적	응답수 (명)
장서(도서 등)의 대출/반납	39
도서관의 시설이나 공간 활용	24
도서관 서비스 이용	20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18
기타	6
사람 만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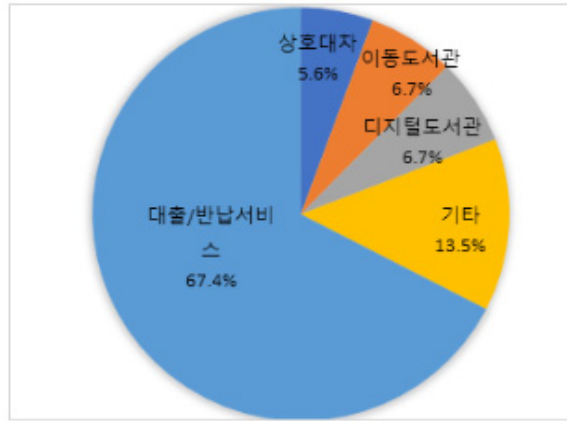
- 방문목적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학령기의 이용자들(91명)은 확연히 장서를 이용(33명)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반면, 청장년기의 이용자들은 뚜렷한 방문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장서, 공간, 서비스이용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청장년기 이용자 18명 가운데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이용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림 3-9>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목적

④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는 대부분 대출/반납서비스(60명, 67.4%)이며 기타가 12명(13.5%), 이동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서비스가 각각 6명(6.7%)이고 상호대차가 5명(5.6%)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보아도 각 시기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0>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⑤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장서의 주제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장서의 주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을 살펴보면, 문학 27명(26.7%)과 취미/여가 23명(22.8%)으로 두 주제가 전체 과반에 가깝다. 이외에 예술 16명(15.8%), 역사 11명(10.9%), 진로/직업/진학 10명(9.9%), 컴퓨터 등 실용과학 6명(5.9%), 건강 3명(3.0%), 철학/종교 3명(3.0%), 기타 2명(2.0%) 순으로 주제를 원하였다.

-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학령기의 발달장애인들은 문학 > 취미/여가 > 예술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청장년기는 취미/여가 > 문학, 예술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표 3-8> 생애주기별 주제분야 선호도

주제분야	전체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문학	27	23	3	1
취미/여가	23	17	6	
예술	16	13	3	
역사	11	9	1	1
진로/직업/진학	10	8	2	
컴퓨터 등 실용과학	6	5	1	
건강	3	2	1	
철학/종교	3	3	0	
기타	2	2	0	

⑥ 도서관에서 이용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

도서관에서 이용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에 대한 대답은 5점 척도(5점 활용도가 매우 높음~1점 활용도가 매우 낮음)로 분석하였을 때, 전체적인 평균은 2.3점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낮음(2점)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활용도의 점수 순으로 살펴보면 문화프로그램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체험학습이 2.6점, 취미여가가 2.5점, 문화예술이 2.4점, 건강이 2.4점, 도서관이용교육이 2.4점, 자격증 과정 교육이 2.3점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8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전통문화, 독서행사, 정보화는 각 2.2점씩, 기타 독서프로그램과 어학, 기타는 각 2.1점, 독서 관련 1.9점과 저자 강연회는 1.8점을 획득하였다.

<표 3-9> 기이용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

프로그램	활용도(점)
문화프로그램	2.7
체험학습	2.6
취미여가	2.5
문화예술	2.4
건강	2.4
도서관이용교육	2.4
자격증 과정 교육	2.3
전통문화	2.2
독서행사	2.2
정보화	2.2
기타 독서프로그램	2.1
어학	2.1
기타	2.1
독서 관련	1.9
저자 강연회	1.8

⑦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5점(5점 매우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시설과 설비의 문제로 총 3.9점(4점 그렇다)을 얻었다. 기타 서비스/프로그램과 이용자/사서도 3.8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료의 부족은 3.1점, 기타는 2.9점, 접근성은 2.7점을 얻어 '보통' 정도의 점수

<표 3-10>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대분류)

이유	점수(점)
시설/설비	3.9
서비스/프로그램	3.8
이용자/사서	3.8
자료	3.1
기타	2.9
접근성	2.7

를 얻었다. 설문결과 자료와 접근성보다는 시설, 서비스와 프로그램, 도서관 구성원들이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방문에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⑧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의 소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 4.3점, 장애인이 이용 분위기 조성 안됨 4.2점, 소음이나 문제행동 4.2점, 이용자 인식 부족 4.0점, 서비스 자세 부족 3.9점, 프로그램 부족 3.9점, 직원과 의사소통 3.8점,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 3.7점, 홍보/교육 부족 3.7점, 이용 불편 3.6점, 공간 시설 부족 3.6점 순으로 나타나 11개의 이유가 평균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외 ‘보통’으로 나타난 이유는, 프로그램 신청어려움 3.5점, 정보서비스 어려움 3.5점, 자료 불충분 3.2점, 필요성 없음 3.0점, 전자자료 부족 3.0점이었다. 보통이하로 나타난 사유는 기타 2.9점,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만족스럽게 취득 2.8점, 멀거나 교통 불편 2.8점, 도서관이 없음 2.6점, 운영시간 맞지 않음 2.6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1>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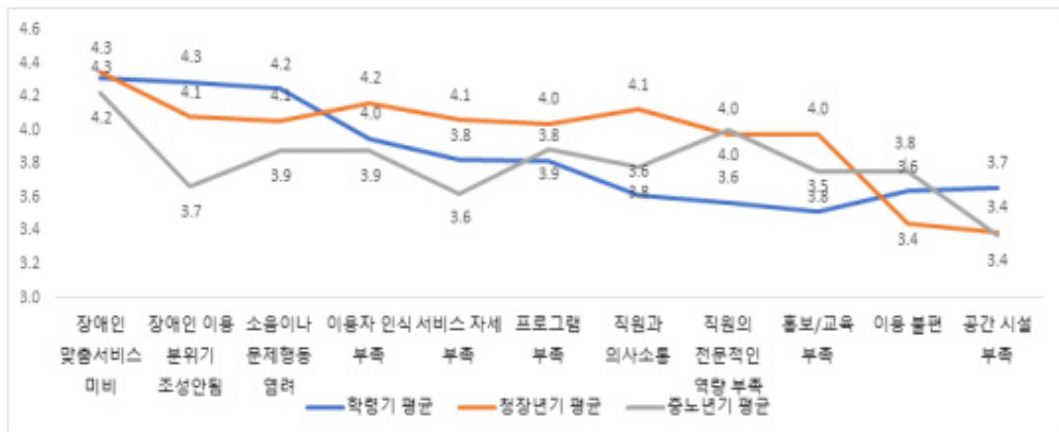
이유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	장애인 이용 분위기 조성안됨	소음이나 문제행동 염려	이용자 인식 부족	서비스 자세 부족	프로그램 부족	직원과 의사소통
평균(점)	4.3	4.2	4.2	4.0	3.9	3.9	3.8
이유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	홍보/교 육 부족	이용 불편	공간 시설 부족	프로그램 신청어려 움	정보서비 스 어려움	자료불충 분
평균(점)	3.7	3.7	3.6	3.6	3.5	3.5	3.2
이유	필요성 없음	전자자료 부족	기타	스마트폰 만족	멀거나 교통불편	도서관이 없음	운영시간 맞지 않음
평균(점)	3.0	3.0	2.9	2.8	2.8	2.6	2.6

⑨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생애주기별 주요 원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학령기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4.32점) > 장애인 이용 분위기 조성안됨(4.29점) > 소음이나 문제행동 염려(4.25점)순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기의 경우는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4.35점) > 이용자 인식 부족(4.17점) > 장애인 이용 분위기 조성안됨(4.08점)순으로 나타나 학령기와 비슷하지만 인식부족을 조금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기의 경우는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4.22점) >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4.00점) > 소음이나 문제행동 염려/이용자 인식 부족(3.88점)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직원의 역량에 대해 더욱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생애주기별 도서관 방문하지 않는 이유(상위11건)

마. 도서관 이용요구

-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 다양한 요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다. 중요도는 5점 척도(5점 매우 중요하다~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질문되었으며, 각 질문은 수치 정보로 변환하였다.

① 공간에 대한 중요도

우선 공간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4점을 넘긴 공간은 학습자료, 영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4.07점)이 유일하였다. 중요하다(4점) 척도 근처 점수를 받은 공간은 방음 시설이 구비되어 낭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면낭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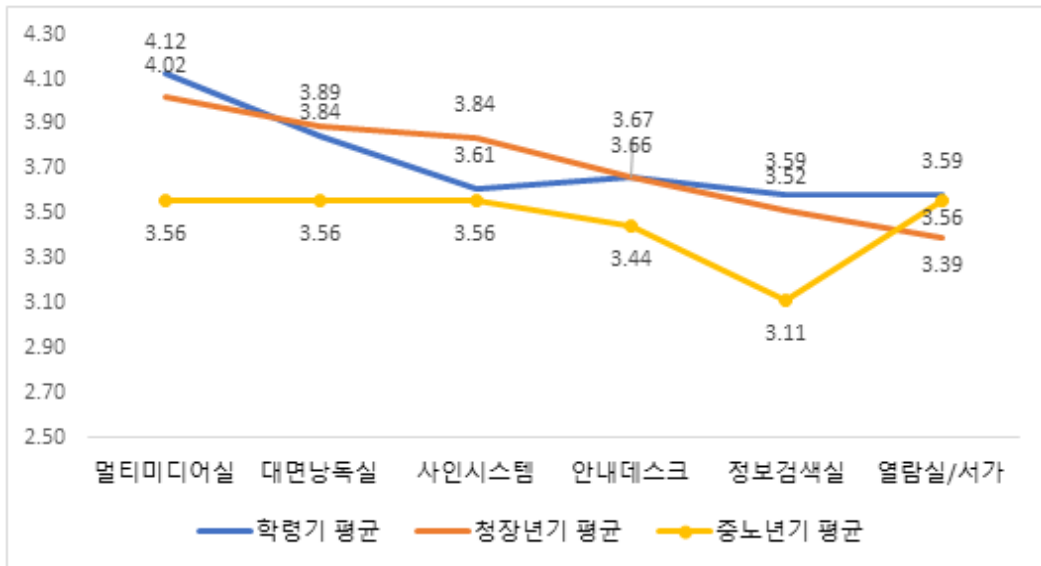
<표 3-12> 도서관의 각 공간과 중요도

공간	중요도(점)
멀티미디어실	4.07
대면낭독실	3.84
사인시스템	3.68
안내데스크	3.65
정보검색실	3.54
열람실/서가	3.53

(3.84점)이었다. 이외에 공간이나 서가배치도 등의 표기, 픽토그램, 인간공학적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사인시스템 3.68점, 도서관 이용안내, 보조기기 대여가 가능한 안내데스크 3.65점, 특수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실 3.54점과 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높낮이 조절 책상 등 구비한 열람실/서가가 3.53점을 얻었다.

② 공간에 대한 생애주기별 중요도

각 공간에 대한 생애주기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학년기는 멀티미디어실(4.12점) > 대면낭독실(3.84점) > 안내데스크(3.67점)순이었으며, 청장년기는 멀티미디어실(4.02점) > 대면낭독실(3.89점) > 사인시스템(3.84점)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중노년기의 경우 각 공간에 대한 중요도가 비슷하였고, 정보검색실에 대한 중요도만 3.11점으로 유독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2> 생애주기별 공간 중요도

③ 발달장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

발달장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과 관련된 질문에서 화장실과 세면대와 같은 위생시설(3.81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유의견에서 한 응답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안내시설로 3.76점을, 기타시설은 3.71점의 중요도를 얻어 4점(중요하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이외 매개시설(3.54점)과 내부시설(3.5점) 역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3> 도서관의 각 시설과 중요도

구분	중요도(점)
위생시설	3.81
안내시설	3.76
기타시설	3.71
매개시설	3.54
내부시설	3.5

④ 시설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

시설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열람석(3.92점)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고, 그 다음이 화장실(3.90점)이 중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표 3-14> 생애주기별 시설 중요도

	열람석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장애인전 용주차구	세면대	접수대/ 작업대	유도 및 안내설비
중요도 (점)	3.92	3.90	3.84	3.73	3.73	3.70	3.70
학령기 평균	3.93	3.92	3.83	3.82	3.73	3.72	3.70
청장년 기 평균	3.98	3.88	3.93	3.57	3.75	3.70	3.77
중노년 기 평균	3.44	3.78	3.44	3.44	3.56	3.56	3.22

중요도 (점)	계단/ 승강기	판매기/ 음료대	주출입구	출입구/ 문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평균	3.57	3.51	3.51	3.49	3.46	3.39
학령기 평균	3.58	3.57	3.58	3.54	3.45	3.42
청장년 기 평균	3.50	3.43	3.32	3.41	3.46	3.39
중노년 기 평균	3.78	3.22	3.56	3.44	3.56	3.00

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자유의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자유의견은 태그 클라우드로 작성하였다. 다빈출 키워드는 ‘도서관, 자유롭게, 조용히, 공간, 장애인, 책을, 어려움, 이용이, 시설, 안락한, 문제행동으로. 타인의, 혼자’ 등으로 장애인들이 도서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자유의견 태그 클라우드

자유의견을 분석해보면, 개별공간에 대한 의견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용자들의 자유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음, 책과 미디어 이용, 떠들어도 되는 곳, 문제행동으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공간필요, 동전노래방 같은, 상동행동시 타인의 시선주목이 힘들어 공
 간분리가 필요하다, 소리 내거나 돌아다녀도 눈치 보이지 않는 곳, 칸칸이
 방음

쉼터—수유실처럼 발달장애인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장애인전용도서관, 장애 아동의 돌출행동도 무방한 개인 열람실이나 장애인

통합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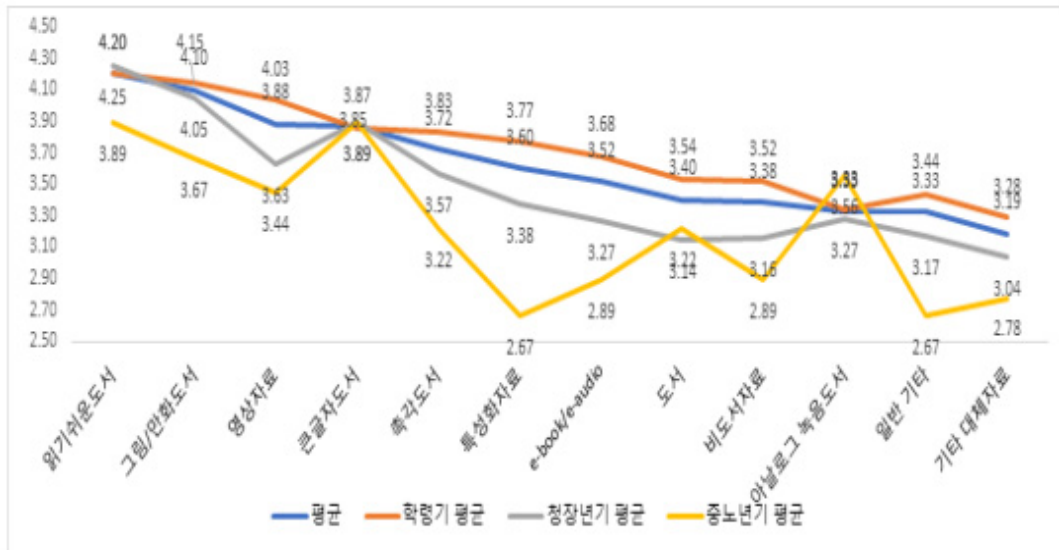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공간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9명)과, 장애인전용공간(7명)이 응답하였다. 5명의 보호자가 시끄러워도 괜찮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눕거나 쉴 수 있는 공간(4명)이나 방처럼 안락한 시설(4명)을 원한다고 하였다. 기타 화장실과 승강기의 구비에 대한 의견도 2명이 있었다.

독서토론실, 넓은 공간, 보조의료책상, 성인을 위한 공간(“성인 몸인데 저학년공간 사용 불편함”), 출입구 정비, 다치지 않게 쿠션처리(벽, 기둥),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공간, 휴게공간에 대한 의견도 1명씩 있었다.

⑥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서의 형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서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체자료와 일반자료에 대해 질문하였다. 발달장애인은 모든 생애주기에서 읽기 쉬운 도서에 대한 중요도(4.2점)가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중요도는 학령기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유독 읽기 쉬운 도서는 학령기(4.20점)보다는 청장년기(4.25점)에서 생각하는 중요도의 점수가 높았다.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장서는 그림/만화 도서인데, 각 연령에서 고루 중요하다(4.1점)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중요도 점수가 높은 자료는 영상자료(3.88점)인데 학령기(4.03점)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큰글자도서(3.87점)는 특히 청장년기와 중노년기에서 중요하다(3.89점)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외에 촉각도서 3.72점, 특성화자료 3.60점, e-book/e-audio 3.52점, 도서 3.40점, 비도서자료 3.38점, 아날로그 녹음도서 3.33점, 일반 기타 3.33점, 기타 대체자료 3.19점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수치 가운데 특이하게 분석되는 부분은 중노년기에서 아날로그 녹음도서(3.56점)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높았다는 점이다. 중노년기는 아날로그 녹음도서를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3-14> 생애주기별 장서 형태에 대한 중요도

⑦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다음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분류로 독서프로그램과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독서관련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은 3.5점,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은 3.7점으로, 발달장애인들은 0.2점 차이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각 프로그램의 중요성

각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 이상인 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장애인을 위한 마술공연, 평생교육강좌, 성교육 프로젝트 등) 4.29점, 체험학습(쿠키클레이, 비즈공예, 도자기 교실 등) 4.15점, 문화예술(수채화, 음악여행 등) 3.98점, 건강(건강요가, 웃음치료 등) 3.97

<표 3-15> 도서관의 각 프로그램과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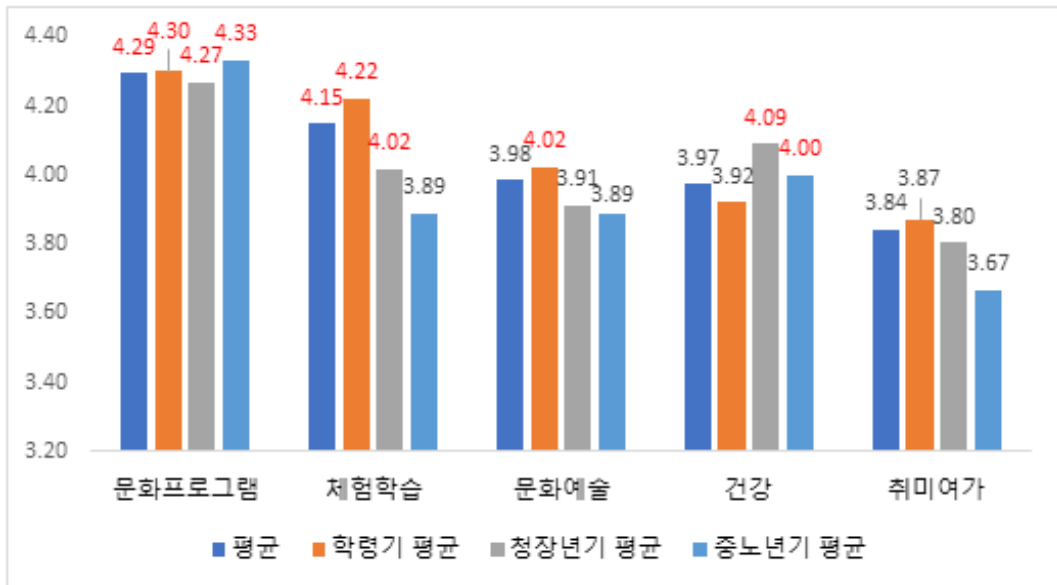
구분	중요도(점)
문화프로그램	4.29
체험학습	4.15
문화예술	3.98
건강	3.97
취미여가	3.84
도서관이용교육	3.75

점, 취미여가(비즈공예, 예쁜 글씨 등) 3.84점, 도서관이용교육(도서관 이용법, 독서법 등) 3.75점, 기타 독서프로그램(책읽는 가족, 책연구회 등) 3.61점을 얻었다. 이외의 프로그램은 자격증 과정 교육(컴퓨터 자격증 수업 등) 3.58 점, 독서행사 관련(독서의 달, 독서주간행사 등) 3.38점, 독서 관련(독서회, 독서세미나 등) 3.34점, 전통문화(유교사향, 전통염색 등) 3.32점, 정보화(포토샵, 엑셀 등) 3.28점, 어학(영어회화, 생활영어, 한문 등) 3.27점, 기타(재무설계, 대화기법, 두뇌속독 등) 3.24점, 저자 강연회(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 3.22점을 얻었다.

기타 독서프로그램	3.61
자격증 과정 교육	3.58
행사 관련	3.38
독서 관련	3.34
전통문화	3.32
정보화	3.28
어학	3.27
기타	3.24
저자 강연회	3.22

⑨ 생애주기와 중요도 상위 5개의 프로그램

생애주기와 중요도 상위 5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4점(중요함)을 넘었다.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령기와 청장년기에서 중요함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중노년기의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미술,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는 특히 학령기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기존 도서관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도 문화예술 관련 활용도가 높았던 것을 보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청장년기와 중노년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취미와 여가는 중노년기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학령기와 청장년기의 평균이 3.8점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3-15> 생애주기별 중요 프로그램(상위5건)

⑩ 생애주기별로 중요도가 높은 프로그램

생애주기별로 중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보면, 학령기의 경우는 문화프로그램 > 체험학습 > 문화예술 > 건강 > 취미여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자격증 과정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장년기의 경우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 > 건강 > 체험학습 > 문화예술 > 취미여가인데 학령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학령기가 저자 강연회에 중요도를 크게 부여하지 않은 것에 비해, 저자 강연회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노년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청장년기와 무척 흡사하게 나타났다. 주요 다섯 프로그램은 청장년층의 순위와 동일하였으며, 역시 학령기에 비해 저자 강연회에 대한 순위가 높았다. 정보화 프로그램의 순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목격되었다.

<표 3-16>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중요도 순위 비교

구분	학령기 평균	구분	청장년기 평균	구분	중노년기 평균
문화프로그램	4.30	문화프로그램	4.27	문화프로그램	4.33
체험학습	4.22	건강	4.09	건강	4.00
문화예술	4.02	체험학습	4.02	체험학습	3.89
건강	3.92	문화예술	3.91	문화예술	3.89
취미여가	3.87	취미여가	3.80	취미여가	3.67
도서관이용교육	3.81	도서관이용교육	3.63	도서관이용교육	3.67
자격증 과정 교육	3.74	기타 독서프로그램	3.48	기타 독서프로그램	3.56
기타 독서프로그램	3.67	독서 관련	3.36	행사 관련	3.44
행사 관련	3.40	행사 관련	3.32	독서 관련	3.33
전통문화	3.40	자격증 과정 교육	3.30	저자 강연회	3.22
기타	3.39	저자 강연회	3.27	자격증 과정 교육	3.11
정보화	3.38	전통문화	3.20	전통문화	3.00
어학	3.38	정보화	3.13	어학	2.89
독서 관련	3.33	어학	3.09	정보화	2.78
저자 강연회	3.20	기타	2.98	기타	2.67

⑪ 프로그램의 방식

프로그램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발달장애인들은 중기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응답자는 73명(38.4%), 6개월 이상 중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응답자는 61명(32.1%)이었다. 그 이외에 짧은 기간에 대한 선호도는 29.5%이었는데, 월별 단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응답자는 50명(26.3%)이었으며 1회성 프로그램 응답자는 6명(3.2%)이었다.

⑫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대부분이 1~2시간(122명, 61.9%)을 선호하였으며,

30분~1시간은 56명(28.4%)과 2~5시간은 19명(9.6%)이 응답하였다.

⑬ 프로그램의 규모

프로그램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작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규모는 소규모 10명 이하로 147명(77.0%)이 응답하였고, 1:1 프로그램도 20명(10.5%)이 응답하였다. 중규모 (20~50명)는 22명(11.5%)이 응답하였으며, 대규모 (50~100명)를 원하는 응답자는 2명(1.0%)에 그쳤다.

⑭ 도서관에서 신설되기 원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신설되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열린 질문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총 83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크게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 우선 독서프로그램과 관련한 의견은 총 34건이 있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책을 읽고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였다.

<표 3-17> 자유의견 가운데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인원수	비고
독서모임	8	쉬운 책 읽고 느낀 점 발표(전문강사, 특수교육 강사 지도)
구연동화	5	
책활동/놀이	4	책을 한 번씩 읽고 연극처럼 등장인물을 아이들이 파트별로 낭독
독서논술토론	4	북토크
읽어주기 프로그램	4	관심 주제 독서 낭독
느린학습자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3	시각적 자극을 통한 독서방법교육
그림책 읽기	2	동기 부여되는 프로그램
(책) 만들기	2	
독서 친구 만들기	1	
비장애형제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1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목격되었다.

<표 3-18> 자유의견 가운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인원수	비고
음악	7	악기연주(난타, 풍물) 3명, 합창
컴퓨터	7	한글타자, 정보화교육 기초(장애인을 위한)
직업, 자격증	6	전문자격증반
체육/스포츠/춤/요가	5	
축각놀이/인형극	4	종이접기(2명)
문화 예술 프로그램	3	
여가/취미	3	컬러비즈
성교육/건강	3	
과학실험/생활 속 과학, 대화기법, 도자기, 마술, 미술, 비눗방울쇼, 요리 각 1명씩		

-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22명의 의견이 있었다.

체험학습에 대한 의견이 5명, (일반인)인식개선에 대한 의견이 3명, 읽기쉬운도서지원에 대한 의견이 2명 있었다. 이 외에 (장애인의)도서관 자원활동, 가족 프로그램, 긍정육아, 맞춤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소규모 연극/뮤지컬 공연, 심리치료, 영화상영, 웃음치료, 참여형 프로그램, 학교 공부 보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1명씩 제기되었다.

3.3 시사점 도출

1) 장애당사자 면담조사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도서관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를 반겨주는 곳이 되길 바랐고 사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이용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당사자를 면담하여 도서관에 바라는 바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3-19> 장애당사자 면담 결과

구분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장서	학과 관련, 만화책	재미있는 책, (책 찾기가 어려움)	요리책 등의 생활관련 서적, 창작극이나 동화
프로그램	학교 현장 체험학습 위주	독서나 대출, 프로그램 참여, 개인 과제와 학습 위주	독서나 대출, 프로그램 참여
(사서) 훈련	사서에 대해 편안한 느낌	사서의 도움 받은 적 있음	사서의 도움 받은 적 있음
협력과 마케팅	도서관 어플리케이션 사용	도서관의 역할 증진과 환경 강화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
공간과 설비	별도 공간 원함	쾌적하고 콘센트가 많아 도서관이 좋으나 쉴 수 없어 불편함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람

장서와 관련하여서는 각 생애주기별로 특색이 도출되었는데, 학령기는 학습과 관련된 도서와 만화, 청장년기는 재미있는 도서, 중노년기는 생활과 관련된 서적을 원하였다.

프로그램은 학령기에는 활동과 체험위주로, 청장년기는 개인의 생활과 학습 위주로, 중노년기는 독서나 대출 위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사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대답을 하긴 했으나, 책 검색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대답으로 보아 사서가 편안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학령기에서는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생애주기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비교적 마케팅 비용이 저렴한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간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원한다고 답변하여 도서관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인보호자 FGI 및 설문 결과

(1) 장애인보호자 FGI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아래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도서관과 사서들에 대해 이미 경험한 아픔이 있는 정서가 포착되었다.

FGI에서 도출되었던 장서관련 요구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읽기 쉬운 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위한 정보도 수요가 있었는데, 자녀의 건강과 관련한 health literacy나 장애인의 이해나 정책을 알 수 있는 자원들을 요구하였다.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행동 때문에 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을 지적하시며, 도서관에도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체험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서와 관련해서는 FGI에서 여러번 아쉬움의 표현이 등장할 만큼 보호자는 사서의 인식개선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의 공간과 설비 관련하여서, 보호자들은 도서관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장소로 변화하길 원하지만 장애인이 이질적인 집단처럼 보이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2) 장애인보호자 설문 결과

200명의 장애인보호자 설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령

기에서 원하는 장서는 읽기 쉬운 도서, 그림/만화도서, 영상자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기에서는 읽기 쉬운 도서, 그림/만화도서, 큰글자도서 순, 중노년기에서는 읽기 쉬운 도서, 큰글자도서, 아날로그 녹음도서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애주기에서 공통적으로 쉬운 글 도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노년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아날로그 녹음도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적이다.

학령기에서 도서관의 프로그램 종류가 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 문화예술 순으로, 청장년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건강, 체험학습 순으로, 중노년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건강, 체험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문화프로그램과 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학령기의 보호자들은 멀티미디어실, 대면낭독실, 안내데스크 순으로 공간을 중요시하였고, 설비에서는 열람석,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순으로 중요도를 체크하였다. 청장년기의 경우는 중요 공간이 멀티미디어실, 대면낭독실, 사인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비는 열람석,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장노년기는 중요 공간이 청장년기와 동일하게 멀티미디어실, 대면낭독실, 사인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나 설비는 화장실, 계단/승강기, 세면대, 접수대/작업대 순으로 타 연령대와 사뭇 다른 패턴을 보였다.

3) 장애당사자와 보호자 조사 시사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서관에 원하는 부분을 청취한 결과 <그림 3-16>과 같은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3-16>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요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요소와 관련하여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공통 사항은 사서의 훈련과 협력/마케팅 부분이다. 사서의 인식개선과 훈련의 필요성, 발달장애인 친화 분위기 조성은 시급히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되었다.

2장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발달장애인들의 장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호자 면담에서는 장애인식과 도서관의 기본적인 마인드 개선, 시설과 설비의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한 요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품질 보다 더 시급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4 장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 4.1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 4.2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 면담
- 4.3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가 의견조사의 시사점

제4장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4.1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4.1.1 조사 개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대상은 발달장애인서비스 관련 전문가 5명, 국중 담당자, 연구진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관련 전문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학교,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프로그램 강사, 대학교원, 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실무자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발언에 참여한 아래 8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자	소속	연구자	소속
연구자A	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실무자	연구자E	특수학교 교사
연구자B	평생교육원 발달장애프로그램 강사	연구자F	대학교원
연구자C	연구진	연구자G	장애인복지관
연구자D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자	연구자H	연구진

FGI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회의실(국립중앙도서관 6층)에서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넘게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이었다.

4.1.2 조사 결과

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Q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Q2. 기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

Q3.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및 중요성

인터뷰 내용	요약
- 기존에 발달장애인 학생이나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도서관을 이용해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사서가 기관에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경험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발달장애프로그램 강사인 연구자 2는 무슨 경험이 있는지. 센터 학생들과 도서관을 갔는지. (연구자H) - 도서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음.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피치마켓에서 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은 대학생들이 하는 서비스를 하고, 필드트립이나 그런 걸로는 도서관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건 사실임. 다른 지역 사회보다는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 미술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는 많이 가 보려고 했으나 도서관을 생각하지 못했음. (연구자B) - 발달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뛰거나 행동이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하고 있고. 서울 도서관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역 안에 있는 관련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공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도서관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는 지금까지 없었음.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면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사회성을 지속 향상시킬 수 있는 자극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사회시설로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음. 도서관에 가지만 갔을 때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조용히 하라는 어쩔 수 없는 도서관의 분위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이 있음. 도서관에 가더라도 동작이 커서 눈초리를 받게 됨. 최근에는 시끄러운 도서관, 시끄러운 사업이 있으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생김. 은평에 작은 도서관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대출을 불가능하지만 책을 보러 오거나 휴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음.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에서 벗어나야 발달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 도서관을 발달 장애인들과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미비 - 도서관을 딱딱하고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 - ‘책을 읽으러 오는 곳’ 뿐만 아니라 편하게 휴식을 취하러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 한 번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 재미를 느끼고 계속적으로 참여하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함. (연구자G)

- 발달장애인도 도서관을 가고 싶은지. 또 가고 싶단 말을 하는지. (연구자C)
- 작년부터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음.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다녀오면 재미있어함. 도서관을 가 봤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재미있어하고, 한번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신청해서 함. (연구자G)
- 특수학교는 기관 특성상 개인적으로 교사가 도서관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반만 데리고 도서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현장 학습으로는 갈 수는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용해야 하고 학교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갈 수 없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서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위주로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생들이 관심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가서 혹여 라도 기물 파손이나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게 쉽지 않아서 특별히 도서관을 현장 학습으로 신청해 본 적은 없음. 학교 내에 학교 도서관이 존재. 사회나 직업생활 교과를 가르칠 때 지역 사회 시설 방문하기 로 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지만 교내에 있는 장소다 보니 그곳이 학교의 한 특별실로 생각할 뿐 일반화되어 일반 도서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움. 가사도 흔히 생각하는 규칙들(조용히 하기, 읽은 책 다시 제자리에 꽂기 등)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특수학교 친구들의 특성이라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발달장애 아이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교사가 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종교기관에서 몇몇 발달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른데 공간이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마다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이를 통솔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음 유아책을 읽어야 하는 학생은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이 괜찮아서 어른들이 읽는 공간에 있고 싶은 데 왜 자신은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 장소에 관한 문제도 조금 있었음. (연구자F)

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대처가 힘들고,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려움

- 특수학급에서 단체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의 지적수준에 따라 유아~성인책을 읽는 학생이 나뉘기 때문에 인솔에 어려움이 생기고 동급생 간의 차이를 느끼는 학생이 생기기도 함

- 학교 도서관에는 담당 선생님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사서 자격증 있는 선생님이신지 (연구자C)
- 특수학교에는 따로 사서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며 과목도 담임
이나 교과 담당선생님이나에 따라 임의로 교과가 배정되어
항상 국어선생님이 도서관을 담당하시지는 않음. 항상 변동
됨 (연구자E)
- 보통 1년이다 2년 주기로 바뀌는지 (연구자C)
- 1년 주기로 바뀜. 학교 안에서 도서관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 않기에 계속 바뀌는 것 같음. (연구자E)
-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소음의 문제 발달
장애 학생들 가끔씩 주기적으로 하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대
처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발달장애 아동이 도서관을 방
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됨. 연구자5 도서관을 가
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이 소음과 문제행동 이외에도 가보
고자 하는 생각조차 못 했는지에 대한 이유 궁금. 단순히 소
음과 문제행동이 원인이었는지 꺼려지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연구자G)
- 성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교육하는 것과 다르게
교육의 의미보다 즐거워하는 곳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소음과 행동들도 큰 문제이지만 책을 읽는 것을 정말 흥
미를 가지고 책을 보실까하는 의문이 듦. 평소에 그렇게 책
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그런 모습을 접하지 못함.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 중에 한분은 컴퓨터를 가지고 나름의 서비스를
이용, 한분은 만화책만 보시고, 한분은 어렸을 때부터 갖기에
그냥 들려서 소파에 앉아 있다 오심. 책보다는 다른 지역사
회 기반의 서비스 이용만 다니시는 것을 봄. 현장학습이나
소풍이나 그런 아웃팅으로 도서관을 생각하지 못함. (연구자
E)
- 평생교육원 발달장애 프로그램에서 책이나 독서 관련된 특화
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연구자C)
- 읽기 쉬운 책이 나와서 그런 것을 진행함. 그전에는 어려움
이 있었음. (연구자B)

- 책에 흥미를 느
끼지 못하는 발
달장애인이 많
음

- 따로 장애인들
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 수
있고 소리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하도록

-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연구자F)
-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 연구진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 정반대의 요구 공존. 공간으로서도 예를 들어 발달장애 본인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음. 도서관에 방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독립된 공간을 준비해 달라. 한쪽은 공존을 대체적으로 공간을 가지고 싶음. 진입장벽이 있어 접근성, 소음문제가 생겼을 때 등의 기존의 사서선생님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미비했음 등의 문제.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이라 어느 정도 치이다 보면 방향성이 나오는데 아직은 활성화된 것이 아니기에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와도 방향성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연구자C)
- 당사자하고 부모님의 견해도 아마 개인의 이익이나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 국가가 나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의 의견을 지원하되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끄러운 도서관이 시작된다면 본인 같은 특수교육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이 있는 시설에서 사서들이 인식을 개선하거나 도서관 자체의 그런 시끄러운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시켜서 한 구에 3~4개 아니라 여러 구에 여러 도서관들이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장애인도 장애인도 누구나 공간을 이동이 쉽게 접근을 해 주셨음 좋겠음. 시끄러운 도서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내에 몇 개의 시끄러운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음. 발달장애인이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도서관이 조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조금 왜곡 같지만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이 떠돌고 뛰기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주민센터 도서관을 가면 아이들이 떠돌고 시끄럽게 하는 데도 그러려니 함.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행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돌발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간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듯. 발달장애만 도서관을 계획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 안함. 억지로 도서관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님. 수요에 맞춰서 도서관 서비스를

- 도서관의 규칙을 풀어주어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취업

제공한다면 자꾸 이런 장애인들을 애 취급할 것인지.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데 시끄러운 도서관에서는 시끄럽게 하고 남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허용할 것인가. 주민들과 어울리려면 최소한의 자신들도 자제도 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교육하는 데 도서관은 가서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음. (연구자F)

- 국공립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함. 발달장애 서비스들이 프로그램처럼 움직여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 활동의 일반화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도서관을 풀면 연구자6이 말했던 것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도 맞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이런 경험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도 배우고 적응을 높이려면 이런 건 도서관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발달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았지 이용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었음. (연구자A)
- 도서관에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음.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듯. (연구자F)
- 요즘 도서관이 많이 생겼지만 개인적으로 밀접하지 않음. 본인도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음. 생소한 공간. 도서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발달장애인 등이 도서관을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려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세팅하면 안 될 것 같음. 일상화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연구자A)
- 평소에 이용의 측면은 고려 안함 (연구자C)
- 복지관에 있을 때 아이들과 취업을 했는데 발달상태 정리하는 것하고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음. 지인이 지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발달장애아동들의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발달장애인한테 낯선 사람이 다가가서 책을 읽어준다고 책을 읽을까하는 의문이 듦. 기본적인 측면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 장소적 접근 적으로 어려움 (연구자A)

- 도서관의 접근성 개선

- 도서관은 모두에게 어렵고, 비장애인에게도 생소함

- 발달장애인 전용 공간이 아닌 발달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 모두가 어려운 장소임. 비장애인에게도 생소한 곳. 공간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고려만 해줘도 도서관을 오시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가능할 듯. 노력이 쌓이다 보면 이용이 늘어날 듯. (연구자F)
- 발달장애인임을 밝히고 안내를 하는 순간부터 차별. 발달장애인이어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사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공간을 조성하려면 너무 낭비. 도서관 위치가 비장애인들도 가기 힘든 곳에 위치하여 모시고 갈 때 어려움을 수반함. 이용하기 어려움. 특수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가는데 이용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학교 차량을 이용해 가려고 하니 대형버스라 진입이 불가함. 접근성에서부터 너무 떨어짐. (연구자G)
- 도서관에서 발달장애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부분이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이용자가 스스로 요구를 하는 것을 떠나서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 사실 불러일으키기 어려움. (연구자C)

2)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Q4.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의/참고 사항 등 의견 제시 (시설, 공간, 장서, 콘텐츠, 인력 등의 측면에서)

인터뷰 내용	요약
•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도서관 서비스를 어떤 지원체계를 가지고 각 시군구에 있는 도서관에 도움을 줄지. 발달장애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도서관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설, 공간, 장서, 인력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구, 사서에 대한 요구가 될 수도 있고, 발달장애인이 와서	- 발달장애인이 가고 싶어하는 매력이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함

서가 정리를 도와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음. 발달장애인들이 서가정리에 참여해서 오시면 단점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서가에서 정리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도서관 직원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응대하기 힘들다는 것에서 오는 트러블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도 힘들어하고 이용자도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이 나타남. 도서관이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참고, 개선해야 하는 지. (연구자C)

-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발달장애인이 가서 재밌어하는 매력 있어야 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좋을지. 어떤 것이 있어야 자주 가고 싶어질지. (연구자G)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일상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시설이 연구의 목적. 시끄러운 도서관도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 접근성 어떻게 가야하는지 이정표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이해하기에 환경적인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함. 보편적으로 다함께 같이 이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다가 힘들다거나하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휴게공간이 있었음 좋겠음. 도서관이 프로그램 중심이라 일상적인 상황에 세팅되어 있어서 언제나 그 곳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도서관 매월 정기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용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한 사전적인 지원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용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직업으로 보조작업을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인 경우 발달장애인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 안됨. (연구자A)
- 도서관 전체가 준비되어야 함. 시설적인 것부터 인력적인 것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발달장애인이 소음을 낼 수 있지만, 개개인 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도서관 전체의 인력과 분위기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을 왔을 때 모두가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간임을 인식이 바뀐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음. (연구자F)

- 프로그램 중심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나 오픈된 공간이 부족한 듯

- 시설부터 인력까지 도서관 전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사서 뿐만 아니

- 발달장애 행동보조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다 알고 제대로 부름. 전화 상담인 업무는 배제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해하심. 어떻게 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연구자A)
- 사서 인식 교육도 매우 중요함. (연구자C)
- 사서뿐만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모든 분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안내가 되어야함. 시설적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음. (연구자F)
- 사서나 도서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의 숙제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을 위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오는데 복지 장애인 센터 등은 수요자의 계층이 확실한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서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를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소원할 수 없음. 비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고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버림. (연구자C)
-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장애인들도 상황을 이해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해결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실현하지 않음. (연구자F)
-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두 계층이 싸움.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민원이 다르니. 사서들은 굉장히 노력해야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함. 할 수 없는 실정임. (연구자C)
- 계속 노출되어야 함. 불편해도 가서 이야기하고 시끄러워도 가야 한다고 생각함.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복지관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립과 연계해서 진행하기 위해 직접 요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 계속 얘기를 해야 함. 발달장애인 도서관도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해야 함.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작은 도서관끼리 연계된 네트워크도 있고 활성화 되어 잘 정착되어 자리 잡고 공동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는데 구립도서관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 구립과

**라 도서관 이용
자 전원이 발달
장애인을 이해
해야 함**

**- 비장애인의 민
원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이용
자가 계속적으
로 노력해야 한
다고 생각**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불편
함에 계속 노출
되어야 함**

같이 하기에는 어렵고 장벽이 높음. 접근성도 떨어지고 잘 모르고 그러니 작은 도서관과 연계를 하고 있음.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작은 도서관이 더 쉬울 것 같음. 여러 곳이 있고 집 주변 가까이에 존재함.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데 작은 도서관 별로 존재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느 작은 도서관들을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좋았음. 구립도서관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도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모시고 갔을 때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책도 있고 대출반납도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을 못함.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8자리 이상을 영어로 되어 있고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할 수가 없음. 담당자가 10분을 모시고 가서 10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적어서 도서관에 가지고 가서 하면 안됨. 그분들도 열심히 갔는데 본인인증으로 핸드폰을 사용해야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인증을 보호자가 다 서포트해줘야 함. 가입할 수 없음.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왔음. 회원가입 절차에 본인인증을 하는지 알겠으나 이런 단순한 회원가입 조차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연구자F)

-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도서관 이용을 위한 문턱이 높음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절차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어봄. 시끄러운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도서관 관계자 분들과 나눠봤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되게 어렵다고 함. 그것을 반드시 핸드폰으로만 인증을 해야 하는데 자필로만으로도 하나의 서명만 해주어도 종이를 내밀면 해줄 수 없겠냐 했더니 그것이 안 된다고 함. 회원가입조차 안 되는 데 발달장애인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옴. (연구자H)
-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연구자C)

- 발달장애인분들은 핸드폰이 반드시 본인의 명의인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에 어려운 절차가 있을 수도 있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함. (연구자H)
- 지문인식이거나 생체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요즘은 손가락 되면 다 됨. (연구자A)

3)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Q5.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소속기관과의 협력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	요약
• 예절, 기본 예의에 관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달에 한번 정도 워크샵처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함. 그것을 할 때 그분들이 가야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음. 협조와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지려면 현재는 이용이 줄었다는 것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연구자H) •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함. 3년 동안 도서관에 굉장히 작은 일인데 도서관 혼자 하지 않고 구립도서관과 같이 진행하는데 1년에 4-5회 길면 10회 잡고 단기간 프로그램이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려는 노력도 함. 그러한 것들로 구립도서관에서도 서로에 관한 관심도 갖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함. (연구자G) •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협업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닐까함. 도서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해서 이후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협조를 쉽게 해줄 것인가. (연구자H) • 국립도서관이어서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화하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음. 관리해주는 팀만 있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본인들도 갖게 되는 것. 개인적 반응 또한도 중요할 것 같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장애복지관이나 평생교육	- 발달장애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을 현장학습 장소로 방문. 도서관은 그렇지 않음.

원보다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구자A)

- 학교에서는 어떤지 (연구자H)
- 학교에서는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장학습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마구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으로 감. 어린이박물관 가본 적 있는데 체험 위주로 되어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음. 다른 분들도 아이들을 데려온 곳이어서 박물관이 마냥 조용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이용하기가 좋았음. 영화관 이용할 때는 영화관을 대관함. 통합하여서 보면 좋지만 아이들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되니까. 만약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면 접근성이라 함 미성을 유발하는, 책이 지루하지 않은 방향으로 접근을 부탁. 도서관 책 대여와 반납 외에 다른 서비스가 있었으면 더 도서관을 이용하기 좋아하지 않을까? 책=도서관이라는 색이 강하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지루해할 것임 (연구자E)
- 공공도서관 이용도 중요하지만 학교 도서관 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이 힘들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파견직을 잘 하는데 항상 하진 않지만 사서분들이 도움을 드림. 파견사업이 되면 이루어질까 (연구자C)
- 사서분이 추천하는 도서목록은 매달 받고 있음(외부사서). 책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년 초에 1년치 책 주문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음. 예산도 한정적이고 신간 도서를 사는 것이 어려움. 사운드북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혹은 촉각 도서를 사용하는데 촉각 도서도 유아 적합한 것들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가끔 구립도서관에서 동화구연 해주시는 분 초청해서 이벤트처럼 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활동하는데 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연극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함 그러나 일회성에 그쳐서 아쉬웠고 바라는 것은 자유학기제 안에 도서관에서 일회성이 아닌 전문 강사 파견해주셔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시간표에 강사님이 오셔서 다른 콘텐츠들을 제공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음 (연구자F)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책이 지루하지 않도록 접근성과 흥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책을 좋아하지 않는 발달장애인들도 고려할 것 (동화 구연, 연극, 인형극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 도서관을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중. 하지만 반응이 별로 없었음. 지금 자원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것 같음. 도서관이 열람실 위주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단계여서 경험에 의해 하나씩 깨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도서관에 관심이 생겨날까를 이야기 해보고 싶음 (연구자E)
- 은평구립도서관 메일로 봄. 꼭 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했으면 좋겠음. (연구자G)
- 도서관 통해서 복지관 연계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중. 공공도서관의 연결고리 짓는 것을 작은 도서관 내나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자E)
- 다른 특수학교의 현직교사님들께 자문을 구했었는데 학교버스가 와서 학생들이 무서워 함. 그러나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좋아함. (연구자F)
- 국립도서관 안에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버스를 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함. 도서관이 친숙한 곳이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반응을 느끼게 한다면 가능할 듯. 도서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에 대한 밀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여주면 좋을 것 같음. 도서관에 대한 부모와 교사가 기본적인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야할 것 같음. (연구자A)
- 도서관 분위기를 변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음.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 개선 외에는 없는지. (연구자C)
- 공간대여 프로그램은 어떤지. 라디오 스튜디오를 이요하고 있는데 자주 그 공간을 사용하니 그 공간이 친숙해짐.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의 창작 전시를 진행 중.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전시하고자 했음. 워크숍도 도서관에서 진행했음. 책갈피를 만든다던지를 함. 사서들에게는 사실 귀찮을 수 있음. 책 말고 다른 코드로 접근했으면 좋을 듯. 프로그램명에 ‘독

- 도서관의 공간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 수 있음

- ‘책’, ‘독서’ 등의 단어를 배제하여 도서관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서’, ‘책’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 부담이 줄어들텐 것 같음.
다른 활동이 메인이고 후에 독서를 하는 등 (연구자G)

- 공간대여. 친구가 없는 사회적 고립이 성인들에게 문제인데, 성인 프로그램은 또래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음. 출석률도 좋은 편. 그런데 항상 장소가 문제. 동네친구와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연구자B)
-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도서관과 어울리는지. 지역사회 속에 친숙한 도서관, 인식 개선을 위해 도서관이 찾아갈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을 듯. 우리가 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좋을 듯. 책의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드나드는 공간, 도서관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연구자H)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있는지? (연구자C)
- 문화 프로그램 안에 도서관 견학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자D)
- 도서관 견학이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멋진 노력과 파급을 기대하자. 찾아가는 도서관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런 양적인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뿐. 과거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꽃동네를 반대했음. 전문가가 반대하는 것을 결국 진행하게 되어 비리가 가득한 곳이 되었음. 도서관도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봐주었으면. 혜택을 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등한 관점으로 대해 주길 원함. 활동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님.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노력은 더 직접적으로 했으면. (연구자F)
-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연구자C)
- 관점이 계속 다른 것 같음. 프로그램이 아니라 통합이 목적이 되어야 함. 지원만 되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지원의 형태만 잘 정해지면 됨. 여기서는 그동안과는 달랐으면 좋겠음.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어디서나 똑같이 나오는 말임. (연구자A)

- 모두가 하고, 늘 똑같은 장애인 프로그램이 아닌, 대등한 관점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활동을 만들어야 함

-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실현되는 서비스나 지원, 인식이 필요

-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하는 것부터가 시작

- 식사가 맛있어서 도서관에 온다는 사람도 있음. 특수학급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음. 장애인은 다양함.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편하게 생각함. 따로 발달장애인을 모아서 뭘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 말길. 이 연구는 다른 곳과 달랐으면 좋겠음. (연구자F)
- 현재도 말씀하신 내용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없음. 홍보가 안된 것 같음. (연구자D)
- 해당 내용을 모르니까 없는 듯.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 (연구자F)
- 타겟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연구자G)
-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사항은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국립도서관의 운영하는 것을 이어가서 진행할 수 있을지.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잘 이어받지 못할지도. (연구자D)
- 상황에 따라 지원의 형태가 달라져도 됨. 연구자와 전문가의 관점이 다름. 연구자는 무엇인가 해주려고 함. 그러지 않아도 됨. (연구자A)
- 시끄러운 도서관 사서 입장은 뭔가 잘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발달장애인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이용하길 원함. '이 공간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만 있어도 자연스러운 이용이 가능할 듯. 문구 하나, 스티커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경쓰길. (연구자H)
- 장애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인식을 사서가 갖도록. 현재 자원 중에 지원 가능한 게 뭔지 고민하도록 했으면. 일단 시행해 보고, 경험을 해서 수정해 나가면 됨. (연구자A)
- 프로그램 중심 솔루션은 아님. 그런 부분은 일부일뿐. 통합프로그램을 말한 이유는,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성을 가진 곳이므로. (연구자C)
- 도서관이 느린 것.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이 어렵긴 함. (연구자F)
- 발달장애 관련 책(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부족한데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의 위한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참여를 저해하는 지원이 문제. (연구자A)

- 도서관이 특별하지 않다는 작고 사소한 계기가 부족해 보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다양함. (연구자G)
- 어느 기관에서 주로 진행하는지. (연구자C)
- 복지관이나 평생교육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이 있음. (연구자G)
- 쇼핑센터에도 있음. 그분들은 복지관, 이마트 같은 곳에서 하는게 도서관에도 있네? 똑같은 곳이네? 하는 생각이 들 듯.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됨. (연구자H)
-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도 이용하기 불편할 듯. (연구자A)
- 이용자에게 불친절 (연구자F)
- 이러한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자A)
-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연구자G)

4.2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 면담

4.2.1 조사 개요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사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있는 사서 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면담조사는 2019년 9월 11일(수)부터 9월 18일(금)까지 전화면담 방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보다 상세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자치구 중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며,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평구, 서대문구, 송파구 공공도서관의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2.2 조사 결과

1) 소속 도서관 이용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

Q1. 발달장애인의 시설관련 요구사항	
조사 결과	요약
- 도서관 내 문턱 제거와 서가 및 책상 모서리로부터의 안전 장치 마련. 도서관 내 용어나 안내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쉬운 글로 대체한 도서관 이용 안내가 필요. 비장애인 이용자들이나 도서관 직원들의 시선으로 인해 생긴 도서관 이용을 향한 발달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희망 (사서1) - 신체적 장애가 아닌 인지적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상 그에 맞는 독서수준을 고려하여 KDC 분류의 쉬운 표시 요구 (사서2)	- 문턱 제거 및 안전 장치 마련 필요 - 도서관 내 용어에 대한 쉬운 글 대체 필요 -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한 맞

• 명확한 남/여 화장실 구분을 위한 화장실 안내 개선이 필요. 회원 가입에 대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 어려워 시설 자체를 최초 이용하는데 장벽 존재. 장애인을 위한 열람실 내 배려석은 존재하지만, 휴게실 및 휴게 좌석은 부재. 자료실 내 안내문 및 데스크 표시가 매우 작아 식별에 어려움.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오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방문의 어려움 호소 (사서3)	춤 안내 필요 - 안내 표시 개선 필요 - 협소한 주차 공간 개선
---	---

Q2. 발달장애인의 공간관련 요구사항	
조사 결과	요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통합적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 존재. 방음장치 및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뛰어다니거나 누울 수 있는 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 희망. 낭독실 설치 또는 낭독 프로그램 개설 요구 • 방음 장치 설치 및 기존 도서관의 틀을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설치 요구 (사서1)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필요 (사서2) • 서가 및 책상 간격이 좁아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 호소 • 자료실과 열람실이 공존하고, 시설 전체가 개방형의 소리가 울리는 구조로 되어있어 작은 소리에도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소음을 듣고 흥분하기 쉬움. 휴게실 및 북카페 등 휴게공간에서도 '정숙'이 요구되고 있어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흥분한 자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 DVD석이 컴퓨터실 내 개방적 구조로 되어 있어 웃음소리와 기타 소리가 외부로 나가 불편. 항상 블라인드가 쳐져있어 답답하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에 도서관 주요 공간 내 충분한 창가 개방 필요 (사서3)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공간 마련 필요 -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 필요 - 좁은 서가 및 책상 간격 개선 필요 - 소음 허용 수준에 대한 개선 필요 - 충분한 창가 개방 필요

Q3. 발달장애인의 장서관련 요구사항	
조사 결과	요약
• 영상·소리·전자 도서와 쉬운 책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	- 충분한 대체자

영한 도서 구비 및 대체자료 개발 요구. 특수학교 선생님과 사서들이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연령대에 맞는 추천 도서 목록 및 독서 프로그램, 쉬운 글 제작 요청 (사서1) NFC 음성도서, 촉감 도서, 읽기 쉬운 도서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대체자료는 잘 구비가 되어있으나 보호자와 부모를 위한 ADHD, 틱장애, 강박증, 언어발달, 신체발달, 난독증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 도서의 부족.(사서3)	료와 쉬운 책 구비 및 제작 요청. 발달장애 관련 도서의 부족 문제 해결 필요
Q4. 발달장애인의 인력관련 요구사항	
조사 결과	요약
-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공 희망. 느린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사서들이 직접 맞춤 도서관 이용 교육 진행 요구. 별도 서가 공간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맞는 도서 추천 목록 제공 희망. 인지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도서 및 자료 구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요구.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정보 활용 도움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사서 배치 희망 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이 있고 돌발적 행동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서 희망 (사서1) -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도서관에서 근로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그들에게 장서 위치나 이용방법을 묻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 이에 응대 미흡이나 무응대로 민원이 발생하여 도서관 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내문 부착 요구. 또한, 견학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견학 시설입니다’ 등 기관에서 홍보물 및 안내문에 기입해 달라는 의견 존재 (사서3)	-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한 사서들의 서비스 제공 필요 - 연령대 별 추천 도서 목록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요구 - 발달장애인 전담 사서 배치 요구 - 도서관 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내 필요

2)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Q1.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		
	조사 결과	요약
도서관 측면	느린 학습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사서, 관련 기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외부 사업비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사서1) • 도서관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식정보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지역공동체로서의 도서관 역할 제고 (사서2) • 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평등한 독서환경 조성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의 역할 수행. 도서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발굴과 이용자로의 포용. 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대상 다각화로 새로운 경험 축적. 지역 내 유관기관 발굴과 협업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협력체계 마련. 기관 견학 및 이용자 증대로 독서환경 저변 확대. 느린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사서3)	- 평등한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 - 이용자 증대 - 새로운 경험 축적 및 콘텐츠 마련 -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장애인 측면	• 발달장애인의 연령대에 맞는 주제와 자료로 운영되는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받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제약 없이 이용 (사서1) •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긍정적 반응. 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편향된 독서습관 교정 및 생각하는 사고 습득.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사서2) • ‘정숙’이라는 규범과 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서관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이용 시설로 인지. 도서관 시설에서 여러 체험과 정보 획득 가능. 보호자와 함께 흥미로운 문화 체험 콘텐츠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시설이 됨 (사서3)	-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독서 습관 교정 및 사고력, 의사표현 능력 향상 - 도서관에 대한 거부감 해소 - 다양한 문화 체험과 정보 획득 가능
Q2.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통해 얻은 부정적 결과		
	조사 결과	요약
도서관	• 도서관에서는 정숙을 요구하는 기존 이용자들이	- 소음 관련 민원

측면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 농후 (사서1) • 타 발달장애인 보호기관 및 교육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강연회를 도서관에서까지 교육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표시. 너무 많은 취약계층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 이용자를 위한 동일한 서비스 요구 발생 (사서3)	제기 - 비장애인으로부터의 역차별 주장 -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 발생
장애인 측면	•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친숙한 존재로 느끼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도중 예산 부족이나 지원 중단 등으로 프로그램이 단발성 진행이 될 경우 혼란스러움과 실망을 경험 (사서1) • 복지관과 강사의 소통이 필요 (사서2) • 발달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홍보와 문구 노출에 대한 우려. 과잉 친절과 안내에 대한 부담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홍보를 보고 방문하였으나, 불편한 주차공간으로 이용 자체가 어렵고 특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재 (사서3)	-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실망감 - 발달장애인에 대한 과한 홍보나 친절에 대한 부담

Q3.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조사 결과	요약
	•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불신이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장애 인식 교육 진행 및 돌발 상황 대처나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전담사서 배치.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 (사서1) • 복지관과 강사와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 마련(사서2)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에는 대다수 보호자 및 활동보조원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 다른 보호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하고 도서관 자체 콘텐츠와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홍보는 비장애인들에게 역차별로 비칠 수 있음. 협력기관이 협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 사업과 연계한 발전 비전 보여주어야	- 전 직원 대상 장애 인식 교육진행 및 발달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위한 지원 필요 - 도서관 자체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과도한 발달장애인 특화 서비스 자체 및 비장애

함. 발달장애인은 시끄럽다는 인식으로 특별한 대우와 공간을 마련할 경우 비장애인과 당사자 모두에게 외면 받을 수 있음.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보다 일반 아동들이 오히려 소란스러운 경우가 있기에 도서관이 민원 문제로 소극적일 필요 없음.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진행시 인지능력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므로 해당 대상 명확화를 통해 진행 (사서3)	인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협력 기관에 도서관 사업과 연계한 발전 비전 제시 필요
--	--

3) 홍보/협력 방안

Q1.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 효과적인 홍보방안	
조사 결과	요약
• 복지관이나 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하나 학부모 모임 등에서 운영 중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 홍보. 발달장애인 또래들이나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에 보다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사서1) • 지역 내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사서2) • 기관을 통한 홍보 협조로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홍보 가능.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홍보. 인터넷 카페 및 모임을 통한 홍보. 홍보 동영상 및 보도 자료 노출로 서비스 홍보. 관내 게시물을 통한 홍보 (사서3)	- 발달장애인 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 관내 게시물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Q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 협업체 선정과 협업 방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및 기관 협력 시 관련 고려 사항	
조사 결과	요약
• 장애인 종합 복지관, 특수학교 등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곳과의 교류 진행 중이며,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방식 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필요. 도서관 선정의 경우 사서와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연령대별 도서 수준이 다르므로 협업을 통한 연령대별 도서 제공 목록 작성 필요 (사서1)	-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 협업 요청시 관계 발전 가능성 제시 및 업무 협력의

• 지역 내 복지관과 업무 협의, 기관과의 소통, 업무 협력의 내용 명확화 (사서2) • 취약 계층에 대한 사업 운영 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업과 우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나, 해당 기관들은 초기 관계 요청시 매우 보수적이며 방어적 자세를 취함을 고려. 다양한 시설에서 지원과 협업을 요구하고 단기 사업 성과 만을 도출하고 홍보 및 대외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함. 구청 및 임직원 등 관리자 등의 사전 협의가 없이 담당자가 관계 맺기와 협업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열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 및 자치구내 협조가 필요. 해당 기관의 실무자는 도서관 담당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기 때문에 업무 지속이 가능한 직원이 담당해야 함.(사서3)	내용 명확화 필요 - 협업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 및 자치구내 협조 필요 - 기관과의 소통 및 우호적 관계 유지 중요 - 기관 협력시 담당 직원은 근속이 가능해야 함을 고려
--	---

4) 서비스 고려사항과 자유의견

Q1.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중요도

5.매우 중요하다 4.중요하다 3.보통이다 2.중요하지 않다 1.전혀 중요하지 않다

구분	프로그램	중요도				
		5	4	3	2	1
접근성	도서관과의 거리, 교통의 편의성	3.67				
	도서관 운영시간	3.33				
시설/ 설비	열람실내 장애인이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	4.33				
	소음이나 문제행동 포용 가능한 공간	4.33				
	휴게 공간과 시설	4.33				
	공간이나 서가 이용	3.67				
자료	필요한 자료 구비	3.67				
	전자자료 구비	3.67				
서비스/ 프로그램	장애인 맞춤서비스	3.67				
	자료 찾거나 정보서비스	4.33				
	정보서비스 홍보나 교육	4				
	통합 도서관 프로그램	2.67				
	도서관 프로그램 신청 방법	3.33				
이용자 /사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	5				
	직원과 의사소통	4.67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4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	4.67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4				
홍보	홍보 전략	4				
	기관 제휴	4				

Q2. 조언 및 자유의견

조사 결과	요약
• 유관기관, 장애학교 및 학부모님들이 도서관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으나 각자의 이익이 다르다보니 오해하는 부분도 존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공론장 등에서 사업 진행 방향 공유 및 충분한 소통 필요. 사서 혼자서 공간구성이나 서비스 개선 부분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서관 이용자들 민원 발생 시 도서관 직원, 관장,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구청 직원 등 많은 이의 도움 필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과정 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수를 늘려 발달장애-경계성 지능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우려는 노력 필요. 책을 찾는 방법, 반납 방법, 자리 찾는 방법, 정리 방법 등이 순서대로 적혀있는 안내문 필요 (사서1) •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기회 증가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사서2) • 발달장애인 사업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과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발달장애인은 뛰어다닐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마련과 같이 특별한 대우, 역차별적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며 도서관에서 '정숙'이라는 규범과 문화를 습득하면서 비장애인이 받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길 희망. 따라서 특별한 사업이 아닌 도서관 기존의 서비스 참여 기회와 지속적 이용 방법의 교육 필요.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인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사서3)	- 사업 진행시 충분한 사업 진행 방향 공유 및 소통 필요 - 서비스 개선과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서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우 보다는 평등한 서비스 참여 기회와 지속적 이용 방법의 교육 제공 필요

4.3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가 의견조사의 시사점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면담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1)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인터뷰

첫째,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큰 인식 변화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을 딱딱하고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책을 읽으러 오는 곳’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인식개선을 위해 우선 발달장애인 전용 공간이 아닌 발달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경험자가 재미를 느끼고 계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경험의 접점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도서관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으며 지적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도서관은 운영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대처가 힘들고,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둘째, 전문가들은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식 개선, 접근성 개선과 함께 흥미요소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도서관은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실현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비장애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회원가입 등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수정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책이 지루하지 않도록 접근성과 흥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셋째, 추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달장애의 특성상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서관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도서관은 비단 발달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 아동,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장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열린 프로그램 제공시 봉사자를 채용하여 누구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2) 발달장애인 담당사서 면담

첫째, 발달장애인 대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접한 장애인의 주요 요구사항은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공간을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독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사서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사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 근무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도서관과 장애인이용자 모두에게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부정적 요소보다는 기대되는 긍정적 요소가 더욱 많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평등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사고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었다. 반면 도서관 입장에서 소음 관련 민원 등 비장애인과의 갈등 요소는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되었다.

셋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도서관 직원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단기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장기 프로그램의 제공, 비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 기획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발달장애인 서비스 요소에 대한 사서 중요도 인식조사에서는 직원과의 의사소통(4.67), 도서관 직원의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4.67)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도서관 사서의 인식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를 드러냈다.

제 5장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5.1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5.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5.3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개선방안

제5장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5.1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과 장애인당사자 인터뷰, 학부모 인터뷰, 보호자 설문, 사서인터뷰와 전문가 FGI의 의견을 통합하여 각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도서관 서비스 모델의 최종 목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서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서비스기관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이 아닌, 발달장애인도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도달점이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서관과 발달장애인이 서로를 알아가고 적응하는 단계를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에 처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시기와 프로그램의 성숙정도에 따라 도입기, 발전기, 안정기로 나누어,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순서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발달장애는 비교적 조기진단이 어렵고 조기개입이 곤란하여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만0~5세)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문정보와 양육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에서 관련 자원 목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복지부 사업에 대해 정보를 연계한다.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시 정밀검사 지원 사업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계획
- ‘발달장애 조기개입에 대한 국가 표준안(2019년 예정, 가이드라인)’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이나 자조모임

특히 도서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서관은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안내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 학령기

(1) 현황 및 필요성

-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만 6세부터 17세에 이르는 시기를 이르며,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성인 전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8년 정부는 교육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였다 (관계부처합동, 2018).
- 본 연구에서 학령기 이용자들은 타 생애주기 이용자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이용비율이 42.5%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학령기의 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이나 독서가 친근하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적인 문해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추진 방향

도입기 도서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문턱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발전기에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진로 등 미래를 위한 설계와 사회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안정기에는 학령기 이용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체의 선진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3) 추진 전략

	장서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형태	
도입기	읽기 쉬운 도서, 대체 도서, 촉각 장난감	- 감각적인 스토리타임(Sensory Storytime) - 예술문화프로그램	-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 체험학습	-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 리소스가이드
발전기	영상자료, 그림/만화 도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 - 사회화프로그램	- 1:1 맞춤형 프로그램 -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프로그램	도서관 시설, 공간 이용 서비스
안정기	멀티미디어 (로봇 등)	- 디지털을 활용한 감각적인 스토리타임(Digital Sensory Storytime)	통합형 프로그램	복합문화공간

가. 도입기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 커뮤니티가 도서관이 친근한 곳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① 장서

장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의 수요도 높으면서 동시에 타 이용 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읽기 쉬운 도서와 대체도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 쉬운 도서는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나 다른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편익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수집한다. 조작교구는 추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초등 학령기에 구체적인 모형을 가지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조작교구는 독서의 다양한 면을 소개할 수 있어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자원이다.

- 기존사례: 피치마켓의 읽기 쉬운 책

생활연령과 인지능력에 맞게 내용과 디자인을 재구성한 도서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쉽고 간결한 표현이 그 특징이다. 사건에 대해 배경과 부연설명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며 글의 길이가 짧은 편이다. 최근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수필, 문서, 정책 정보나 안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읽기 쉬운 책들이 보급되고 있다.

피치마켓은 세계명작, 청소년필독서, 자기계발서 등과 같은 읽기 쉬운 도서와 정책자료, 공공문서, 안내홍보물과 같은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더불어 역사, 과학, 사회의 학습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거나 뉴스, 취업, 실생활 학습자료 등 이해하기 쉬운 학습 정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5-1> 피치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읽기 쉬운 책

(*출처: <https://www.peachmarket.kr/%eb%8f%84%ec%84%9c%eb%aa%a9%eb%a1%9d/>)

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기, 장기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은 발달장애이용자를 위한 장서 정책을 포함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프로그램 분야

이 시기에는 도서관을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성장기에 있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하여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독서와 다채로운 경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유아동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인 스토리타임에 감각적인 자극과 활동을 더한 ‘감각적인 스토리타임(Sensory Storytimes)’을 발달장애 교육 전문가와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각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

라 움직임, 촉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Tulsa City 도서관의 프로그램처럼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거나,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Oscoda County 도서관의 SENSEation Story Time처럼 청소년들과 공예 등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 기존사례: 미국 Seaside 공공도서관

미국 Seaside 공공도서관은 선진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Seonsory Storytiems 을 도입하였으며, 스토리 타임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① 환영하는 노래
- ② (시각적인 시간표를 소개하여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지 알려줌)
- ③ 플란넬 보드에 적은 이야기
- ④ 스카프를 이용한 노래부르기
- ⑤ 미스터리 박스
- ⑥ 돌멩이 스프를 위한 개인 도구를 가지고 구연동화
- ⑦ 노래-흔들기
- ⑧ 이야기나 노래 하나 더
- ⑨ 색칠이나 간단한 만들기
- ⑩ 마무리



<그림 5-2> 시각적인 시간표

(*출처: Moberg, E. (2013). *Sensory Storytimes*. Paper presented at the 2013 WLA/OLA Conference, Vancouver, WA .Retrieved from https://www.wla.org/assets/Conference/Handouts/upload/sensory%20storytimes%20ola%20wla%20conference_1.pdf)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평생학습이용율과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서 학령기 장애인들의 보호자는 장애인을 위한 마술공연, 평생교육강좌, 성교육 프로젝트 등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 프로그램 형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기는 하나 여러 방해요인으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또한 사서와 지역 공동체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성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한다.

- 기존사례: Tulsa City-County Library

Tulsa City-County 도서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TCCL 감각 프로그래밍 계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부모, 전문 교육자, 치료사 등과 만나 감각 교육프로그램을 세부화 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위원회는 파일럿 프로그램, 자원 목록, 방법 안내, 샘플 일정과 시각화된 안내판 등 프로그램 도구를 우선 제작하였다. The Autism Center of Tulsa라는 기관과는 비단 이용자 모집뿐만 아니라 개발초기부터 협력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해당 연령대는 행동적 단계로 직접적이거나 극화된 경험으로 교재의 내용을 보여주어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물건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도서관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서비스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에 방문하였을 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의 대출과 반납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이용자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가족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용법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발전기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익숙해지는 시기인 발전기는 흥미유발 프로그램과 함께 발달장애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장서

영상자료는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DVD 등 시간의 압축과 확장이 가능한 자원이다.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공간의 축소와 확장이 가능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 생활, 흥미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장서이다. 특히 영상자료는 특정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책이나 만화도서 역시 장애 당사자 인터뷰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종류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림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발달장애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독서력을 높일 수 있는 장서이다. 만화도서는 최근 역사, 과학, 위인, 지리, 소설 등의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휘 수준도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어 다각도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분야

현 교육과정은 학령기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비단 미래설계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보호자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아래 예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설계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 기존사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 프로그램-Future Planning 미리미리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발달 장애인 부모 16명을 대상으로 1:1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 학생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켰다.

장애학생을 지역 사회에서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전문가 교육, 평생 설계 수립 워크숍,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기관 견학, 동료 상담, 심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운영 결과 부모님들은 평생 설계 필요성을 느끼고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모 혼자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동료 지원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를 위해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와 ‘평생 설계서’를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발전기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기존사례: Improve your Social Life, The Albert Wisner Public Library (Warwick, NY)

‘Improve your Social Life’는 프로그램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지닌 청소년의 사회화를 돕는 일련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도서관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는데 독서 그룹을 형성하거나 아트프로젝트와 보드게임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에티켓 강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③ 프로그램 형태

프로그램의 형태는 가급적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신체가 급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발달장애는 특히 복합적인 장애 양상이 두드러지고 도전적 행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에 맞추는 정보 제공과 독서지도가 필요하다. 아래는 브루클린 도서관의 사례이며, 브루클린 도서관은 5~6년 정도의 장애아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존사례: Navigating Your Child's Disability: One to One Assistance
(뉴욕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은 장애 학생들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의 장애 특성을 파악한 뒤,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특정 장애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④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발전기에는 도서관 이용 안내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학령기 발달장애인들의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일반 이용자와 발달장애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기존사례: Sensory Strategy Space (2019), Louisville Public Library
Discovery Center

Sensory Strategy Space는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균형 붐, 음악진동 의자, 촉각 감지 벽과 같은 상호작용 공간과 부드러운 색과 희미한 빛으로 채워진 공간을 만들었다. 사서들은 발달장애인과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를 가진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초기 치매 환자, 어린이를 포함하여 요가 등을 이용하는 성인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다. 안정기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 방안연구’(2019)에 의하면 발달장애 학생들은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39.1%),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32.2%)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이 발달장애인들에게 포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관심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데, 안정기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① 장서

발달장애학생들의 인터뷰와 기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활용빈도가 높고, 자료를 찾을 때 스마트 기기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안정기의 장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iPad와 같은 태블릿, 각종 대체도서, 로봇 등이 보고되었다.

- 기존사례: Diversity and Inclusion: Robotic Librarians Help Autistic Patrons, Longmont (CO) Public Library (LPL)

Longmont 공공도서관에서는 자폐증을 지닌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Bibli라는 로봇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Longmont 도서관에서는 소음 제거 헤드폰, 발달장애이용장난감, 자폐아동을 위한 앱이 포함 된 iPad와 스페인어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고 훈련된 자원 봉사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프로그램 분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도입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적응력을 늘릴 수 있도록 안정기 프로그램의 분야로 디지털을 활용한 감각적인 스토리타임(Digital Sensory Storytime)을 제안한다. 전자책, DVD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며, 감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기존사례: Digital Sensory Storytime, Oakstone Academy

오하이오주립도서관과 Oakstone Academy는 자폐를 가진 학생들에게 iPad의 대화형 전자책을 활용하자 전통적인 방법보다 책에 대한 이해도가 21~25% 상승하였다. Digital Sensory Storytime을 통해 감각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고, 풍부한 리소스가이드를 제공하였다.

③ 프로그램 형태

안정기의 도서관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전기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장애의 유무나 연령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기존사례: games4kalk- 독일 쾰른 시에 개관한 쾰른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 Köln)

독일 쾰른 시립도서관에서는 "games4kalk"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 게임을 즐기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3세대가 한 팀이 되어 게임에 참가하여 세대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거나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을 구별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④ 서비스

궁극적으로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애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해력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학습의 기회를 갖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장년기

(1) 현황 및 필요성

-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은 학교 졸업 이후 사회 복지에서 제외되고 낮시간 지역사회 활동이나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국가정책은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관계부처합동, 2018).

- 본 연구에서 청장년기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은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추진 방향

도입기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장년기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배움의 공백을 메꾸고 일상생활을 위한 문해교육과 직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기에는 큰 글자 도서와 촉각도서 등을 보급하며 건강, ICT,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정리하여 배포한다.

안정기는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제공하며 차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추진 전략

	장서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형태	
도입기	읽기 쉬운 도서, 그림/만화 도서	- 일상생활을 위한 문해교육 - 직업관련내용	-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 아웃리치서비스
발전기	큰 글자 도서, 촉각도서	- 건강 관련 프로그램 - ICT교육 - 문화예술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회 - 체험학습	- 리소스가이드
안정기	영상자료, e-book/ e-audio	- 자립생활교육 -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 1:1맞춤형 프로그램 - 통합형프로그램	- 복합문화공간

가. 도입기

청장년기의 발달장애인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학령기보다 적고, 학교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은 도입기에 청장년기의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서

장서는 학령기의 도입기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은 가장 시급하게 읽기 쉬운 도서를 우선 수집한다. 또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법령, 세금, 자산관리 등 사회화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만화로 된 도서를 충분히 입수하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 분야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 교육은 자립생활 기술 습득, 직업훈련과 태도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발

달장애인들의 80.5%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1위는 ‘개인생활역량(위생, 정리정돈, 위험 대처, 성 의식 등) 강화 프로그램’ (25.4%)인 점을 근거로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생활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③ 프로그램 형태

발달장애를 가진 청장년기의 이용자들은 서비스 초기에 스스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고, 도서관은 발달장애인들의 요구조사와 상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서관은 이용자를 꼼꼼히 연구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사례: 콜로라도주의 Adams 카운티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복지기관과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였으며, 사서가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양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서비스

기존에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은 도서관의 방문이 적은 편이므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사례: 2015년 인천 율목도서관

2015년 율목도서관은 인턴 보조기구센터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대여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사서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성인 프로그램에서는 정서 안정이 필요한 소수의 근로자에게 책읽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하였다. 순회문고와 단체대출 서비스인 ‘율목 북투게더’도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 발전기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자연스러워지는 시기인 발전기에는 도서관이 건강, ICT,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작은 사회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공한다.

① 장서

본 연구의 설문에서 청장년기 발달장애인들은 큰글자도서를 선호하는 장서 형태 3위로 꼽았다. 큰글자도서는 단순히 문자의 크기만 키운 책이 아니라 문자의 모양, 행간, 도서의 판형 등을 저시력자와 노인을 위해 재디자인한 도서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도서에 다가가기 위함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글자도서를 도서관 서비스 발전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은 감각통합기능과 비례한다는 연구(박주연, 박재국 & 김영미 2012)가 발표되어 발달장애인들의 감각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일상생활의 영속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조절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도서관은 점자를 포함한 촉각도서를 구비하여 장애이용자들의 감각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프로그램 분야

청장년기의 발달장애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활동(요가, 노르딕워킹 등)이나 검진방법, 병원 활용 등에 대한 의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에 대한 훈련도 꾸준히 제공해야한다. Mac이나 개인용 컴퓨터에는 돋보기, TTS 엔진, 스크린 리더, 받아쓰기 기능, 두꺼운 커서, 화상 통화, 자막, 사전, 단어 완성 등을 포함한 많은 접근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발달장애인들이 활용교육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비장애인과의 장벽을 낮게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이 시기의 장애인들은 또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급속히 단절되므로, 도서관에서 이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꾸준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 기존사례: Project A+_Serving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Academic Library (2019)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YouTube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 YouTube는 자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떠올랐다.

사서들은 iBook을 사용하여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나만의 관심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사진 갤러리, 만화나 저널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도구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Pinterest는 사용자가 가상 스크랩북을 만들어 발달장애인들이 관심 있는 이미지를 찾고 수집 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이미지를 소스에 자동으로 연결 할 수 있다.

- 기존사례: Identifor Companion 어플리케이션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폐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독립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유명한 앱의 한 예는 Identifor Companion이다.

이 앱에는 개인의 관심사와 요구를 식별하고 하루 종일 자폐증 스펙트럼을 가진 이용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bby라는 가상 비서가 활동하고 있다. 가상 비서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장애 사용자의 일상을 배우고 업무, 학교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추적한다.



<그림 5-3> Identifor Companion의 홈페이지

(*출처: <https://www.identifor.com/about/daysupport>)

- 기존사례: 동해교육도서관 문화예술프로그램

동해교육도서관이 삶의 질과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 시설의 20~30대 입소자를 위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2017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장애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음악을 매개체로 하여 진행하여 도서관이 함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독서교육을 전개한 예이다.

차시	일자	활동목표	활동내용	교재(자료)
1차	5/19	친밀감형성	* 나의 좋은 점 찾기 * 내가 좋아하는 것 * 자원봉사자 책놀이	나는 내가 좋아
				오프오프 리듬악기
2차	5/26	감정이해	* 등장인물의 동물 이야기 * 자원봉사자 책놀이	열두띠이야기

				패들드럼, 건반
3차	6/9	감정표현1	* 색깔 이야기 * 나의 감정을 리듬악기로 표현 연주	새의 색깔
				공명실로폰, 스카프
4차	6/16	감정표현2	* 도깨비 방망이 * 그림악보 보며 리듬악기 연주	도깨비 방망이
				핸드드럼
5차	6/23	관계형성1	* 우리는 친구-개구쟁이(노래) * 패들드럼 그룹연주	우리는 친구
				패들드럼
6차	6/30	관계형성2	* 무지개 물고기와 신기한 친구들 - 개구쟁이(노래) * 컵타연주	무지개 물고기와 신기한 친구들
				오르프 리듬악기
7차	7/7	관계형성3	* 나들이(소풍)이야기 * 악기연주 - 여행을 떠나요	세 친구와 즐거운 나들이
				공명실로폰, 리듬악기
8차	7/14	문제해결1	* 악기의 종류 알기 * 음악극	브레멘 음악대
				리듬악기
9차	7/21	문제해결2	* 여름에 필요한 것 * 지시따르기 - 악기연주	빨간부채, 파란부채
				리듬악기, 부채
10차	7/28	협력, 지지& 격려하기	* 나에게 행복이란 * 공명실로폰 연주 -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 나만의 행복 마음 만들기	쿠키, 한입의 행복 수업
				공명실로폰

③ 프로그램 형태

발달장애인들이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데, 발전기에는 장애인들이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서회를 조직하여 운영을 돕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졸

업 이후 사회와 접할 기회가 적어진 이용자들을 위해 쿠키클레이, 비즈공예, 도자기 교실 등의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기존사례: NCBC(Next Chapter Book Club)

NCBC(Next Chapter Book Club)는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클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행자는 모든 수준의 독자들이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참여자는 독서회에 참여하여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읽는 경험을 나뉘가진다.

④ 서비스

이 시기에는 발달장애 이용자가 도서관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여 청장년기의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관의 자료를 목록화하거나, 전주기에 걸쳐 질문이 많은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소득보장, 장애인복지관이나 거주시설, 복지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리소스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안정기

안정기에는 발달장애 이용자가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며, 도서관은 이들이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 있을 때이다.

① 장서

장서는 e-book과 e-audio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청장년기 발달장애인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한다. 전자책은 휴대가 간편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를 필두로 무선 이어폰, 사물인터넷 등 음성 기반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오디오 매체

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전자책과 함께 팟캐스트, 오디오북 자료 등을 함께 수집하여 서비스하여야 할 것이다. 영상자료는 발달장애인들의 반복적인 작업을 돕거나, 그들이 흥미를 가진 분야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존사례: 순천 조례호수도서관 멀티미디어 동화 제작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는 2017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책 소개와 읽기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책과 새로운 미디어가 결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 동화를 주로 제작하였다. 단순한 그리기나 만들기가 아니어서 성인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플로라이드 카메라, 쏘마트로프, 멀티미디어 동화, 디지털 카메라, 드림캐쳐 등 다양한 장서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였다. 아래는 다양한 장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차시	일자	활동목표	활동내용	교재(자료)
1차	9. 12.	자기 사진을 보고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	1. 야외촬영 - 플로라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촬영하기 2. 자기 사진을 보며 자화상 그리기 3. 책읽기 - ‘똥떡’ (이춘희/박지훈/언어세상)	플로라이드 카메라, 싸인펜, ‘똥떡’ 그림책
2차	9. 19.	우리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한 쏘마트로프를 만들어 본다.	1. 책읽기 - ‘게사니’ (김점선/꼬마샘터) 2. 쏘마트로프 만들기 - 우리 눈의 착시 효과 (잔상 효과) 3. 쏘마트로프 돌려보기	쏘마트로프 재료, 싸인펜, ‘게사니’ 그림책

3차	9. 26.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시화를 그려 가오리연을 완성한다.	1. 다함께 시 읽기 2.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돌아가며 시 읽기 3. 가오리연 위에 시와 그림 그리기 4. 가오리연 조립해 만들기	가오리연, 싸인펜, 색연필, 활동지(짧은 시모음)
4차	10. 10.	야외로 나가 열레를 조작해 가오리연을 날릴 수 있다.	1. 책읽기- 밥 안 먹는 색시 (김효숙/권사우/길벗어린이) 2. 야외 활동 - 연날리기 3. 연날리기 소감 말하기	가오리연, ‘밥 안 먹는 색시’ 그림책
5차	10. 17.	동화를 선정하고 제목을 색종이 풀라쥬로 표현한다.	1. 멀티미디어 동화 감상 - 여우누이 (이성실/박완숙/보림) 2. 멀티미디어 동화 선정 - 돌부처와 비단 장수 3. 동화 제목과 이름을 색종이 풀라쥬로 표현하기	멀티미디어 동화(여우누이), 빔 프로젝트, 색종이
6차	10. 24.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익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1. 그림책 읽기 - 돌부처와 비단장수 (박지윤/아지) 2.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 배우기 3. 타이틀, 크레딧 촬영 4. 멀티미디어 동화 역할 나누기	‘돌부처와 비단장수’ 그림책, 디지털 카메라, 동화대본
7차	10. 31.	자신의 역할에 맞게 동화 구연을 할 수 있다.	1. 그림책 읽기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성민/사계절) 2. 역할에 맞춰 대본 읽기 3. 멀티미디어 동화 오디오 녹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림책, 동화대본, 디지털 카메라, 약간의 간식

8차	11. 7.	자신의 배역에 맞게 구연을 녹음 한다.	1. 그림책 읽기 - 정신없는 도깨비 (서정우/ 홍영우/ 보리) 2. 개인별 동화 구연 녹음하기 3. 드림캐처 깃털 장식 만들기	‘정신없는 도깨비’ 그림책, 동화 대본, 디지털 카메라, 드림캐처 재료
9차	11. 14.	리스와 실, 비즈 등을 이용해 드림캐처를 만들 수 있다.	1. 그림책 읽기 - 죽할머니와 호랑이 (최숙희/ 조대인/ 보림) 2. 드림캐처 완성하기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그림책, 드림캐처 재료
10차	11. 15.	도서관 이용에 절에 맞게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다.	1. 멀티미디어 동화(돌부처와 비단장수) 및 수업 사진 감상 2. 순천조례 호수도서관 견학 3. 도서관과 함께 즉석 사진 찍기 4. 그림책 읽기 - 바삭바삭 갈매기 (전민걸/한림출판사) 5. 바삭바삭 과자 봉지 만들기	멀티미디어 동화 (돌부처와 비단장수), 수업사진 영상, 빔 프로젝트, 즉석카메라, ‘바삭바삭 갈매기’ 그림책, 과자 봉지 프린트물, 과자 및 음료

② 프로그램 분야

이 시기의 도서관은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교육하거나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기여하여야 한다.

- 기존사례: Let's Get Together Book Club (2018~)

미국 일리노이의 Skokie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를 주축으로 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정한 책을 읽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은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③ 프로그램 형태

청장년기 안정기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각자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각도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식의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경우 도서관은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별화 프로그램은 장애를 지닌 이용자를 위하여 시작하지만, 차츰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정보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서비스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서비스

청장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평생 배움을 이어나가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채로운 활동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중노년기

(1) 현황 및 필요성

- 2018년 발표된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10대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 부족과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계부처합동, 2018).
- 본 연구에서 중노년기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며, 이용하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 방향

도입기 도서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를 가진 중노년기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아웃리치 서비스 형태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전기에는 이용자들의 재활과 일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차츰 도서관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정기의 도서관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여 발달장애인들을 포용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전략

	장서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형태	
도입기	읽기 쉬운 도서, 큰 글자 도서	- 문화프로그램 - 건강관련프로그램	- 찾아가는 프로그램	- 아웃리치 서비스
발전기	그림/만화 도서	- 일상생활을 위한 문해교육 - 재활을 위한 교육	- 찾아가는 프로그램	- 도서대출 반납서비스 - 리소스가이드
안정기	촉각도서, 아날로그 자료 활용	-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유관기관 협력프로그램 - 체험학습 - 통합형프로그램	- 도서관 커뮤니티 서비스

가. 도입기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계층 보다 이동성에 제약이 더 많고 도서

관에 대한 경험이 낮은 상태이므로 도입기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분야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다.

① 장서

중노년기 발달장애인들은 노안과 같은 육체적인 노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속도가 더디게 된다. 도입기의 도서관은 중노년기의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쉬운 도서와 큰 글자 도서를 우선 수집하여 활발한 이용을 도모한다.

② 프로그램 분야

본 연구에서 중노년기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분야는 문화프로그램과 건강관련 프로그램이었다. 도서관은 미술/음악/마술공연, 평생교육 강좌 등을 제공하여 중노년기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고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성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할 만하다.

- 기존사례: 김해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한 소외시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노인들의 육체 재활과 정서적 만족을 위해, 지적·정신·시각 장애인들의 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시니어를 위한 웰빙요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림책 세상체험과 행복한 컬러비즈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판소리교실도 운영하였다.

③ 프로그램 형태

중노년기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요양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개개인의 활동성은 낮아지는 시기이므로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병원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문화와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제공한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나 복지형노인 독서 프

로그래를 도입할만하다.

- 기존사례: 강원도서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책벼룩시장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장애인시설에 기부하였다.

④ 서비스

이 시기에는 도서관 지역 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중노년층을 위해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가 펼쳐져야 한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를 신청하면 택배로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꿈나라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에 단체대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밖의 이용자와 닿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나. 발전기

중노년기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이용을 활성화한다.

① 장서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책이나 만화 도서를 도입하여 인지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부담이 적은 장서를 제공한다. 치매예방을 위해 그림책의 옛이야기나 전통적인 생활 습관을 읽고 추억을 나누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분야

이 시기에는 도서관은 중노년기의 이용자를 위해 일상생활을 위한 문해교육과 재활이나 노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프로그램 형태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낯설어하지 않는 단계가 되더라도 그들의 이동성은 현상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도서관은 능동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④ 서비스

발전기의 중노년층 발달장애인은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정기의 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들에게 관심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한 리소스가이드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활용을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도서대출반납에 대한 이용자 교육 등이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중노년층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 안정기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도서관은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① 장서

청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중노년기의 안정기에도 촉각도서를 도입하여 노인층의 재활과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설문조사에서 중노년기의 장애인들은 아날로그 장서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만약 도서관에 아날로그 장서가 이미 구비되어 있다면 노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② 프로그램 분야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만 3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11.2%)에 대

한 요구가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안정기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③ 프로그램 형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다각화된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이 요양기관과 단순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 봉사커뮤니티나 중노년층과 연령대가 다른 특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 기존 예시: 2018년 마포구립서강도서관에서 진행한 '공공도서관『장애인 독서+문학기행』 프로그램'의 경우 독서+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3개 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후 업무를 나누어 협업을 진행하였는데, 주관하는 서강도서관은 운영 총괄 및 예산·인력 지원을 담당하고, 해오름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공간과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각 기관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질은 높아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접점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시도 필요하다.

④ 서비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 또래집단 형성, 공유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더 나아가 노인 발달장애인들이 독서회나 문화모임과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아야 한다.

5.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도서관 협력체계(수직)와 지역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수평)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재 위치한 도서관의 위계에 맞게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종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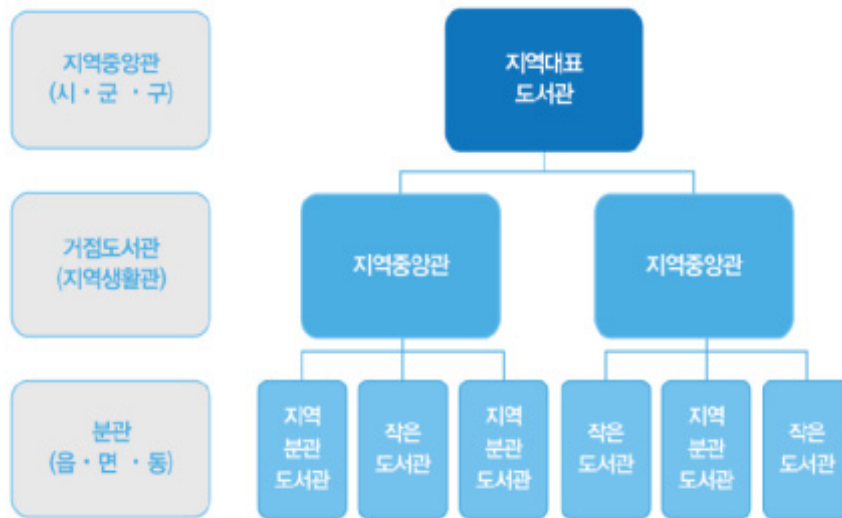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반의 협력 가능 자원을 정의한 이후, 각 자원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자원 여건

(1) 도서관 협력네트워크 자원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수직적 협력 체계는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 위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제3장 제18조 등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제4장 제22조 등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중앙의 경우 국가단위, 지역대표 도서관의 경우 시·도 단위의 종합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분관으로 구성되며, 분관은 소규모 분관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지역중앙관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거점도서관은 지역생활권별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지역분관과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4> 지역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실행체계

① 지역대표도서관

- 해당 시·군·구의 중앙도서관 역할
- 거점 및 분관(이동도서관)의 운영 지원
- 지역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
- 지역 내 도서관 인프라를 총괄한 정보서비스 계획 수립
- 지역사회와 도서관 간의 협력망 구축·운영
- 지역의 규모에 따라 거점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② 거점도서관

-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정보자료제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분관도서관의 운영지원
- 해당 소규모 지역공동체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 지역의 규모에 따라 분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③ 지역분관 및 작은도서관

-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대출·반납을 연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수행
- 도서관의 인력, 재정 등에 따라 중앙관 혹은 거점도서관이 수행

(2) 발달장애인 유관 기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가 지원 범위나 지원 수준,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모두 제한적인 상태로 몹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이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역량을 독립적으로 갖추기까지 지역기반의 발달장애인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을 의미한다.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개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적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추진경과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시행('15.11.21.)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수행('13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근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도) 설치 완료('16년~) 및 업무수행

- 설치현황

· 중앙센터 1개소, 지역(광역시) 센터 총 17개소로 총 18개소가 운영 중

<표 5-1>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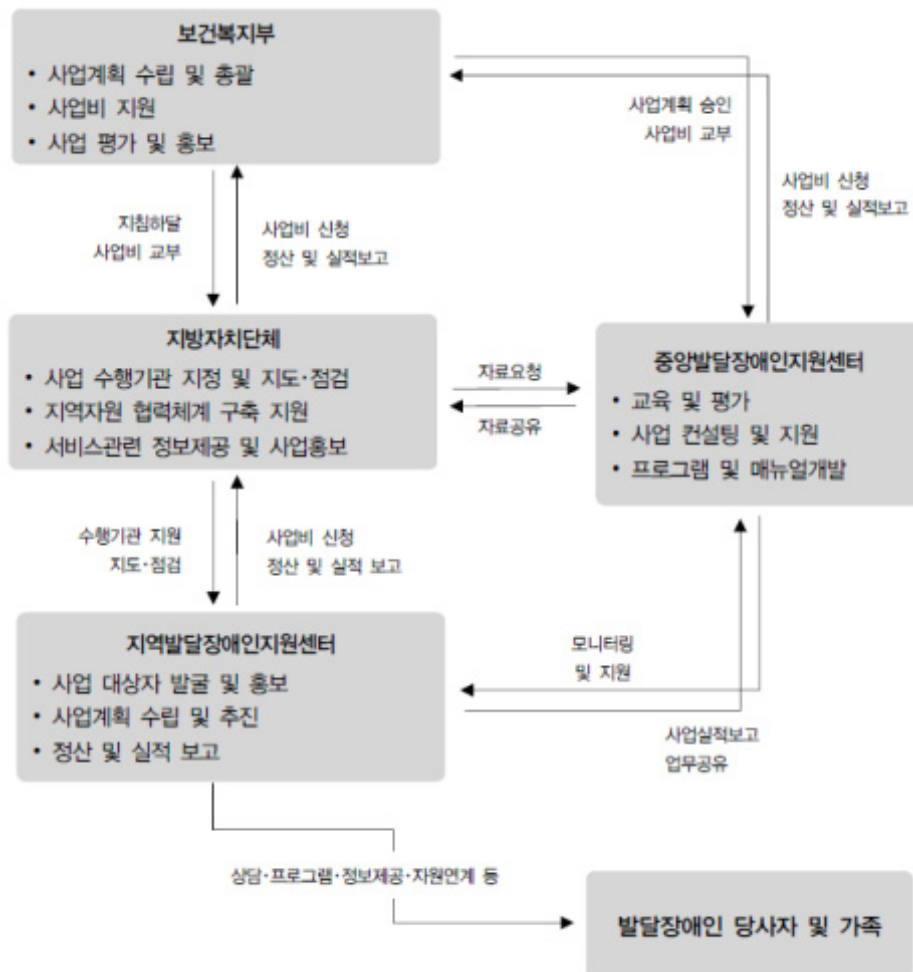
구분	전화번호	주소
중앙	02)3433-07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서울특별시	02)2135-3635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부산광역시	051)714-736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대구광역시	053)719-0340	대구광역시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인천광역시	032)715-4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광주광역시	062)714-335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대전광역시	042)719-1085	대전광역시 서구 중앙로118 대전도시공사 3층
울산광역시	052)710-3154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세종특별자치시	044)414-9172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구분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031)548-139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강원도	033)817-2357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충청북도	043)716-21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9,110호
충청남도	041)415-12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충남타워) 7층 704호
전라북도	063)714-26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7층 702호
전라남도	061)802-106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경상북도	054)805-7310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상남도	055)716-239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제주특별자치도	064)803-3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여된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로서 시·도,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①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 ② 예산교부 및 관리·감독 ③ 지자체와 지역센터 간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시·도는 ①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③ 사업 활성화 노력 등 지역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 외에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실제적으로 전국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역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까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5-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추진체계 및 업무흐름

· 한편 운영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법상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영역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⁵⁾ 지정을 통한 위탁에 대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앙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탁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모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위탁 시에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사항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1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2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발달장애인법 제36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현황 정보 파악(발달장애인법 제35조)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지원(발달장애인법 제36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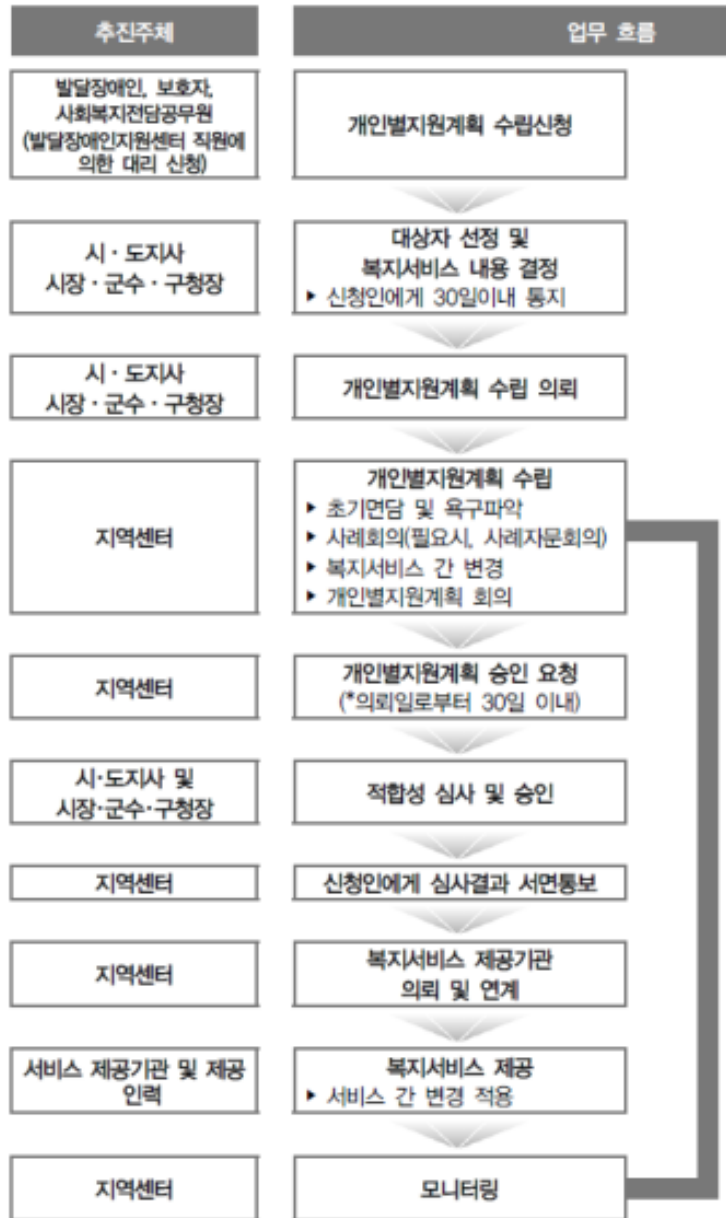
• **개인별지원계획**

: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말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하고, 특히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지향’** 원칙은 개인별지원계획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 되어 한명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서비스의 총체적 연계’** 원칙은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의뢰를 받은 센터장은 대상자 정보,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 등을 확인한 후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욕구 파악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여 장·단기 목표,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3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자체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지자체의 장은 적합성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와 함께 지역센터의 장은 바우처 서비스가 생성되도록 지자체에 조치하고 아울러 복지 자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6> 개인별 지원계획 수행 절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표 5-3> 개인별지원계획 정보요청 관계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범위(「발달장애인법」 제35조)

- 「발달장애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 「발달장애인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권리구제**

: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지역센터에서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신고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구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실현, 당사자 중심, 신속성, 적법절차, 책임성 그리고 비밀 보장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신고접수되면 접수된 사례가 유기 등 범죄 의심사례인지,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응급성이 있는지, 발달장애인이 안전한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자 관련 정보, 유기 등 피해 받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 행위(의심자) 관련 정보, 행위 관련 정보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응급성 판단지표와 임시보호 필요성 판단 지표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현장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신고를 접수한 센터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유기 등의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현장조사는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파악,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발생 여부, 격리나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의 경우 필요 시 경찰에 동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경찰도 센터와 동행요청이 가능하고, 현장조사 시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 국한되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동행한 경찰을 통하여 실시하게 된다.

• 공공후견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제도(후견유형은 원칙적으로 특정후견으로 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정 및 비용(후견심판절차비용 및 후견인활동비)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후견인의 양성 및 추천, 공공후견서비스의 감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장한다.

: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이용신청을 받을 때는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금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기타지원의 영역에서 교양교육 및 여가문화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4>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중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파악

현금지원		☐ 장애인연금	☐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 장애수당	☐ 자녀학비지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 기초노령연금	☐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
		☐ 의료비 지원	(월 천원)
		☐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 기타현금지원 ((월 원))
복지 서비스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 (자녀)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 보육료지원(자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자녀)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기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기타 지원	보장구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 보장구지원	
	주거지원	☐ 주택지원	☐ 주거안전택수리
		☐ 주거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	
	교양교육	☐ 교양취미	☐ 자격증취득
☐ 노인대학		☐ 학습지도	
여가문화지원	☐ 정보화교육	☐ 언어습득	
	☐ 문화체험	☐ 생활체육	
기타지원	☐ 여행,나들이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은 생애 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에 부모 역시 변

화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따라서 지역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

: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제공기관으로써 역할 수행 가능)

<표 5-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 담당	• 사업 운영 - 사업 수행비용 지역센터로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지원·수행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수행 - 사업 계획 수립(필요시 지역센터가 사업 자체 운영 가능) - 공모,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 - 사업 집행 및 시·도로 최종 실적 보고
사업수행기관 (선정기관, 필요시 지역 센터)	• 사업 수행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계획·운영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계획·운영 - 성인권 교육지원 계획·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지역센터로 실적보고

: 교육과정 운영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생애주기별 구분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표 5-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개요

사업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징	운영주체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참여 (필요시)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수행기관 지역센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참여	특강, 멘토링, 현장체험	수행기관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멘토형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선택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등	수행기관
성인권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선택	성인권 교육과정 운영	수행기관 지역센터

② 장애인복지관

- 개요

- 전국적으로 약 2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www.hinet.or.kr/>)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사정과 평가(진단판정), 사회심리, 직업 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재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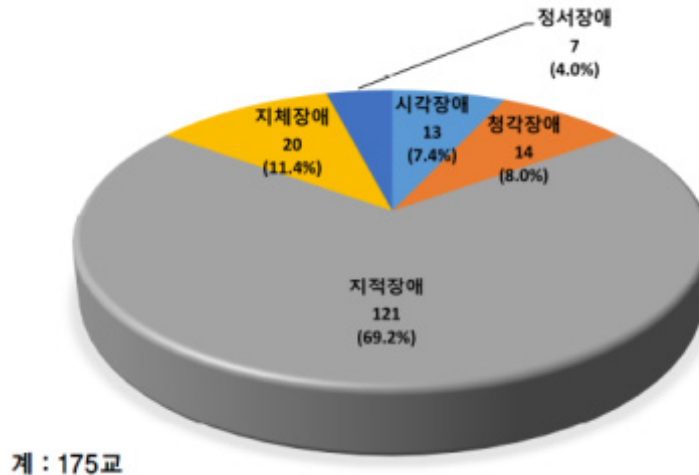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사정과 평가(진단판정), 사회심리, 직업 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재활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 기능과 이용절차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접수를 하게 되면, 서비스 욕구와 이용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면접을 수행한 후에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영역에 대한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판정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지도를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초기면접을 통해 여타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도 있고, 장애예방 및 홍보, 재활자료보급 및 시설활용, 조사연구, 지역사회자원조직 및 활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과정은 이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거점기관의 핵심적 과정과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특수학교

- 개요⁷⁾
 - 2017년 현재 유치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아)학생은 50,222명(장애인 학생 중 67.0%)으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35천명(69.8%),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15천명(30.2%)이다.
 - 전체 장애학생 75,021명 중 약 54천명(72.3%)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고, 약 20천명(27.7%)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것과 비교하면 발달장애(아)학생의 특수학교 재학 중인 비율이 다소 높다.
 - 전체 특수학교 175개교중 지적장애영역 특수학교가 121개교로 그 비중이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

가장 높다.⁸⁾



<그림 5-7>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현황

- 발달장애(아)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치료 지원이 45.3%로 가장 높고, 통학지원(12.3%), 보조인력 지원(11.3%) 순이다.
- 비발달장애(아)학생⁹⁾의 경우도 치료 지원(43.0%), 통학지원(9.4%), 보조인력 지원(7.6%)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발달장애인 15.4%, 비발달장애인 20.7%로 비발달장애인이 다소 높다.
- 전체적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치료 지원 서비스의 비율은 낮아지고 통학지원 비율, 보조인력 지원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
- 발달장애(아)학생의 치료지원 이용은 유치원 과정은 58.9%가 이용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7.6%로 감소하며, 통학지원은 유치원 과정에서는 10.1%가 이용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14.5%로 증가한다.

8)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8. 2018 특수교육통계

9) '비발달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의 발달장애 유형을 제외한 다른 장애유형 학생을 의미한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고등학교 과정(2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향후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발달장애(아)학생이 향후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학습보조기 지원’(16.9%), ‘보조인력 지원’(13.6%), ‘치료지원’(12.4%) 순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로는 발달장애(아)학생의 유치원 과정에서는 ‘보조인력 지원’(25.0%)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학습보조기 지원’(20.9%, 18.0%)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치료지원’(12.9%)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현황(2019)¹⁰⁾

- 장애인자료실의 면적 및 공간: 특수학교 장애인자료실(코너)의 면적은 평균 116.1㎡이며, 이용좌석 수는 평균 23.2석이다. 장애인자료실(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대부분(82.9%)이 열람실(열람석)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녹음실(2.9%), 점자제작실(3.8%)을 설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적게 나타났다.
- 이용자 수 누계: 시각장애가 144,793명(11개관, 평균 13,16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발달장애 139,771명(37개관, 평균 3,777.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서비스 전담/담당직원 유무: 장애인서비스 전담 직원이 있다는 응답은 105개관 중 24개관(22.9%)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서비스 담당 직원이 있다는 응답은 81개관 중 59개관(72.8%)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서비스 전담 직원이 갖춰야 할 자격증으로 사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특수교사(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육 진행 인지 여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25.7%(27개관)로 낮게 나타났다.

10) 국립장애인도서관. 2019.8. 2019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 장애인 대상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1.9%로 나타났다.
- 유관기관 연계 장애인 대상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대상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 장애인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서비스 관련 전문성 향상 교육 강화(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④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개요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권역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하에 설치되었다.

- 주요업무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2)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도구 개발, (3)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연수,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

- 교육부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

지·교육·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추진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연계 사업 모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 구축 운영

: 국가 시·도간 역할분담체제 구축으로 정책추진 시너지 효과 제고

-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 ※ (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확충·운영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연수 등 추진

·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지역 관련기관의 역할(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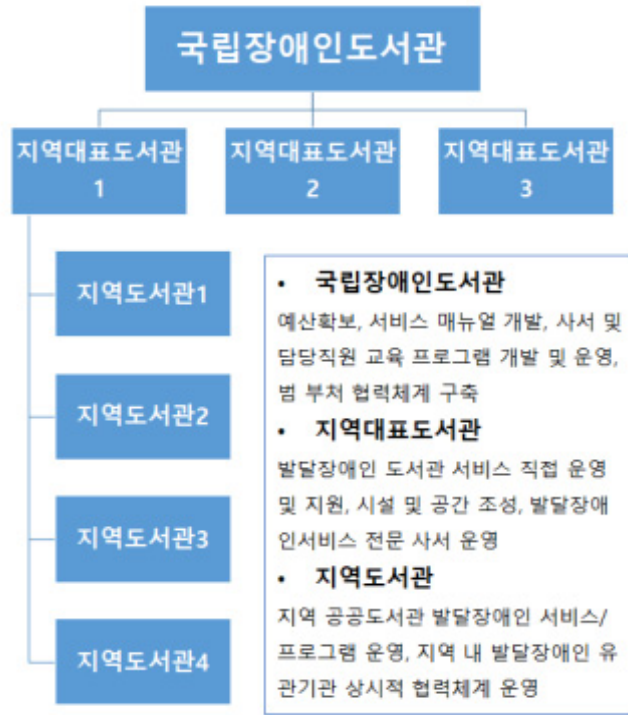
- ※ (시·도 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정·운영 및 등록 관리, 시설 기준 고시
- ※ (각급 학교장,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
-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그림 5-8>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모델(안)

2) 지역 공공도서관 위계를 활용한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협력을 위한 도서관 조직의 수직적 협력 체계는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 위계 체계를 적용한다. 도서관법에서는 제3장 제18조 등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제4장 제22조 등에 의한 지역 대표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중앙의 경우 국가단위, 지역대표 도서관의 경우 시·도 단위의 종합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5-9> 도서관 위계를 활용한 발달장애인서비스 수직적 협력체계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기능

도서관법 제19조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단위의 종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독서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장서 관리와 관련하여 상호대차, 종합목록 및 자료 공동 보존, 독서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서비스 매뉴얼 개발, 사서 및 담당직원 교육, 중앙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각 지역도서관(공

공도서관)이 규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과 지역 대표도서관이 운영해야 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도서관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가(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가) 풀 및 서비스/프로그램 운영현황 정보, 협력기관 목록 정보를 확보하여 각 지역도서관이 발달장애인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에 따라 수행된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 실적을 지역대표 도서관을 통해 취합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역할>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직접 지원

: 예산확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활용 촉진

: 서비스 매뉴얼 개발, 사서 및 담당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 강사 및 필요자원 정보(DB) 구축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 범 부처 협력체계 구축, 협력 대상 기관 정보 공유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관리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실적 취합, 결과 분석 및 개선 추진, 우수 도서관 포상

② 지역대표(거점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기능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다.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수행 업무는 시·도 단위의 총괄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제23조 제2호와 제6호에 의거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필요한 업무 수행, 제5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협력사업을 지원하도

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5조)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촉진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의 협조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독서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국가가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은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하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을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되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선결과제인 도서관 사서 및 직원 교육과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정보를 구축하고, 지역 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해당 권역 내 발달장애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지역 대표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일선 공공도서관들의 협력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공공도서관이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균형감 있는 협력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운영 실적을 총괄 관리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직접 운영 및 지원

: 지역 공공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 및 공간 조성,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 사서 운영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활용 촉진

: 지역 도서관 사서/직원 교육 운영,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 운영, 전문 강사 및 필요자원 정보(DB) 구축, 지역 내 발달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홍보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발달장애인 현황 분석, 협력 대상 기관 발굴 및 체계 구축(협약)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관리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실적 취합, 결과 분석 및 개선 추진

③ 지역도서관(공공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기능

지역도서관(공공도서관)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초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에 비해 운영 규모가 작고 발달장애인 이용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 공간 확보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서관 조직의 위계체계나 설치 지역 등을 감안하면 중앙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에 비해 장애인 이용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가장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기존 인력과 시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거주 장애인의 방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업무는 관리, 행정 등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선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지역대표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지역 내 협력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도서관의 주력 업무는 지역에

소개한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에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본적 홍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기본적인 대출 및 열람서비스와 시설·공간 이용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비장애인에게 도서관에 발달장애인이 방문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 문화와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즉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도서관 시설·공간을 조성하는 기본 업무를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발달장애인 유관 기관과 협력의 기본 단위로서 상시적인 협조체계(관련 담당자간의 모임 정례화 및 서비스·프로그램 기획안 공유 등)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역 공공도서관 역할>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직접 운영

: 지역 공공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 및 공간 조성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인식개선 활동

: 지역 도서관 사서/직원 교육, 도서관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활동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유관기관 상시 협력체계 운영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유관기관(복지관,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상시적 협력체계 운영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관리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결과 실적 관리, 결과 분석 및 개선 추진

3) 발달장애인 기관을 활용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수평적 협력 체계는 주무를 담당하는 도서관과 지역의 외부 기관과 같은 협력 자원과의 횡적 연계 네트워크 구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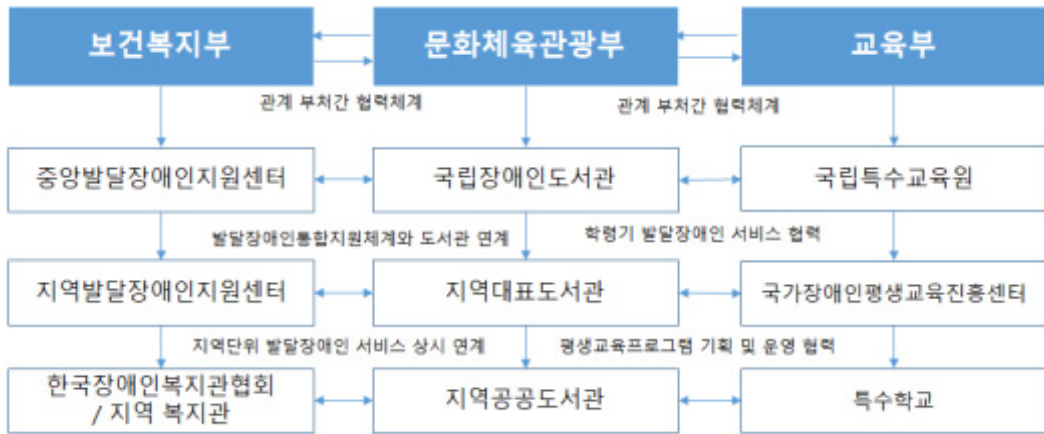
앞서 협력·활용 가능한 자원 여건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 복지관, 각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이 있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발달장애인 사업을 주요 업무 기능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기반으로 목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거점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협력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기관 간 역할과 관리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일선 공공도서관들의 신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화된 창구로 기능하여 외부체계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소통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려할 점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2015년 11월) 이후 지역적으로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수준이 다양하므로, 모든 지역이 일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수평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관련 협력 자원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관련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본 사업 수행방향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림 5-10> 발달장애인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수평적 협력체계

①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은 Top-down 방식을 고려하여 유관 중앙부처간의 협력체계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일선 도서관의 발달장애인 담당사서에게 협력체계와 관련된 실무적 어려움으로 손꼽히는 것이 지역 협력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협력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다. 상위 중앙 부처부터 체계적으로 협력대상과 내용이 정의되고 이와 같은 협력정책이 하급 기관으로 이어질 때 협력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도서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 협력체계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서비스 협력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의 목적 사업에 도서관이 협력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력업무 수행단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될 것이겠지만, 연도별 부처 사업계획 수립 시 각 목적사업을 위한 협력 부처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급 기관이 협력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협력기관 중 우선순위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산재된 각 기관별 자원을 통합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인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유형으로서 명시되는 것만으로도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 발달장애인 복지정보 DB 구축시 도서관 연계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 발달장애인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과 편람 마련시 도서관 명시
-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시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고려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사업 추진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협력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시 도서관 서비스 항목 연계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시 지역 공공도서관 안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시 도서관 활용
-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이용신청을 받을 때 여가문화지원 항목에 도서관 연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 도서관 참여

③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의 협력체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함

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 확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서 관련기관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하에 설치되었으며, 향후 이 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 수립·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협력대상으로 고려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직업훈련 실적을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교육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운영·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대다수의 문화프로그램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 역시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요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복수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기반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④ 복지관 및 특수학교와의 협력체계

복지관 또한 지역 기반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협력기관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및 각 지역별 유관협회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협력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일선 공공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문사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인 응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실제로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와 프로그램 기

획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복지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 중 하나가 특수학교이다.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서 및 전문 사서인력의 부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특수학교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장서/사서 지원체계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작은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사서를 파견하여 기본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례처럼, 도서관에 전문 사서를 배치하기 어려운 특수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서/사서 지원체계가 특수학교와 협의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5.3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개선방안

발달장애인은 신체상의 장애가 아니기에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과 같이 시설의 변형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특수학급,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이 비장애인 이용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폐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서관 시설에서 이들을 위한 세심한 변화는 긍정적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자폐인이 포함되며 자폐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한 시설 변화가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 이용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폐 성향에 대한 특징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폐 성향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간과 시설 이용 시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폐인이 가지는 문제점에 포함되므로 자폐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개선 사항을 정리한다. 자폐 성향을 가진 이용자는 '이용자'로 통칭한다.¹¹⁾

11) 본 보고서의 시설·공간 개선방안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2018년 출판된 보고서 'Project A+ (Serving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academic library)'를 기초로 다양한 참고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언사항은 공동연구원이 운영 중인 피치마켓의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관련 기존 연구 시사점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각 과부하 또는 감각에 대한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Madriaga, 2010; Van Hees, Moyson, & Roeyers, 2015).

(1) 감각적 문제 및 해결책: 시각적 고려사항

① 조명

형광등은 이용자에게 감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형광등으로부터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형광등의 깜빡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결책

- 은은한 조명은 이용자의 감각을 자극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능하면 형광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여 형광등 조명의 수를 줄이도록 한다. 만약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수 없다면 형광등을 자주 교체하거나 빛의 자극을 감소시켜주는 등기구 덮개를 사용한다.
- 조명 중 일부를 소등하거나 부드러운 빛을 내는 조명기구로 교체한다. 개별 학습실에는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편안한 조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광은 이용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너무 강하거나 직사광선인 경우 그로 인한 눈부심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눈부심에 예민한 이용자는 직사광선에 잘 적응하지 못하므로, 블라인드나 커튼 등을 설치하거나 책 읽는 공간에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창과 가구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② 전자 광고판과 안내판

도서관의 전자 광고판과 안내판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전자 광고판과 안내판은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감각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

※ 해결책

- 이용자를 위한 시각적 지원은 여러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과 자료 찾기를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림, 기호 등이 있다. 이미 도서관에 존재하는 시각적 지원에는 화장실 및 대출데스크 안내판과 함께 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서관 시설 지도가 있다.
- 시각적으로 표현된 프로그램 일정표 및 서비스 지원 목록 등은 이용자들이 비정기적 프로그램 또는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통 발달장애인은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스트레스가 심하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또는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요구된다.) 시각적 지원에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함께 표기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디지털 전자 광고판을 통해 프로그램 및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이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 명확하고 일관된 전자 광고판 및 안내판은 모든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중요하다. 전자 광고판 및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반드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다음 항목은 시각화하여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 도서관 이용시간, 이용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서 및 직원 사진과 명단, 도서 대여 절차 및 규정
 - 도서관 방문 및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 달력
 -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시각화된 계획표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해당 계획표에 표기된 사항들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

으므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된 필기 자료(화이트보드, 메모장, 연필 및 종이클립보드 혹은 포스트잇)
- 도서관 직원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름표

③ 도서관 공간 활용성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접근성만 높이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며, 공간 내부에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 해결책

-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머무르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도서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도서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개방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공간에 머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이용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용 절차, 예약 방법을 파악하여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간적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상 참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바쁜 시간 대에 도서관 방문을 꺼려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안책이 될 수 있다.

(2) 감각적 문제 및 해결책: 시간적 고려사항

① 시간 인식의 어려움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시간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몇 시간 동안 특정 물건이나 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다.

반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정확하게 시작하여 끝나지 않으면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 해결책

-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구두, 음성, 혹은 시각적으로 시간을 제시할 수 있다. 도서관 공간에 시계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소에 머물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타이머 기능이 사용될 수 있다.
- 구두 또는 방송 등의 공지는 이용자들에게 이벤트 등을 효과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도서관은 30분 뒤에 문을 닫습니다. 빌릴 책이 있으시면 지금 안내 데스크로 가져와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공지는 이용자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감각적 문제 및 해결책: 청각적 고려사항

① 소음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청각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다. 비장애인에게 조용한 도서관 환경이 발달장애인에게서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서 혹은 비장애인에게서는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발자국 소리, 시계 바늘 소리 등)이 발달장애인에게서는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 해결책

- 청각에 민감한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방음이 잘되

어 있는 스터디룸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방음이 되어 있는 개인 공간 외에도 한 공간 안에서 의자를 다른 의자들과 떨어뜨려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공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이용자에게는 동떨어져 있는 조용한 코너 공간조차 청각적 감각의 과부하 요인이 될 만큼 소음을 느낀다. 이들에게는 방음이 되어 있는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공간은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공간 역할이 될 수 있다.

- 바닥에 카펫 또는 양탄자 등 깔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 내 소음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내부 이동통로에 카펫을 시공하는 것은 해당 공간의 환경을 상당히 조용하게 만들고 소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헤드폰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방문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때때로 소음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헤드폰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헤드폰은 도서관 컴퓨터 혹은 이용자가 가진 전자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헤드폰은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용도로 착용될 수도 있다.

(4) 감각적 문제 및 해결책: 일반적 과부하

① 자기 자극 행동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지면, 이용자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자극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감각 과부하를 경험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신체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펄럭거리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자극 행동을 할 경우 자료를 찾거나, 조용한 공간을 찾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해결책

- 이용자들이 감각 과부하를 경험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이용자를 만족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경우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자극 행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핑거 스피너, 스트레스 볼 등이 있다.
- 페달밟기 운동기구는 학생들이 독서 중 혹은 수업시간 중 쉬는 시간에 간편하게 페달을 밟을 수 있게 해주어 이용자들이 물리적 욕구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개방형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

많은 도서관들이 개방형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경계가 구분된 것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스트레스나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해결책

-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공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어디에 가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명확히 경계를 구분한다. 그리고 각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라벨링하여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자들이 줄을 서는 라인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어디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원칙과 자폐 성향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표 5-7>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의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자폐 성향을 고려한 적용
1. 공평한 사용: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의자, 조절이 가능한 개인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 등을 구비하여 도서관 스터디룸 안에 통합적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
2. 사용상의 융통성: 개인의 취향이나 능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안내 데스크 공간에 셀프 대출 기기를 설치(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꺼리는 이용자 수용)하고 사서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기기를 스스로 작동하기 어려운 인지능력의 이용자 수용)를 동시에 마련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도서관 이용 정보를 쉬운 글 문구와 함께 시각적 지원이 되는 전자 광고판, 안내판으로 제공 (ex 열람실, 자료실, 스터디룸, 복도 등 각 구역마다 예상되는 또는 엄수해야 하는 소음 수준을 쉬운 글 문구와 그림으로 제공)
4. 인지하기 쉬운 정보 전달: 주변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도서관 이용시간 종료 등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고음이나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내판 등에 서면으로 알리는 한편 구두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
5. 오류 허용: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한 위험과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한다.	컴퓨터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 컴퓨터가 종료된다는 메시지가 모니터에서 보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작업을 저장하라고 주기적으로 알려 주는 알림 서비스를 사용.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를 활용하다가 중요한 작업사항을 저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가 종료되는 상황을 막음
6. 물리적 힘 이용 최소화: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한다.	이용자 대부분 손 근육 미발달로 강한 힘을 요하는 시설 또는 물건은 사용에 제약이 많음. 따라서 사용하기 쉬운 도어 손잡이 또는 버튼식 자동 도어 설치

7. 사용하기 편리한 크기 및 공간: 적정 크기 및 공간이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혹은 이동성에 관계없이 접근, 도달,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도서관 입구는 물리적 경계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각적으로만 경계를 구분하여 출입에 제약이 없도록 함
---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개선방안 도출

발달장애인은 청각, 시각장애인과 달리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시설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즉 시설의 물리적 개선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지 않지만,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과 공간의 개선은 보편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한 예로 손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은 손잡이를 돌릴 때 큰 힘을 주기 어려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손잡이가 불편하다고 문을 여닫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은 힘으로 손잡이를 돌릴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버튼식 자동 도어를 설치할 경우 발달장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짐을 들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대출 서비스와 기타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안내 데스크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행동(예: 도서 대출)을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 과잉행동을 하거나 대출 절차를 생략하고 도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등 비장애인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물리적 경계 구분이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각적으로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 라벨링을 명확히 한다면 비장애 이용자 역시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은 곧 비장애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아래는 기존 연구 및 사례를 근거로 도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공간 개선 가이드라인 및 도서관 체크리스트이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 개선 가이드라인

1. 발달장애인들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낮으며 독서 경험의 기회가 거의 없고 독서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일련의 행동에 흥미 요소가 부족하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편안한 가구를 배치한다.
2.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비만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행동 반경이 크다. 따라서 가구 사이에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여 가구를 배치한다.
3.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있으며 나이에 맞지 않은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지 능력이 낮다고 아동에게 적합한 인테리어와 콘텐츠, 도서관 사서의 응대는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도전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4. 발달장애인들은 유추 해석 능력이 낮다. 따라서 전자 광고판과 안내물 등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되 쉬운 글 설명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5. 발달장애인 이용자와 비장애인 이용자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자료 찾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 이용자에게 말을 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 직원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문해력이 낮은 발달장애인들은 가독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도서 라벨링, 도서 카테고리, 기타 필요한 이용안내 정보는 큰 활자로 제공하며 글자체는 빼침이 없는 고딕체를 사용한다.

7. 기억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은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 정보(회원가입, 웹사이트 방문, 도서 대출 절차 등)를 쉬운 글과 그림으로 제작하고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8. 도전적 행동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독립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를 꺼려하는 발달장애인이거나 소음에 민감한 발달장애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도서관의 보편적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도서관은 편의시설 요청 정보 및 이용 방법을 포함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면으로 작성된 서비스 정책 및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2. 도서관은 장애 관련 편의시설 및 기타 특별 지원 요청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까?
3. 도서관의 모든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 경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4.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 능력이 낮은 이용자들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위치에서 자료를 검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5. 엘리베이터에는 청각, 시각 및 촉각 신호가 있으며, 앉은 자세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6.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7. 도서관 전체적으로 충분히 선명하고 큰 활자로 구성된 방향 안내판이 있습니까?
8. 선반 및 서가 식별요소들은 큰 활자 형식으로 제공됩니까?
9. 책의 청구기호가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습니까?
10. 장비나 시설에 큰 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11.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이용자를 위한 개인 학습 공간이 있습니까?
12. 직원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적응형 보조 컴퓨터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 중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13. 직원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14. 서비스 직원은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15. 도서관 내 웹페이지, 온라인 목록, 색인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자 정보 자원은 스크린 리더와 같은 다양한 적응형 컴퓨터 기술을 통해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까?
16. 도서관 사서들은 직접 상담 서비스 혹은 자료의 제공을 통해 전자 리소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7. 전화 및 이메일로 참고자료 및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18. 활자로 인쇄된 도서관 간행물이 큰 활자 및 전자 텍스트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까?
19. 왼손잡이 및 오른손잡이 사용자 모두에게 있어 적절한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20.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화면 이미지를 확대해주는 소프트웨어 및 대형 모니터가 이용 가능합니까?

제 6장 결론 및 제언

6.1 결론

6.2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아직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를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면담조사한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주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청장년기와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모두 활발한 도서관 이용자는 아니지만, 향후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활용할 여건이 조성된다면 반드시 도서관을 방문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도서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도서관 이용상황에서 얻었던 부정적 경험(주변의 시선과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 분위기, 사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FGI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읽기 쉬운 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와 발달장애인 분야 정부 정책을 알 수 있는 부모 대상 콘텐츠를 요구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눈치보지 않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 사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언되었다.

발달장애인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을 인터뷰한 결과, 발달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책을 읽으러 오는 곳'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문제행동과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사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달장애의 특성상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보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보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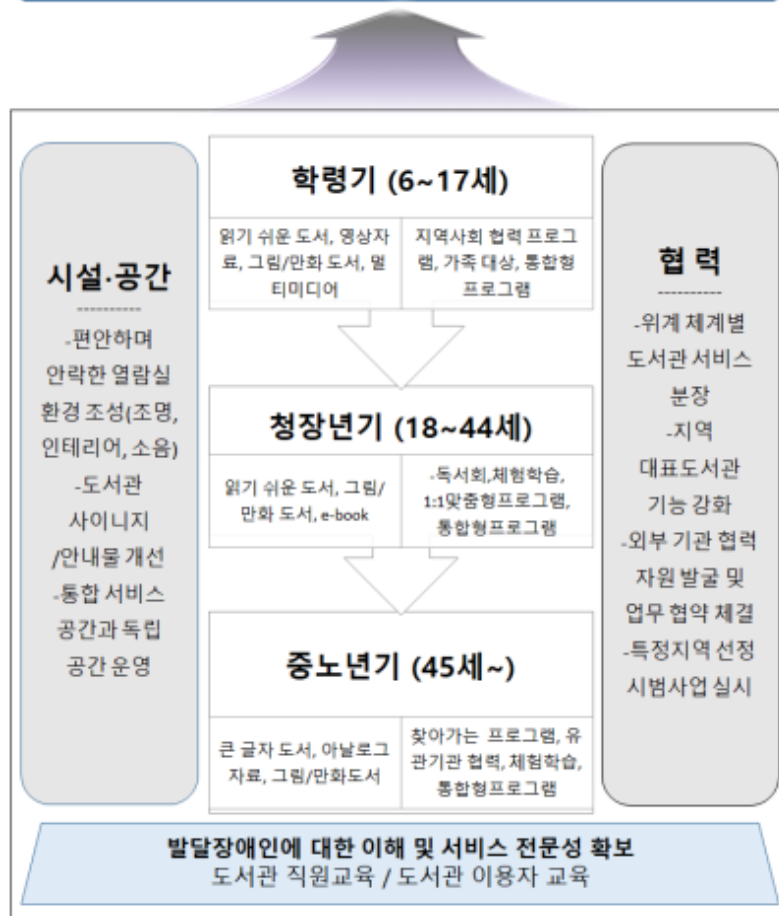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주요한 인터뷰 결과였다.

기존에 도서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면담한 결과, 주로 공간과 시설에 대한 발달장애인 이용자 요구가 많고 통합적 이용공간과 발달장애인 전담사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서관 사서의 인식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선행연구 및 관련 프로젝트 분석결과와 함께 발달장애인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비장애인에게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의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을 보편적 설계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도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한편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는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이용자 개층에 요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그림 6-1>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모델

6.2 제언

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추진방향 및 전략과제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의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조사 및 요소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결과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당사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한 10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하위 전략과제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한 협력기관과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6-1>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전략 목표와 전략과제의 설정

구분	전략목표(Goal)	하위 전략 과제(Task)
서비스체계 개발	G1.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체계화	T1.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 체계 확정 T2.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지침 제정 T3.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
도서관 직원 교육 및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	G2.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 교육 강화 G3.도서관 비장애인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지속 확대	T4.사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T5.이용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공간 개선	G4.발달장애인을 고려한 도서관 시설 개선 G5.발달장애인을 고려한 도서관 공간 조성	T6. 편안하며 안락한 열람실 환경 조성(조명, 인테리어, 소음) T7. 도서관 전자 광고판/안내물 개선 T8. 통합서비스 공간과 독립 공간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G6.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서관 연계 협력 체계 구축 G7.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기능 분장	T9.도서관 위계 체계별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분장 T10.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기능 강화 T11.외부 기관 협력 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 체결 T12.특정지역 선정 시범사업 실시

구분	전략목표(Goal)	하위 전략 과제(Task)
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프로그램 활성화	G8.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장서 개발 G9. 장애인 서비스 전담사서 배치(지역대표도서관) G10.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T13. 생애주기별(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서비스·프로그램·장서 매뉴얼 개발 T14. 특정지역 선정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T15. 장애인 전담사서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실행 T16.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기반 홍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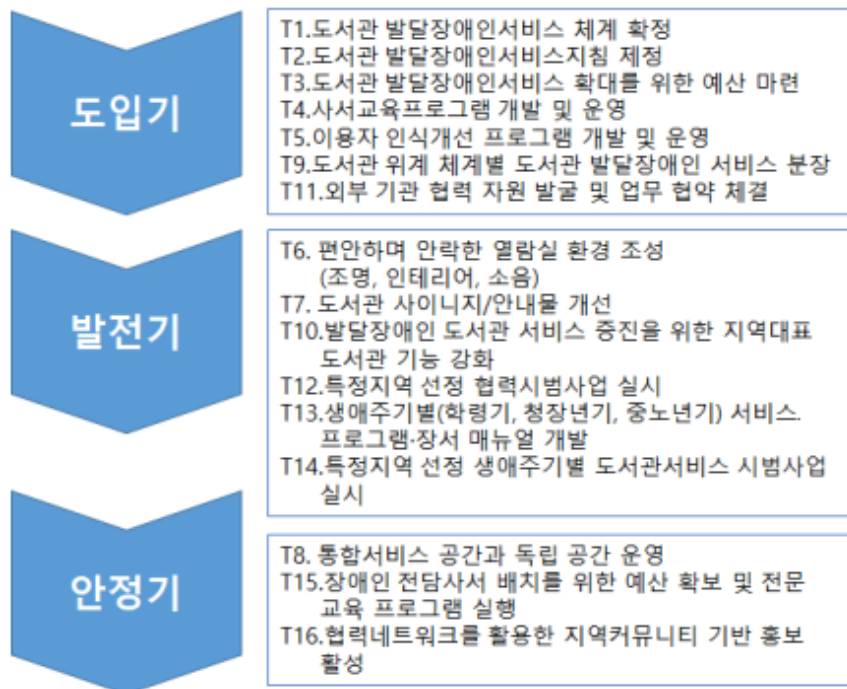
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전략과제 로드맵

수립된 16개 전략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제가 가진 성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 시점과 실행을 위해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적용 시점의 판단은 도입기와 발전기, 안정기로 구분하여 각 3년씩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였다. 도입기 전략과제는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활용을 위해 시급한 기반과제로서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발전기, 안정기 단계로 이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발전기에는 도입기에 안착된 인력, 시설 등의 제반 자원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기이다. 안정기는 최종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단계이며, 도서관 인력자원의 보강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표 6-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과제의 실행

전략 과제	시기		고려 사항과 대응 조치
	중요	적용	
T1.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 체계 확정	중	도입기	- 연구 결과에 대한 도서관 내외부 검토 및 서비스 체계 확정
T2.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지침 제정	중	도입기	- 연구 결과를 고려한 발달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침의 제정
T3.도서관 발달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	상	도입기	- 기획재정부, 국회, 장애인계 등의 협력을 통한 예산 증액 및 배분 계획 수립
T4.사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	도입기	-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의 사서교육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강사 육성, 교육프로그램 실행
T5.이용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	도입기	-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이용자의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T6.편안하며 안락한 열람실 환경 조성(조명, 인테리어, 소음)	상	발전기	-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 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
T7.도서관 전자 광고판/안내물 개선	상	발전기	-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도서관 전자 광고판 시스템 개발
T8.통합서비스 공간과 독립 공간 운영	중	안정기	-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공간과 동시에 소음이 허용되는 독립공간을 동시 운영
T9.도서관 위계 체계별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분장	중	도입기	-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지역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역할을 분장
T10.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기능 강화	하	발전기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세부기능을 강화
T11.외부 기관 협력 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 체결	상	도입기	-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와 이용자 유입을 위해 지역기반 협력체계 구축
T12.특정지역 선정 협력시범사업 실시	하	발전기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타 지역에 확산사업 실시
T13.생애주기별(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서비스·프로그램·장서 매뉴얼 개발	중	발전기	- 서비스 기본 인프라(인력, 장서, 시설)의 구성이 최소한의 수준을 달성한뒤 실제적인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T14.특정지역 선정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하	발전기	- 개발된 서비스 매뉴얼을 기초로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T15.장애인 전담사서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실행	상	안정기	- 장기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에 최소 1인의 장애인서비스 전담사서를 배치
T16.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홍보 활성화	중	안정기	- 지역기반 협력네트워크가 안정화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



<그림 6-2>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전략과제 로드맵

<참고문헌>

-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 강지혜, 차성종, 배경재. (2018).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장애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73-191.
- 교육부 (2018).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16(4), 315-336.
- 배경재. (2016).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품질요인의 실증적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271-287.
- 손지영, 박현옥, & 이정은. (2013). 지적장애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 12(1), 181-206.
-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2013).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97-219.
-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영선, 이현주, 구정아, 정평강 (2018).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인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 이정은, 서선진, & 박현옥. (2013).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자폐성장장애연구*, 13(1), 21-46.
- 장보성. (2015).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1), 297-316.
- 정민호, 정해동, 김유리, 권정민, 김기룡, 황윤의, 최기상 (2015).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기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해인, 제철웅, 오다은 (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erson, A. (2016). Wrong planet, right library: College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 academic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DigiNole.
(http://purl.flvc.org/fsu/fd/FSU_2016SP_Anderson_fsu_0071E_13037)
- Anderson, A. (2018). Autism and the Academic Library: A Study of Online Communi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9(5), 645-658.
-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06). A student's guide to evaluating librarie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Retrieved from <http://www.ala.org/acrl/issues/marketing/studentsguide>
- Baldassari-Hackstaff, L., Kerber, S., Krovontka, R. A., & Olson, L. R. (2014). Sensory-enhanced storytime at Douglas County Libraries: An inclusive program. *Public Libraries Online*. Retrieved from <http://publiclibrariesonline.org/2014/05/sensory-enhanced-storytime-at-douglas-county-libraries-an-inclusive-program/>
- Burgstahler, S. (2012). Equal access: Universal design of libraries. Disabilities, Opportunities, Internetworking, and Technology (DO-IT). Retrieved from <http://www.washington.edu/doit/equal-access-universaldesign-libraries>
- Cho, J. (2018). Building bridges: librarian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Reference Services Review*, 46(3), 325-339.
- Damron, M. (2019). A Sensory Wonderland: A programming space for the special needs community. *American Libraries*. Retrieved from <https://americanlibrariesmagazine.org/2019/06/03/a-sensory-wonderland>
- Eng, A. (2017). Neurodiversity in the library: One librarian's experience. In the Library with a Lead Pipe. Retrieved from <http://www.inthelibrarywiththeleadpipe.org/2017/neurodiversity-in-the-library/>

- Everhart, N., Woods, J., Anderson, A., & Delehanty, A. (2016). Environment checklist. Project PALS. Retrieved from <http://learn.webjunction.org/course/view.php?id=201>
- Farmer, L. S. J., & Sykes, M. (2008). Library Services for Students with Autism. *CSLA Journal*, 31(2), 25-27.
- Follette Story, M., Mueller, J. L., & Mace, R. L. (1998). The universal design file: Designing for people of all ages and abiliti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Universal Design.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460554.pdf>
- Ghuloum, H. F., & Alyacoub, W. M. (2017). Activating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towards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in Kuwait. *Information Development*, 33(4), 406-417. doi:10.1177/0266666916665436
- Gleason, A. W. (2017). New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libraries.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Grantham, L. J. (2013) Self accommodation. In E. Ashkenazy and M. Latimer (Eds.) Navigating college: A handbook on self advocacy written for autistic students from autistic adults (36-40). Washington, D.C.: Autistic Self Advocacy Network.
- Holmes, J. L. (2008). Patr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eeds assessment survey. *New Library World*, 109(11/12), 533-545. doi:10.1108/03074800810921340
- Kaeding, J., Velasquez, D. L., & Price, D. (2017). Public Libraries and Acces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 Proposed Inclusive Library Model.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66(2), 96-115. doi:10.1080/24750158.2017.1298399
- Kim, C. (2014) Sensory sensitivities and atypical sensory processing. Musings of an Aspie. Retrieved from <https://musingsofanaspie.com/2014/01/28/sensory-sensitivities-and-atypical-sensoryprocessing/#more-1883>
- Kim, C. (2015). Nerdy, shy, and socially inappropriate: A user guide to an Asperger

- lif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awrence, E. (2013). Loud hands in the library: Neurodiversity in LIS theory & practice. *Progressive Librarian*, (41) 98 - 109.
- Long, E. A. (2010). Classroom lighting desig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Madriaga, M. (2010). 'I avoid pubs and the student union like the plague': Students with Asperger Syndrome and their negotiation of university spaces. *Children's Geographies*, 8(1), 39-50.
- Mandel, L. H., & Johnston, M. P. (2017). Evaluating library signage: A systematic method for conducting a library signage inventor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 Marcotte, A. (2019). Everyone on the Same Page: Adults with disabilities find engagement, community in book clubs. *American Libraries*, 50(6), 18-19.
- Markey, P. T. (2015). Introducing an Information-Seeking Skill in a School Library to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Using Video Modeling and Least-to-Most Prompts. *School Library Research*, 18.
- Mcguire, J. M., Scott, S. S., & Shaw, S. F. (2006). Universal design and its application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7(3), 166 - 175. <https://doi.org/10.1177/07419325060270030501>
- O'Dell, K. (2015). Creating a Level of Comfort. *Library Journal*, 140(19), 18-18.
- Pionke, J. (2017). Toward holistic accessibility: Narratives from functionally diverse patron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7(1), 48-56.
- Price, A. (2014). Digital Sensory Storytime Helps Autistic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imls.gov/blog/2014/04/digital-sensory-storytime-helps-autistic-children>
- Riley-Huff, D. A. (2012). Web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A primer on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for librarie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8(7), 29-35.
- Rosenberg, M. S., Westling, D. L., & McLeskey, J. (2011). *Special education for*

- today's teachers: An introduc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Shea, G., & Derry, S. (2019). Academic librar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What do we know?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5(4), 326-331. doi:10.1016/j.acalib.2019.04.007
- Staines, G. M. (2012). *Universal design: a practical guide to creating and recreating interiors of academic libraries for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Oxford: Chandos Publishing.
- The Institute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18) Project A+ (Serving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academic library).
- Troknya, M. (2015). Diversity and inclusion: Robotic librarians help autistic patrons. *Public Libraries Online*. Retrieved from <http://publiclibrariesonline.org/2015/07/diversity-and-inclusion-robotic-librarians-help-autistic-patrons/>
- Van Hees, V., Moyson, T., & Roeyers, H. (2015). Higher education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hallenges, benefits and support need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5(6), 1673-1688.
- Weadley, K. (2015). Special access browsing for kid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Public Libraries Online*. Retrieved from <http://publiclibrariesonline.org/2015/06/special-access-browsing-for-kids-with-autism-spectrum-disorder/>
- Wilkoff, W. L.; Abed, L. W. (1994). *Practicing universal design: An interpretation of the ADA*.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Zupon, P. (2013). Academic libraries and college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How can we help? Retrieved from <https://blogs.wayne.edu/turninginformationintoknowledge/2013/03/12/academiclibraries-and-college-students-with-autism-spectrum-disorder-how-can-we-help/>

첨부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모델 개발 관련
설문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관련 설문

안녕하십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장애, 교육정도,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 설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오니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입니다.

2019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jbae@dongduk.ac.kr

I. 기본 정보

1.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강원도 | ☐ 대전광역시 | ☐ 전라남도 |
| ☐ 경기도 | ☐ 부산광역시 | ☐ 전라북도 |
| ☐ 경상남도 | ☐ 서울특별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 경상북도 | ☐ 세종특별자치시 | ☐ 충청남도 |
|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충청북도 |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기타(해외 등)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남성
- ☐ 여성

3. 귀하의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숫자만 입력 가능)

_____세

4.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선택해주시요.

- ☐ 어머니
- ☐ 아버지
- ☐ 배우자
- ☐ 형제/자매
- ☐ 조부모
- ☐ 기타 가족

5. 발달장애인의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 ☐ 가정에서 거주(주간보호시설 비이용)
- ☐ 가정에서 거주(주간보호시설 이용)
- ☐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에서 거주
- ☐ 기타

II. 발달장애인 기본 특성

귀하의 발달장애인 자녀(이하 '귀하의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 성별은 무엇입니까?

- ☐ 남성
- ☐ 여성

2. 귀하의 자녀의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숫자만 입력 가능)

_____세

3. 귀하의 자녀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4. 귀하의 자녀의 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 ☐ 1급
- ☐ 2급
- ☐ 3급

5. 귀하의 자녀의 일상생활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처리가능
- ☐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처리가능
- ☐ 일부도움 필요
- ☐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 ☐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6. 귀하의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어떻습니까?

- ☐ 모두 스스로 표현 가능함
- ☐ 대부분 스스로 표현 가능함
- ☐ 일부 도움을 받아 표현 가능함

-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표현이 가능함
-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7. 귀하의 자녀의 도전적 행동(기존 '문제행동')이 발견되니까? (중복선택 가능)

- ☐ 문제행동 없음 > 8번으로 이동
- ☐ 문제행동 발견됨

7-1. 귀하의 자녀의 어떤 도전적 행동(기존 '문제행동')이 발견되니까? (중복선택 가능)

- ☐ 과잉: 지나치게 움직이고 쉴 사이 없이 활동
- ☐ 충동: 다른 활동으로 자주 바꾸며 순간적으로 행동
- ☐ 폭력
- ☐ 자해
- ☐ 상동행동: 동일행동 반복

7-2. 귀하의 자녀의 도전적 행동 정도는 어떻습니까?

- 매우 경함
- 약간 경함
- 보통
- 약간 심함
- 매우 심함

8. 귀하의 자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미취학
- 무학
- 초등학교 재학 중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재학 중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재학 중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 중
- 대학 졸업
- 대학원 재학
- 대학원 졸업 이상

9. 귀하의 자녀가 종사하는 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농림/어업 | ⑤ 교육·연구·법률·보건 |
| ② 제조/생산 | ⑥ 학생 |
| ③ 미용·숙박·여행·스포츠·음식 | ⑦ 기타 () |
| ④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 | |

Ⅲ.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현황

본 설문문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아래에 제시된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기관	활용빈도				
	매우 자주 이용함	종종 이용하는 편임	가끔 이용함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한 적 없음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5	4	3	2	1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5	4	3	2	1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5	4	3	2	1
시도/시군구/읍면동 평생학습기관 (예: 아산시평생학습관)	5	4	3	2	1
공공기관이나 시설(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5	4	3	2	1
사설기관(백화점, 마트 등)의 평생교육기관	5	4	3	2	1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	5	4	3	2	1
기타 ()	5	4	3	2	1

2.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아래에 제시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빈도				
	매우 자주 이용함	종종 이용하는 편임	가끔 이용함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한 적 없음
기초문해교육: 한글교실, 가족문해교실, 한글쓰기(백일장)	5	4	3	2	1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강좌, 교과연계강좌, 독학사나 학점은행제강좌	5	4	3	2	1
직업능력향상교육: 취업준비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5	4	3	2	1
문화예술교육: 음악/무용/공예강좌, 노래교실, 수영/축	5	4	3	2	1

구 등 스포츠활동					
인문교양교육: 식생활교육, 예절교육, 일반 인문학이나 과학 강좌, 독서강좌 등	5	4	3	2	1
시민참여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이나 장애 이해 교실 등	5	4	3	2	1

- 기초문해교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독능력과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 활용 능력을 개발
- 학력보완교육: 학교 이외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평생교육
- 인문교양교육: 장애인이 소속한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시민참여교육: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2번의 문항을 모두 참여한 적이 없는 분은 3번 생략 후 'IV.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이동해주세요.

3.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초문해교육: 한글교실, 가족문해교실, 한글쓰기(백일장)	5	4	3	2	1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강좌, 교과연계강좌, 독학사나	5	4	3	2	1

학점은행제강좌					
직업능력향상교육: 취업준비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5	4	3	2	1
문화예술교육: 음악/무용/공예강좌, 노래교실, 수영/축구 등 스포츠활동	5	4	3	2	1
인문교양교육: 식생활교육, 예절교육, 일반 인문학이나 과학 강좌, 독서강좌 등	5	4	3	2	1
시민참여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이나 장애 이해 교실 등	5	4	3	2	1

IV. 도서관 이용현황

본 설문에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 |
|--------------------------------|---|
| ☐ 매일 | ☐ 연 1~3회 |
| ☐ 주 1~3회 | ☐ 이용하지 않음 |
| ☐ 월 1~3회 | ☐ 기타 () |
| ☐ 6개월 1~3회 | |

2. 귀하의 자녀는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 |
|--------------------------------|---|
| ☐ 매일 | ☐ 연 1~3회 |
| ☐ 주 1~3회 | ☐ 이용하지 않음 > 2-5로 이동
해주세요. |
| ☐ 월 1~3회 | ☐ 기타 () |
| ☐ 6개월 1~3회 | |

2-1.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 ☐ 도서관 서비스 이용
- ☐ 도서관의 시설이나 공간 활용
- ☐ 장서(도서 등)의 대출/반납
- ☐ 사람을 만나거나 도서관 커뮤니티(독서회 등)에 참여
- ☐ 기타

2-2.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에서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대출/반납서비스
- ☐ 이동도서관
- ☐ 디지털도서관
- ☐ 상호대차: 업무협약을 통해 대체자료나 도서를 타 도서관에서 대출
- ☐ 기타

2-3.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의 주제 세 개를 선택해 주세요. (1~3개 주제 선택 가능, 주제 분야 가나다순임)

- | | |
|---|--|
| ☐ 건강 | ☐ 철학/종교 |
| ☐ 문학 | ☐ 취미/여가 |
| ☐ 역사 | ☐ 컴퓨터 등 실용과학 |
| ☐ 예술: 건축, 조각, 음악 등 | ☐ 기타 () |
| ☐ 진로/직업/진학 | |

2-4.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에서 이용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어떠했나요?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만 응답)

구분	프로그램	활용도				
		활용성이 매우 높다	활용성이 있다	보통이다	활용성이 없다	활용성이 매우 낮다
독서프로그램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 이용법, 독서법 등	5	4	3	2	1
	독서 관련: 독서회, 독서세미나 등	5	4	3	2	1
	행사 관련: 독서의 달, 독서주간행사 등	5	4	3	2	1
	저자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	5	4	3	2	1
	기타 프로그램: 책읽는 가족, 책연구회 등	5	4	3	2	1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수채화, 음악여행 등	5	4	3	2	1
	어학: 영어회화, 생활영어, 한문 등	5	4	3	2	1
	정보화: 포토샵, 엑셀 등	5	4	3	2	1
	전통문화: 유교사향, 전통염색 등	5	4	3	2	1
	취미여가: 비즈공예, 예쁜 글씨 등	5	4	3	2	1
	건강: 건강요가, 웃음치료 등	5	4	3	2	1
	체험학습: 쿠키클레이, 비즈공예, 도자기 교실 등	5	4	3	2	1
	문화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마술공연, 평생교육강좌, 성교육 프로젝트 등	5	4	3	2	1
	자격증 과정 교육: 컴퓨터 자격증 수업 등	5	4	3	2	1
	기타: 재무설계, 대화기법, 두뇌속독 등	5	4	3	2	1

> 답변 후 'V. 도서관 이용요구'로 이동해주세요.

2-5.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구분	프로그램	활용도				
		활용성이 매우 높다	활용성이 있다	보통이다	활용성이 없다	활용성이 매우 낮다
접근성	도서관이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함	5	4	3	2	1
	주변에 도서관이 없음	5	4	3	2	1
	도서관 운영시간 맞지 않음	5	4	3	2	1
시설/설비	열람실내 장애인이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 안됨	5	4	3	2	1
	소음이나 문제행동 때문에 눈치 보여서	5	4	3	2	1
	휴게 공간과 시설이 부족	5	4	3	2	1
	공간이나 서가 이용이 불편함	5	4	3	2	1
자료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5	4	3	2	1
	전자자료 부족	5	4	3	2	1
서비스/프로그램	장애인 맞춤서비스 미비	5	4	3	2	1
	자료 찾기나 정보서비스 어려움	5	4	3	2	1
	정보서비스 홍보나 교육 부족	5	4	3	2	1
	통합 도서관 프로그램 부족	5	4	3	2	1
	도서관 프로그램 신청이 어려움	5	4	3	2	1
이용자/사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	5	4	3	2	1
	직원과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음	5	4	3	2	1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	5	4	3	2	1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 부족	5	4	3	2	1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	4	3	2	1
기타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함	5	4	3	2	1
	기타	5	4	3	2	1

V. 도서관 이용요구

1. 귀하의 자녀에게 도서관의 어떤 공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간요소	내용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열람실/서가	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높낮이 조절 책상 등 구비	5	4	3	2	1
대면낭독실	방음시설이 구비되어 낭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	5	4	3	2	1
멀티미디어실	학습자료, 영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5	4	3	2	1
정보검색실	특수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도서관 자료를 검색	5	4	3	2	1
안내데스크	도서관 이용안내, 보조기기 대여	5	4	3	2	1
사인시스템	공간이나 서가배치도 등의 표기, 픽토그램,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5	4	3	2	1

2. 귀하의 자녀에게 도서관의 어떤 시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분	시설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5	4	3	2	1
	장애인전용주차구	5	4	3	2	1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	4	3	2	1
내부시설	출입구/문	5	4	3	2	1
	복도	5	4	3	2	1
	계단/승강기	5	4	3	2	1
위생시설	화장실	5	4	3	2	1
	세면대	5	4	3	2	1
안내시설	유도 및 안내설비	5	4	3	2	1
	경보 및 피난설비	5	4	3	2	1
기타시설	열람석	5	4	3	2	1

	접수대/작업대	5	4	3	2	1
	판매기/음료대	5	4	3	2	1

3. 귀하의 자녀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 요구하시는 사항을 기재해주시요.

4. 귀하의 자녀에게 도서관의 어떤 장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분	장서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대체자료	아날로그 녹음도서	5	4	3	2	1
	읽기쉬운도서	5	4	3	2	1
	큰글자도서	5	4	3	2	1
	촉각도서	5	4	3	2	1
	그림 및 만화도서	5	4	3	2	1
	기타 대체자료 (점자도서, 수어동영상 등)	5	4	3	2	1
일반자료	도서	5	4	3	2	1
	비도서자료 (지도, 악보 등)	5	4	3	2	1
	영상자료 (DVD, 블루레이 등)	5	4	3	2	1
	e-book, e-audio 등	5	4	3	2	1
	특성화자료 (도서관별 특화 자료)	5	4	3	2	1
	기타	5	4	3	2	1

5. 귀하의 자녀에게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분	프로그램	활용도				
		활용성이 매우 높다	활용성이 있다	보통이다	활용성이 없다	활용성이 매우 낮다
독서프로그램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 이용법, 독서법 등	5	4	3	2	1
	독서 관련: 독서회, 독서세미나 등	5	4	3	2	1
	행사 관련: 독서의 달, 독서주간행사 등	5	4	3	2	1
	저자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	5	4	3	2	1
	기타 프로그램: 책읽는 가족, 책연구회 등	5	4	3	2	1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수채화, 음악여행 등	5	4	3	2	1
	어학: 영어회화, 생활영어, 한문 등	5	4	3	2	1
	정보화: 포토샵, 엑셀 등	5	4	3	2	1
	전통문화: 유교사향, 전통염색 등	5	4	3	2	1
	취미여가: 비즈공예, 예쁜 글씨 등	5	4	3	2	1
	건강: 건강요가, 웃음치료 등	5	4	3	2	1
	체험학습: 쿠키클레이, 비즈공예, 도자기 교실 등	5	4	3	2	1
	문화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마술공연, 평생교육강좌, 성교육 프로젝트 등	5	4	3	2	1
	자격증 과정 교육: 컴퓨터 자격증 수업 등	5	4	3	2	1
	기타: 재무설계, 대화기법, 두뇌속독 등	5	4	3	2	1

6.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길 바라십니까?

(1) 기간

- ☐ 1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
- ☐ 월별 단기 프로그램
- ☐ 6개월 이상 중기 프로그램
- ☐ 1회성 프로그램

(2) 1회당 지속 시간

- ☐ 2~5시간
- ☐ 30분~1시간
- ☐ 1~2시간

(3) 프로그램 규모

- 대규모 (50~100명)
- 중규모 (20~50명)
- 소규모 10명 이하
- 1:1 프로그램

7. 도서관에서 신설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VI. 자유의견

추후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

첨부2. 전문가 FGI 질문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자문회의

- 대 상 : 발달장애인서비스 관련 전문가 5명, 국중 담당자, 연구진 등 총 9명
- 개최 일시 : 2019.9.20.(금) 오후 4시 ~ 5시 30분 (예정)
- 장 소 : 국립장애인도서관 회의실(국립중앙도서관 6층)
- 조사 내용 :
 -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FGI 조사 질문 및 내용

면담 단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No
시작 단계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Q1
		- 기존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	Q2
		-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및 중요성	Q3
핵심 단계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	-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의/참고 사항 등 의견 제시 (시설, 공간, 장서, 콘 텐츠, 인력 등의 측면에서)	Q4
	발달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 도서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소속기관과의 협력내 용을 중심으로)	Q5
종결 단계	현재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 및 도서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언사항	- 소속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있 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Q6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발달 장애인서비스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Q7
			Q8

첨부3. 담당사서 질문지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위한 사서 서면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장애, 교육정도,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오니 사서분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경험이 있는 사서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면조사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귀한 노하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jbae@dongduk.ac.kr

I. 기본 정보

귀하의 근무경력과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여쭙보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속 도서관을 기재해 주세요. () 도서관

2. 사서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해 주세요. (____년 ____개월)

3. 기획/운영해보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견학서비스, 단순 열람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이용자 서비스 포함)

II. 소속 도서관 이용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

귀하의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여쭙습니다.

1. 소속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의 시설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참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세면대)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열람석, 접수대/작업대, 판매기/음료대)

2. 소속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의 공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참고: 도서관의 주요 공간
열람실/서가, 대면상담실, 멀티미디어실, 정보검색실, 안내데스크, 사인시스템

3. 소속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의 장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참고: 도서관 장서

- 대체자료: 아날로그 녹음도서, 읽기쉬운도서, 큰글자도서, 촉각도서, 그림 및 만화 도서, 기타 대체자료 (점자도서, 수어동영상 등)
- 일반자료: 도서, 비도서자료 (지도, 악보 등), 영상자료 (DVD, 블루레이 등), e-book, e-audio 등, 기타

4. 소속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의 인력(사서, 자원봉사자 등)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Ⅲ. 발달장애인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귀하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예: 이용자 만족도, 홍보효과, 프로그램 효용성, 예산 효율이 높은 사례 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요인과 부정적으로 평가(예: 민원 발생,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예산이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하도록 영향을 끼친 요인에 대해 여쭙보는 질문입니다.

1.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적이 있다면, 이유나 관련 요인을 도서관 측면과 장애인 측면에서 서술해주시시오. 그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측면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이 얻은 긍정적 효과)	-
장애인 측면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얻은 긍정적 효과)	-

2.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나 관련 요인을 도서관 측면과 장애인 측면에서 서술해주시요.

도서관 측면 (발달장애 인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이 얻은 부정적 결과)	
장애인 측면 (발달장애 인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얻은 부정적 결과)	

3. 2번 문항의 답변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V. 홍보/협력 방안

1.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무엇인가요?

-

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시 어떤 기관과 어떤 방식의 협력 방식이 중요할까요? 또한 기관 협력시 고려/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V. 서비스 고려사항과 자유의견

.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도를 골라주세요.

구분	프로그램	중요도				
		매우 중요하 다	중요하 다	보통이 다	중요하 지 않다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접근성	도서관과의 거리, 교통의 편의성	5	4	3	2	1
	도서관 운영시간	5	4	3	2	1
시설/ 설비	열람실내 장애인이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	5	4	3	2	1
	소음이나 문제행동 포용 가능한 공간	5	4	3	2	1
	휴게 공간과 시설	5	4	3	2	1
	공간이나 서가 이용	5	4	3	2	1
자료	필요한 자료 구비	5	4	3	2	1
	전자자료 구비	5	4	3	2	1
서비스/ 프로그램	장애인 맞춤서비스	5	4	3	2	1
	자료 찾거나 정보서비스	5	4	3	2	1
	정보서비스 홍보나 교육	5	4	3	2	1
	통합 도서관 프로그램	5	4	3	2	1
	도서관 프로그램 신청 방법	5	4	3	2	1
이용자/ 사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	5	4	3	2	1
	직원과 의사소통	5	4	3	2	1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5	4	3	2	1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	5	4	3	2	1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5	4	3	2	1
홍보	홍보 전략	5	4	3	2	1
	기관 제휴	5	4	3	2	1

2. 추후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언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이 기재해주세요.

-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

연구진

- 위탁연구기관명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강지혜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 연구보조원 : 김정빈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최종보고서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연구

인쇄일 : 2019년 10월

발행일 : 2019년 10월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발행인 : 서혜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 02-3483-8881

팩 스 : 02-590-0656

누리집 : <http://nld.nl.go.kr>

연구기관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 979-11-02-09148-5 93330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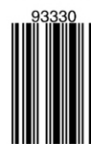


국립장애인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비매품/무료



9 791102 091485



93330

ISBN 979-11-02-09148-5